

[연구보고서 2026-02]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과제

박민정배옥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과제

발 행 인 : 하 금 숙
발 행 일 : 2026. 6. 30.
발 행 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 소 : (36849) 경북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동행관 3층
전 화 : 054-650-7900
홈 페이지 : <https://forwoman.or.kr>
디자인인쇄 :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2024년 기준 전체가구의 36.1%가 1인가구임. 경북도 또한 1인가구가 38.9%이며, 40대 이하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60대 이상은 높은 1인가구의 고령화 현상을 보임.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영역에 26개 세부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노년층 대상 사업이 주를 이룸
- 경북도의 현재 1인 가구 정책과 지원 제도는 다양한 세대의 수요 반영에 한계성을 지니는 면이 있어, 연령층별 수요차와 함께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접근성 등 도농 격차가 큰 경북의 특성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각지대 없는 1인가구 정책 발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본원의 선행 연구(배옥현 외, 2024)를 기반으로 청년정책과 노인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1인가구 정책과 제도를 전생애주기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제도 등 경북 시군 격차를 고려한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제도를 발굴하고자 함. 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정책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경북 1인가구 정책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에 본연구는 1인가구 지원 제도 및 사업 전반에 대해 고찰해 보고, 연령별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22개 시군 모두가 1인가구 대상 특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1인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북”을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경북을 조성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음. 먼저, 1인가구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의 2의 정의를 준용하였으며, 1인가구 사업 수행 기관으로 22개 가족센터로 한정함. 지역 여건에 따라 청년 센터나 복지관 등에서도 1인가구 포함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1인가구를 복지의 영역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과 도의 1인가구 사업 주요 수행 주체라는 점에서 대상을 한정함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통계를 통한 경북 1인가구의 특성 분석과 배옥현 외(2024)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원자료 분석으로 경북 도민의 생활 실태를 주거 및 거주지, 경제활동, 일상 생활 실태, 영역별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함. 또한 중앙과 경북도 1인가구 정책 흐름 및 현황을 개관하고, 서울과 경기와 같이 1인가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봄. 다음으로는 1인가구 사업 수행기관인 가족 센터 대상 1, 2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3년간의 1인가구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1인가구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과 애로점, 필요 정책 및 지원, 특화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함. 이를 통해 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개관과 정책적 요구도를 파악함. 이러한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정상 가족과 대비되는 1인가구의 개념을 탈피해 보편적 가구인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경북형 시군 특화 사업 방안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방법은 기관 대상 구조화된 질문지 배포, 이를 분석 후 면담 조사 실시함

3) 연구의 절차

연구방향 설정	구체화 단계	정책방안 도출단계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수연구사업·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분석·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화된 서면 질문지(기관) 조사· 조사 결과 기반 면담조사· 중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연구사업 심의위원회

II. 주요 분석 결과

1) 1인가구 정책 현황 및 실태와 정책

□ 1인가구 현황

- 경북 1인가구는 2024년 기준 38.9%로 전국 시도 중 5번째 높은 비중을 보이며, 연령층별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각 36.7%이며 청년층 비중은 26.7%임. 또 경북 1인가구의 성비는 101.2로 남성이 약간 많으나, 청년층은 180.1, 중장년층은 148.2, 노년층은 44.3으로 연령별 성비 격차가 큼.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비가 낮아지고 있어, 노년층 여성 집중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경북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68.0%)이 여성(43.8%)보다 24.2%p 높으며, 1인가구 형성 원인은 본인 직장(30.8%)이 가장 큰 이유이나, 50대 이하에서는 '직장'이, 60대 이상은 '사별'과 '가족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경북 22개 시군의 1인가구 인구 구조를 보면, 1인가구의 인구 규모 및 연령별 비중, 성비 등에서 차이가 뚜렷함. 이를 기반으로 경북 시군의 1인가구 거주 유형을 아래와 같이 유형화함

구분	특징
청년 남성 집중	청년 1인가구 비율이 42% 이상에, 성비도 107이상으로 남성 1인가구가 많음 구미와 경산과 같은 대학 및 산업 도시
중장년 남성 집중	중장년 인구 비중이 40% 내외이며, 성비는 100 이상으로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많음 포항과 칠곡과 같은 제조업 및 물류 산업지역 울릉 및 영천과 같은 이주 노동자 및 남성 단신 부임 지역 등 남성 일자리 많은 지역
균형	비교적 고른 연령 분포와 성비 90 내외로 고령 여성 집중이 덜한 지역 안동, 김천, 경주 등의 지역 거점 시지역
고령 여성 집중	높은 노년층 비중으로 고령 여성 비중이 특히 높은 지역 때문에 성비가 낮게 나타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성비 90 이하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등

□ 경북 1인가구 실태

- 경북 1인가구 실태는 2024년 발간된 「경상북도 1인가구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 수립을 중심으로」(배옥현)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구성함. 배옥현 연구의 실태조사 일부를 추출해 발췌 및 원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경북 1인가구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함

〈연령층별 요구차〉

- 주거 및 거주지에 대한 요구차를 보면, 거주 종류와 점유형태에서 청년층의 취약성(월세 35.3%) 뚜렷하며 노년층은 단독주택과 자가 비중(각 76.5%, 77.1%)이 높으며 열악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뚜렷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드러냄. 특히, 거주지 선택 기준에 거주 경험 비중이 높아 익숙한 환경에서의 생활에 대한 요구가 뚜렷함
-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차에서는 상용 근로는 중장년층이 50.3%로 가장 높고, 월평균 소득도 284.4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근로 소득 의존 비중도 높음. 하지만, 청년층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은 9.1%p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남
- 일상생활에 대한 요구차에서는 청년 및 중장년층(취업과 독립 편의)과 노년층(이혼·별거·사별)의 1인가구 사유는 뚜렷히 구분되며, 중장년층은 원래가족과 함께 거주하고픈 욕구가 큼. 또 전 연령대에서 안정적 소득에 대한 요구가 크며, 가장 힘든 점으로 중장년층은 경제적 불안감을 응답했으나, 노년층은 위급시 대처 응답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통대상이 줄어들고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요구차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모두 경제·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며,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맞춤형 구인 구직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하지만, 경제 일자리와 안전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의 요구도가 더 크며,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요구도가 더 큼. 또 고령층은 건강 및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요구가 크며, 주거 정책에서 시설 보수 지원 요구가 큼. 특히, 전 연령대에서 가사

간병서비스 지원 요구가 커서 위기 상황시 전연령대의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음

〈거주 지역별 요구차〉

- 주거 및 거주지에 대한 거주지(시/군)별 요구차를 보면, 군지역은 단독주택 거주(71.6%)와 자가(84.3%)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주거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며,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시지역의 월평균 소득이 39.1만원 더 높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11.7%p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 수입원에서 군지역은 개인 연금 비중이 크고, 시지역은 군지역보다 근로 소득 및 정부 지원 비중이 큼.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거주지(시/군)별 요구차를 보면, 생활 만족도는 시지역이 0.3점(5점 척도) 높으나 경제적 불안감(39.0%)이 크며, 군지역은 위급시 대처(44.1%)에 대한 불안이 큼
- 정책에 대한 거주지(시/군)별 요구차를 보면, 최우선 정책으로는 시지역이 경제·일자리, 군지역은 안전으로 지역 차가 뚜렷하며,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군지역은 시설 보수 지원, 군지역은 임대 주택 지원, 안전 정책도 군지역은 비상벨·긴급 알림, 시지역은 주택 주변 환경 개선으로 시군간 요구차가 큼. 하지만 건강·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시군 모두 가사 간병 서비스 요구가 큼

□ 1인가구 정책과 제도

-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2026년 현재 1인가구 사업은 온가족 보듬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 1인가구 특화 서비스 모델 프로그램을 구성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경상북도는 2024년 「제 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2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인가구 사업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족센터가 경북도 1인가구 사업의 거점 기관임을 파악할 수 있음

- 타지자체의 사례로는 서울 1인가구 포털과 서울 1인가구 지원센터, 서울마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조직 구성과 사업을 개관하고, 경기도 1인가구 포털을 운영하고 '시군 1인가구 제안 사업 지원강화(자유주제 제안 사업)' 과 '온가족보듬사업 내 1인가구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여성1인가구 안심 패키지 보급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조직 구성과 사업을 개관함. 특히, 두 광역지자체 모두 포털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2) 1인가구 사업 운영 기관 조사 결과

□ 1인가구 대상 사업 분석

- 1인가구 사업은 가족센터의 필수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16개 기관에서 3년간 운영한 사업 32개를 확인함. 운영된 사업은 전반적으로 2025년 시행 계획 영역 기준으로 보면 4영역(건강 및 돌봄)의 소통·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식생활 및 소셜 다이닝, 5영역(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고독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음. 이를 사회적 관계망 형성(자조모임)과 심리정서 지원 및 힐링, 여가 문화, 취미 활동, 자립 지원 및 생활 역량강화, 복지 및 돌봄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으며, 현장의 사업 실행에서는 유형에 관계 없이 다회차로 운영될 경우 자조 모임 또는 소통망 형성까지 이르는 다목적성 사업으로 운영함

□ 1인가구 사업을 위한 정책적 수요

- 1인가구 사업 운영상의 애로점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구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와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전문성의 부족 문제, 1인가구에 대한 정보 부족과 타기관과의 중복성, 군 및 소지역의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의 문제, 1인가구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홍보 채널 부족 문제 등 다방면의 문제가 파악되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함

• 먼저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요구는 다음과 같음

구분	문제점
예산과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인력 확충과 사례관리 전담인력 및 기능분리 등 관리 지원체계 구축 ▶ 1인가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위한 예산 지원
담당자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사업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1인 가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교육 필요 ▶ 타지자체의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방식 이해 필요 ▶ 각 시설의 우수 사례 공유 필요
1인가구 Date 부재 및 사업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수형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통한 1인가구 빅데이터 등 현황 공유 ▶ 기관간 협력을 통해 1인가구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강사 인력풀 구축 및 현실적 지원_경상북도 차원의 전문 강사 풀 구축: 청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도내외 전문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시·군 단위 센터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이 필요 ▶ 공유 주방 등 시설 부족_소셜 다이닝 등 1인가구 수요가 높은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부족의 문제
공공 중심 홍보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참여자 모집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공공매체 및 포털 등 홍보지원(현장에서는 당근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음) ▶ 1인가구 대상 사업을 진행하는 유관기관들의 토론회나 사업공유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
낮은 접근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경우 이동성이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 ‘찾아가는 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거점형 모임 운영’이 필요. ▶ 읍·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서울 마음 편의점과 같이 1인가구가 상시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지원을 통해 접근성 제고 필요
사각지대 1인가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긴급 지원망 강화 ▶ 1인 중장년, 1인 청년 지원사업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
대상 맞춤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요리, 취미, 원데이클래스 등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 할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 중장년: 정서적 교류와 공감 형성이 가능한 소규모 모임형 프로그램, 집단상담 및 공동체프로그램(소집단) 등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중고령층: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고독사 예방 서비스, 건강관리 등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

→ 정책적 요구

- 1인가구 사업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 독립성 강화
-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담당자의 역량 강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 기관과의 협력 및 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1인가구 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
- 전문강사 풀 구축 및 시설확충(주변 시설 연계 정례화) 등을 통해 군단위 및 소도시의 1인가구 프로그램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 경북도 1인가구 포털과 같은 경북도 공공 채널을 통한 1인가구 사업 및 제도 안내 등 홍보 채널 마련, 사업 공유회를 통한 1인가구 인식 개선 효과 제고
- 찾아가는 프로그램, 경로당·마을 회관 등 지역 거점 활용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시 공간 마련
- 사각지대의 중장년 및 청년 1인가구 발굴을 통해 복지와 소통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III. 정책 방향과 과제

- 본 연구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 중 거주지와 연령별 수요를 반영한 일상생활과 정주 여건, 안전 지원에 중점을 두며 다음과 같은 3대 목표에 13개 세부 과제를 제안함. 이를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 맞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모든 1인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북 실현

정책 방향



목 차

I. 서론	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3
2. 선행연구	07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4. 연구의 절차	14
II.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15
1. 경북 1인가구 현황	17
2. 경북 1인가구 실태	32
3.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제도	58
4. 소결	79
III. 인식 및 정책 요구도 분석	89
1. 조사개요	91
2. 조사결과	92
3. 소결	108
IV. 정책적 제언	115
1. 요약 및 정책 방향	117
2. 1인가구 지원 방안	127
참고문헌	145
부 록	151

표 목 차

<표 I-1>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07
<표 I-2> 생애주기별 1인가구 행복수준 및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08
<표 I-3> 1인가구의 연령별 애로점과 정책요구에 대한 정책연구 검토	09
<표 II-1> 전국 및 경상북도 1인가구 변화 추이(2010-2024)	17
<표 II-2> 시도별 1인가구 현황(2024)	18
<표 II-3> 전국 및 경북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2024)	19
<표 II-4> 경북 1인가구의 경제활동 유무(2020)	20
<표 II-5> 경북 1인가구의 직업별 현황(2020)	21
<표 II-6> 경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사유(2020)	22
<표 II-7> 경북 시·군의 1인가구 현황(2024)	23
<표 II-8> 경북 시·군 연령 계층별 1인가구 현황(2024)	26
<표 II-9> 경북 시·군의 연령 계층별 1인가구 성비 현황(2024)	29
<표 II-10> 경북 시·군별 1인가구의 인구 구성 특성(2024)	30
<표 II-11> 거주지별 연령별 조사자 현황	32
<표 II-12>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33
<표 II-13> 거주지 선택 시 중요 요소(1순위)	34
<표 II-14> 주거환경에서 개선을 바라는 점(1순위)	35
<표 II-15>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36
<표 II-16> 거주지 선택 시 중요 요소(1순위)	37
<표 II-17> 근로 형태	38
<표 II-18> 월 평균소득 및 소득과 지출 차이	39
<표 II-19> 주된 수입원(1순위)	39
<표 II-20> 근로 형태	40
<표 II-21> 월 평균소득 및 소득과 지출 차이	41
<표 II-22> 주된 수입원(1순위)	42
<표 II-23>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43
<표 II-24> 구성하기를 원하는 가구·거주형태	44
<표 II-25>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1순위)	45

<표 Ⅱ-26>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순위)	45
<표 Ⅱ-27>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 희망 대상(정신적)	46
<표 Ⅱ-28>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 희망 대상(경제적)	47
<표 Ⅱ-29>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1순위)	49
<표 Ⅱ-30>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순위)	49
<표 Ⅱ-31>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 희망 대상(정신적)	50
<표 Ⅱ-32>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 희망 대상(경제적)	51
<표 Ⅱ-33> 영역별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	52
<표 Ⅱ-34> 주거 안정 정책 우선순위(1순위)	53
<표 Ⅱ-35> 안전 정책 우선순위(1순위)	54
<표 Ⅱ-36> 경제/일자리 정책 우선순위(1순위)	54
<표 Ⅱ-37> 건강/돌봄 지원 정책 우선순위(1순위)	55
<표 Ⅱ-38> 여가/사회적 관계망 정책 우선순위(1순위)	56
<표 Ⅱ-39> 제도/인식 정책 우선순위(1순위)	57
<표 Ⅱ-40> 1인가구 특화 서비스 모델 프로그램 구성	61
<표 Ⅱ-41>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 세부 추진과제	63
<표 Ⅱ-42> 2025년 경상북도 1인가구 시행계획 세부과제	64
<표 Ⅱ-43> 경북 2025 시행계획의 대상별 영역별 세부과제	66
<표 Ⅱ-44> 경북 2025 1인가구 지원사업 시군 우수사례	66
<표 Ⅱ-45> 2025년 서울시 1인가구 시행계획 지원사업	70
<표 Ⅱ-46>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내 연령대별 1인가구 지원사업	74
<표 Ⅱ-47> 2026년 경기도 1인가구 시행계획	75
<표 Ⅱ-48> 경북 1인가구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거주 유형	80
<표 Ⅱ-49> 연령별 생활 실태	81
<표 Ⅱ-50> 거주지별 생활 실태	82
<표 Ⅱ-51> 연령 및 거주지별 생활 실태 교차분석	83
<표 Ⅱ-52> 연령별 정책 요구도	84
<표 Ⅱ-53> 거주지별 정책 요구도	85
<표 Ⅱ-54> 생활 실태의 연령 및 거주지별 인식차와 정책적 함의	86
<표 Ⅱ-55> 제도/정책에 대한 연령 및 거주지별 인식차와 정책적 함의	87

<표 Ⅲ-1> 조사 내용 구성	91
<표 Ⅲ-2> 조사 참여 기관	92
<표 Ⅲ-3> 경북 시군 가족센터 1인가구 사업 운영 현황(2023~2025)	93
<표 Ⅲ-4> 1인가구 운영 사업 유형 구분	97
<표 Ⅲ-5> 1인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110
<표 Ⅲ-6> 1인가구 특화사업 발굴	111
<표 Ⅲ-7> 수요 맞춤형 1인가구 사업 발굴	111
<참고 표 1> 경북 혼인상태별 중장년층 및 1인가구 현황(2020)	153
<참고 표 2> 경북 중장년층의 거쳐종류 및 점유형태별 구성비(2020)	153
<참고 표 3> 경북 중장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2020)	154
<참고 표 4> 경북 중장년층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20)	154
<참고 표 5> 경북 중장년층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20)	154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의 절차	14
[그림 II-1] 시군별 1인가구 현황	24
[그림 II-2] 시군별 1인가구 성비 현황	25
[그림 II-3] 경북 연령층별 1인가구의 도농별 거주 구분	25
[그림 II-4] 연령층별 시군 1인가구 구성비	28
[그림 II-5] 경북 1인가구 시군별 거주 유형	31
[그림 II-6] 연령별 성별 거주 주택 만족도	35
[그림 II-7] 거주지별 연령별 거주 주택 만족도	37
[그림 II-8]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 있음 응답률	40
[그림 II-9]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 있음 응답률	42
[그림 II-10] 연령대별 거주지별 생활 만족도	44
[그림 II-11] 연령대별 성별 소통하는 친구나 가족 있음 응답률	47
[그림 II-12] 거주지별 연령대별 생활 만족도	48
[그림 II-13] 거주지별 연령대별 소통하는 친구나 가족 있음 응답률	52
[그림 II-14] 중앙 정부의 1인가구 대응 정책	58
[그림 II-15]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 비전 및 목표	62
[그림 II-16] 서울시 1인가구 포털	74
[그림 II-17] 경기도 1인가구 포털	78
[그림 II-18] 경기도 시군 운영 프로그램	78
[그림 IV-1] 경북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방향성 및 수요	126
[그림 IV-2] 맞춤형 1인가구 지원 방안	127
[그림 IV-3] 경북 시군별 여건 및 대상맞춤 프로그램	130
[그림 IV-4]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가족센터 역할	141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연구의 절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2024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전체의 36.1%이며 생애주기에서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보편적 가구의 형태임
 - 2025년 기준으로 최근 가족 형태의 변화로 1인 가구가 4,142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2024년 기준)로 주류였던 4인가구와 3인가구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냄
 - 2010년 전체 가구의 27.3%였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출생 고령화와 사회 변화와 맞물려 향후 증가가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됨. 이처럼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는 가장 주된 가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청년층은 학업과 직장 때문에, 중장년층은 직장과 본인 독립 생활, 중고령층은 가족문제와 가족 사별 등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형성 원인 차이가 뚜렷함
 - 또한 학업과 직장, 가족문제와 사별 등 주된 형성 요인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삶에서 1인가구의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1인 가구의 등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드는 인구 불균형의 문제와 생애주기별 주된 문제, 만혼 비혼 추세 등 인구학적 사회학적 요인이 맞물리며 더욱 심화 되고 있음

- 2024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1인가구는 38.9%로 전국평균보다 높으며, 40대 이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이며, 60대 이상은 높게 나타남. 특히, 70대 여성의 경우 11.4%p 높게 나타남. 또한, 성별·연령별로 1인가구의 형성 사유 차이가 뚜렷해 1인가구 지원에서도 주거와 건강, 돌봄, 사회적 고립, 사회적 불평등 등의 요구 정책의 차이를 추정할 수 있음
 - 경북은 2024년 기준으로 1인가구가 38.9%로 전국 평균보다 2.8% 높으며, 연령 별로는 전국과 비교하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낮은 편이며, 60대 이상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7.0%p, 70대 여성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1.4%p 높게 나타남

- 또한 1인 가구의 주요 사유는 본인 직장(30.8%)과 가족사별(23.4%)이며, 남성은 본인 직장(44.0%), 여성은 가족사별(35.7)로 뚜렷한 성별 격차를 드러냄. 특히, 본인 직장은 20~50대의 가장 큰 사유이며, 20~4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주요 사유로 응답함. 70대 이상은 가족사별이 61.1%로 가장 큰 사유임. 이러한 연령별 성별 1인가구 사유의 차이는 요구도의 차이와 함께 향후 생애 경로의 차이를 드러냄. 특히 직장과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한 1인 가구는 향후 가구 형태 및 거주지의 변화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경북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차이는 1인가구 지원에서도 주거와 건강, 돌봄, 사회적 고립, 사회적 불평등 등의 요구 정책의 차이가 필요함을 드러냄. 뿐만 아니라 도농 및 시군별 인구 구조의 차이에 여건에 따른 세밀한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즉 연령대별 지역별로 보다 세밀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발굴 필요성을 드러냄

○ 경상북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영역에 26개 세부사업 추진함. 하지만, 청년층과 노년층 대상 사업이 주를 이룸

-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2023년 기준으로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¹⁾인 경상북도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는 또 하나의 인구학적 중요 과제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는 2023년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 상반기에는 「경상북도 1인 가구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실태조사와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 8월 「경상북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2026년 1인가구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1인가구 정책은 2025년 1인가구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5개 영역에 11개 정책과제, 2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은 1인

1) 고위험 시군 7개(청도, 성주, 의성, 봉화, 영양, 영덕, 청송), 위험시군 10개(경주, 영천, 김천, 상주, 안동, 문경, 영주, 고령, 예천, 울진, 울릉)

가구가 포함되는 공통사업이 12개, 기존의 청년사업과 노인복지 사업을 연계한 청년 대상과 노년층 대상 사업이 각 7개, 중장년층 대상 사업이 1개로 나타남

- 현재의 1인 가구 정책과 지원 제도는 다양한 세대의 수요 반영에 한계성을 지니며,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접근성 등 도농 격차가 큰 경북의 특성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편임. 이에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각지대 없는 정책 발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청년층 및 노년층 중심의 1인가구 정책은 실제 경북의 1인가구 구조와도 연계되는 측면이 있음. 2024년 기준으로 고령화에 청년층의 유출과 결합해, 60세 이상 1인가구가 46.7%(전국 37.4%)이며,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26.7%(전국 35.2%)로 1인가구의 구성 또한 경북의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고질적인 인구 구조의 문제를 드러냄. 이에, 청년 정책과 연계된 1인가구 사업과 노년층의 복지와 연계된 1인가구 사업을 통합해 1인 가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계획을 수립함. 하지만, 배옥현 외(2024)의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층이 37.6%로 가장 큰 인구 집단이며, 노년층이 35.4%로 다음순이라는 점을 주목하면 세대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대상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령층 등 연령계층 뿐 아니라, 지역별 1인가구 규모와 인구 구성 중 1인가구의 비중 등 인구학적 요인과 시와 군이라는 거주지 현황도 1인가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이러한 여러 요인들은 1인가구 대상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주거 및 경제 여건, 일상 생활 등에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이에 경북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1인가구 정책이라는 방향성에서 기존 정책에서 주요 대상이 아니었던 중장년층과 도농 특성까지 고려한 경북 특화의 1인가구 대상 발굴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24년 본원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과 노인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1인가구 정책과 제도를 전생애주기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제도 등 경북 시군 격차를 고려한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제도를 발굴하고자 함. 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정책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경북 1인가구 정책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에 본연구는 1인가구 지원 제도 및 사업 전반에 대해 고찰해보고, 연령별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22개 시군 모두가 1인가구 대상 특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1인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북”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경북을 조성하고자 함

2. 선행연구

-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와 고립위험군 또는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등 정책 수립 연구, 주류 가구로 부상하고 있는 1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요인 분석과 같은 학술 연구가 있음

<표 I-1>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
기본계획 수립연구	<p>노경혜(202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허목화·유지영·조아라(2023),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강원 여성가족연구원</p> <p>배옥현·김명화(2024), 경상북도 1인가구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양정선(2025), 저출생 시대의 1인가구 정책방향 및 지원정책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한혜림(2025), 제2차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p>
대상맞춤형 연구	<p>배옥현(2022), 경북지역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박상미·배은석·김민수(2023), 울산광역시 고립위험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p> <p>나성은(2024), 서울시 1인가구 유형별 정책수요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오정아(2024),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실태 및 지원방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p>
학술 연구	<p>김정은, 박정윤, 서지원, 송혜림(2023).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 김포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3), 21~37</p> <p>권태연(2024), 1인가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생애주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6(1), 395~413</p> <p>서지원, 송혜림, 김정은, 박정윤(2024). 1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성 결정요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8(1), 13~25</p> <p>한혜림(2024),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예측요인 탐색 : 부산지역 1인가구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33(5), 643~654</p> <p>장정문정민재(2024),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42(1), 69~80</p>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 1인 가구의 행복 수준 및 생활 만족도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주거 및 식생활 등 일상 생활에 대한 문제임. 연령층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청년층은 주거 등 일상 생활의 안정성을, 중장년은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을, 노년층은 건강과 경제 활동 여부 등임

<표 I-2> 생애주기별 1인가구 행복수준 및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결과	주요 요인(생애주기별)
김포시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 연구 (김정은 외, 2023)	
·식생활, 주거, 자기돌봄 등 전 영역에서 세대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 ·청년기일수록, 1인가구 형성이 자발적일수록,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인지 및 유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²⁾	·청년층: 혼자 식사 즐기지만, 식재료 구매와 낭비 부담, 배달 음식 의존 큼, 주거는 수납공간부족 및 지인초대 적합성 등 공간 부족에 대한 인식 강함 ·장년층: 원가족과의 상호 작용 원활하지 않음 ·노년층: 균형잡힌 식사에 대한 선호 높음
1인가구 행복의 심리사회적 요인 연구 (권태연, 2024)	
·행복 수준은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낮아짐 ·모든 세대의 '우울' 예방과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필수적임	·행복수준의 공통요인은 생활수준 만족도, 미래 안정성 만족도, 우울, 사회적 지지이며, 세대별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음 ·청년층: 안전감 ·장년 및 노년층 : 타인신뢰, 사회 평등 인식, 건강, 스트레스
1인가구 생애주기별 건강성 결정요인 연구 (서지원 외, 2024)	
·전반적으로 성별(여성), 교육수준, 자발성, 차별경험이 건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청년층과 장년층: 주거 점유형태가 건강성에 중요 요인임 ·노년층: 취업 여부가 건강성에 주요 요인임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만족도 예측요인 탐색 (한혜림, 2024)	
·생애주기별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최우선 예측 요인을 파악·	·청년층: 식생활 수준, 신체 건강 ·장년층: 사회적 관계, 안전 인식, 우울. 사회적 관계가 낮아도 외로움이 낮으면 만족도 유지 ·노년층: 신체 건강, 불안, 외로움

- 김정은 외(2023)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주거 등 전영역에서 세대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은 식생활에서 식재료 부담과 배달음식 의존성, 주거 공간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으며, 장년층은 원가족과의 상호 작용 원활하지 않은

2) 1인가구에 대한 고정 관념이 나 편견,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공동체로의 통합과 유대감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실시 필요

문제, 노년층은 균형잡힌 식사 등의 문제를 드러냄. 또한 한혜림(2024)의 연구에서도 청년층은 식생활 수준, 장년층은 사회적 관계와 안전 인식, 외로움 등, 노년층은 건강과 불안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남

- 권태연(2024)의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은 노년기로 갈수록 낮아지며, 모든 세대에서 우울 예방과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필수적이며, 청년층은 안전감, 장년 및 노년은 타인의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 등이 행복 수준의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서지원 외(2024)의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은 주거 점유형태가, 노년층은 취업 여부가 건강성의 중요 요인으로 제시됨
- 행복수준, 생활만족도, 건강성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된 1인가구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주거 및 식생활 등 일상 영역의 안정성과 우울 및 고립감 등을 낮추는 사회적 지지망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며, 청년층은 식생활과 주거 안전성, 중장년층은 원가족과의 상호 작용 등 사회적 지지의 문제, 노년층은 건강과 경제 활동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남

○ 최근 지자체별 실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1인가구 관련 보고서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I-3> 1인가구의 연령별 애로점과 정책요구에 대한 정책연구 검토

연구방법	연령대별 차이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청장년 1인가구 1,000명 대상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FGI)	·청년층: 부동산 계약 등 독립생활 준비 ·장년층: 식사/청소 지원, 간병, 등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사람 적음, 스트레스와 고독사 위험이 타 세대보다 높음 ·노년층: 현재 집에서의 계속 거주(AIP) 욕구가 강함			
경기도 저출생 시대의 1인가구 정책방향 및 지원정책 연구				
·현장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 31개 시군 전문가 서면조사	·청년층: 주거비 부담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문제 뚜렷 ·장년 및 노년층: 주거 환경의 열악성과 의료·돌봄 인프라 부족			
제2차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1,500명, 전문가 델타 이조사 20명	·연령대별 1순위 응답			
		생활 불편	생활불안	요구 정책
	청년층	식사 해결	경제적 불안감	월세/전세 자금 지원
	중장년 노년층	응급상황 대처	노후 염려 임종 염려	임대주택 공급 확대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연구방법	연령대별 차이											
	→ 1인 가구 60% 이상이 공공형 주택·빈집 리모델링주택 거주 의사											
울산광역시 고립위험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중장년 534명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담	·중장년 1인가구의 상당수가 이혼, 사별, 가족 해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 1인가구 ·40~50대는 '외로움'과 '심리적 문제'를, 60대는 '경제적 불안감'과 '건강/응급상황'을 가장 힘든 점											
서울시 1인가구 유형별 정책수요 분석 및 정책과제												
·19~69세 서울시 거주 1인가구 1,835명 온라인 설문, 성별 연령 별 25명 대상 fgi, 전문가 자문	·연령대별 1인가구 주요 사유 및 어려움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1인가구의 주된 사유</th> <th>어려움</th> </tr> </thead> <tbody> <tr> <td>청년층</td> <td>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td> <td>삶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td> </tr> <tr> <td>중장년</td> <td>개인적 편익과 자유 이혼·사별</td> <td>여성:삶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남성:일상의 외로움</td> </tr> <tr> <td>노년층</td> <td>이혼·사별</td> <td>혼자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td> </tr> </tbody> </table>		1인가구의 주된 사유	어려움	청년층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삶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중장년	개인적 편익과 자유 이혼·사별	여성:삶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남성:일상의 외로움	노년층	이혼·사별
	1인가구의 주된 사유	어려움										
청년층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삶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중장년	개인적 편익과 자유 이혼·사별	여성:삶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남성:일상의 외로움										
노년층	이혼·사별	혼자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연령대별 정책요구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1인가구의 주된 사유</th> </tr> </thead> <tbody> <tr> <td>청년층</td> <td>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저렴한 공공주택공급과 주거 면적 개선 요구</td> </tr> <tr> <td>중장년</td> <td>건강관리 정책요구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시급 반찬 나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통한 일상지원</td> </tr> <tr> <td>노년층</td> <td>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 요구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및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td> </tr> </tbody> </table>		1인가구의 주된 사유	청년층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저렴한 공공주택공급과 주거 면적 개선 요구	중장년	건강관리 정책요구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시급 반찬 나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통한 일상지원	노년층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 요구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및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			
	1인가구의 주된 사유											
청년층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저렴한 공공주택공급과 주거 면적 개선 요구											
중장년	건강관리 정책요구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시급 반찬 나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통한 일상지원											
노년층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 요구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및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남 중장년 155명 대상 온라인 실태조사, 17명 대상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 조사	·중장년의 51.6%가 주거 임차 시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 ·'노후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불안'이 가장 높음											

- 울산과 충남은 중장년을 타케팅한 연구를 통해, 중장년 내의 연령별 차이와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비자발적 요인으로 1인가구가 되며 느끼는 노후와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특히, 남성 중장년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한 위험도가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됨
- 연령층별 정책적 요구를 살펴보면, 청년층은 주거 등 독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며, 중장년은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고립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지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노년층은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현재거주지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됨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①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경북 전역 즉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함. 설문조사는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실태 조사 및 통계 분석 또한 경북도를 대상으로 함. 통계조사와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도농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으로 거주지를 구분해 분석함

② 연구의 대상 범위

- 본 연구의 대상인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의 2에 따르면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결혼 상태와 연령 등과 무관함
- 1인가구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대상은 22개 가족센터로 한정함. 청년 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수행하는 1인가구 포함 사업이 있지만,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1인가구를 복지의 영역이 아닌 또하나의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과 도의 1인가구 사업 주요 수행 주체라는 점에서 가족센터로 대상을 한정함
- 경북 거주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요구도 조사는 2024년 본원에서 수행한 「경상북도 1인가구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 수립을 중심으로」(배옥현 외) 연구의 실태 조사 결과를 일부 추출 및 재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활용함. 2024년 본원 연구는 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경북도 1인가구의 최근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함
- 선행연구는 “1인가구”를 키워드로 한 최근 2022년 이후 연구 중 1인가구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정책 보고서와 1인 가구의 행복 수준 및 생활 만족도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학술연구를 대상으로 함. 학술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연령대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고찰하였으며, 정책 보고서에서도 1인가구 연령층별 정책적 수요와 함께 정책의 방향성을 고찰해 연구에 활용함

③ 연구의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경북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거주지역별 격차 없는 지원 방안 및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2024년 배옥현 외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태 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경북 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북 1인가구 사업의 주요 수행기관인 경북 시군 가족센터 대상(센터장 및 사업 담당자)으로 1인가구 사업 현황과 운영 실태, 애로점과 정책적 요구 등을 조사 분석해, 세대 맞춤형 1인가구 특화 사업과 지원 정책을 개선·발굴하는데 목적을 둠
- 먼저, 경북의 1인가구 인구 및 사회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경북 1인가구의 특성과 연령별, 성별, 거주지역별(시군) 차이를 파악함. 또한 배옥현 외(2024)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원자료 분석으로 경북 도민의 생활 실태를 주거 및 거주지, 경제활동, 일상 생활 실태, 영역별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함. 이를 통해 경북 1인가구의 현황과 생활 실태를 확인함. 마지막으로 중앙과 경북도 1인가구 정책 흐름 및 현황을 개관하고, 서울과 경기와 같이 1인가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봄
- 다음으로 1인가구 사업 수행 기관인 가족 센터 대상 1, 2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3년간의 1인가구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1인가구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과 애로점, 필요 정책 및 지원, 특화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함. 이를 통해 경북 시군 가족센터의 1인 가구 사업 역량을 파악하고, 운영 사업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운영 방향성을 도출함. 또한 1인 가구 사업 운영에 애로점과 필요한 지원 사항과 정책 등을 통해 정책적 요구도를 분석함. 이를 통해 경북의 지역 여건에 적합하며 1인가구의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제안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해 활용성 높은 정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함
- 본 연구는 정상 가족과 대비되는 1인가구의 개념을 탈피해 보편적 가구인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경북형 시군 특화 사업 방안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경북 거주 1인가구 모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법·정책자료, 통계자료 분석
 - 1인가구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1인가구 실태 및 현황 파악
 - 경북 1인가구의 특성 및 현황 관련 통계자료 수집 분석
 - 1인가구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 수집 분석
- 경상북도 1인가구 사업 현황 및 애로점과 정책적 정책 수요 조사
 - 조사대상 : 경북 1인가구(연령대별), 1인가구 대상 사업 운영 공무원 및 실무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서면 질문지 배포와 수합, 이를 기반으로 면담 조사

22개 시군 가족센터 1인가구 사업 담당자 및 센터장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1인가구 사업의 애로점 및 필요 정책 등 개방형 질문 포함



1차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면담 조사 실시: 우수 기관 대상
센터 운영 사업 구체적 확인 및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수요 확인

- 조사내용
 -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1인가구 생활의 애로점과 어려움, 주요 영역별로 필요한 지원과 제도 등
 -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및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 연구사업심의위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방향 도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의견의 정책화 과정에서 방향성과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체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으로 도출 정책의 활용성 제고

4. 연구의 절차

- 본 연구는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현행의 정책과 제도를 정리·분석하고,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현황 자료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실태를 실시함. 조사는 전문가 및 정책 실행자와 경북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FGI와 면담 조사를 병행 실시해 경북 1인가구의 정책 요구도를 파악함. 이후 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1인가구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단 계	주요 내용	
연구방향 설정	착수연구사업 심의위원회	▶ 연구방향, 연구방법 논의 ▶ 착수보고
구체화 단계	자료분석	▶ 선행연구 분석 ▶ 통계자료 등 현황 분석 ▶ 경북도 및 시군, 타지역 정책 분석
	조사 내용 구성	▶ 선행 연구 및 현황 기반 조사 내용 구성 ▶ 조사문항 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방안 도출단계	조사 실시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설문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면담 조사 실시
	중간보고	▶ 조사결과 분석
완료 단계	최종연구사업 심의위원회	▶ 연구결과 논의 및 시사점 도출, 정책제언 ▶ 최종보고 및 결과반영, 보고서 수정 및 보완 ▶ 보고서 발간 및 홍보

[그림 I-1] 연구의 절차

II.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1. 경북 1인 가구 현황
2. 경북 1인가구 실태
3.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제도
4. 소결

Ⅱ.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1. 경북 1인 가구 현황

1) 경북 1인가구 특성

□ 경북 1인가구 현황과 변화

-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 1인 가구 비중은 4.4%p 높으며, 경북은 기준 1인가구는 경북 1인가구 비중 38.9%로 전국 평균보다 2.8% 높음
 - 전국의 1인가구는 2010년 전체 일반가구의 27.3%였으나 2024년 36.1%이며, 2020년 대비 2024년 4.4%가 증가함
 - 경북의 1인가구는 2010년 28.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2024년 38.9%로 전국 평균보다 2.8% 높음

<표 Ⅱ-1> 전국 및 경상북도 1인가구 변화 추이(2010-2024)

(단위: 천가구, %)

구분		전체 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전국	2010	17,339	4,142	27.3
	2015	19,111	5,203	27.2
	2020	20,927	6,643	31.7
	2024	22,294	8,045	36.1
경북	2010	1,005	288	28.6
	2015	1,063	323	30.4
	2020	1,132	389	34.4
	2024	1,175	457	38.9

자료: 국가데이터처(2025),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2024년 기준 1인가구는 17개 시도 모두 가장 많은 가구이며, 경북은 1인 가구수와 지역 내 비중 모두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음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는 전국의 17개 시도 모두 1인 가구가 가장 많아 보편적인 가구 형태임을 드러냄.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775천명으로 가장 1인 가구가 많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순임
-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1인 가구수가 많은 경북은 1인 가구의 지역 내 비중 또한 서울, 대전, 강원, 충북에 이어 38.9%로 높게 나타남

<표 Ⅱ-2> 시·도별 1인가구 현황(2024)

(단위: 천가구, %)

	전체 가구(A)*	가구원수						1인가구 비율(B/A)	지역별 비중
		1인(B)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	22,294	8,045	6,476	4,202	2,839	603	130	36.1	100.0
서울	4,160	1,661	1,091	773	512	100	23	39.9	20.6
부산	1,471	548	445	270	168	33	65	37.3	6.8
대구	1,044	371	308	201	134	25	5	35.5	4.6
인천	1,268	412	372	263	177	36	7	32.5	5.1
광주	629	232	177	114	83	18	3	36.9	2.9
대전	659	262	183	115	79	17	3	39.8	3.3
울산	462	146	140	97	65	12	2	31.6	1.8
세종	159	52	40	32	27	6	1	32.7	0.7
경기	5,592	1,775	1,550	1,187	860	181	39	31.7	22.1
강원	703	277	227	112	67	16	4	39.4	3.4
충북	727	284	220	121	79	19	4	39.1	3.5
충남	965	368	297	160	108	26	6	38.1	4.6
전북	789	301	250	128	83	21	5	38.1	3.7
전남	799	301	266	126	79	21	5	37.7	3.7
경북	1,175	457	385	190	113	24	5	38.9	5.7
경남	1,416	502	441	262	169	35	7	35.5	6.2
제주	280	95	84	51	35	11	3	33.9	1.2

* 일반가구(①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가족과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1인가구, ④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 의 가구, ①~④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

자료: 국가데이터처(2025),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경북 1인가구 연령별 현황

<표 Ⅱ-3> 전국 및 경북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2024)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구성비	성별 1인가구				
			남성	구성비	여성	구성비	
전국	전체	8,044,948	100.0	4,025,509	100.0	4,019,439	100.0
	20세 미만	47,065	0.6	21,958	0.5	25,107	0.6
	20~29세	1,382,693	17.2	694,047	17.2	688,646	17.1
	30~39세	1,403,818	17.4	878,232	21.8	525,586	13.1
	40~49세	988,683	12.3	628,679	15.6	360,004	9.0
	50~59세	1,218,118	15.1	713,370	17.7	504,748	12.6
	60~69세	1,414,348	17.6	664,273	16.5	750,075	18.7
	70세 이상	1,590,223	19.8	424,950	10.6	1,165,273	29.0
경북	전체	457,153	100.0	229,931	100.0	227,222	100.0
	20세 미만	3,603	0.8	2,131	0.9	1,472	0.6
	20~29세	64,041	14.0	38,493	16.7	25,548	11.2
	30~39세	54,338	11.9	37,799	16.4	16,539	7.3
	40~49세	49,006	10.7	32,894	14.3	16,112	7.1
	50~59세	72,509	15.9	42,848	18.6	29,661	13.1
	60~69세	90,937	19.9	44,801	19.5	46,136	20.3
	70세 이상	122,719	26.8	30,965	13.5	91,754	40.4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 경북의 1인가구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고, 20대와 30대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며 생애주기별로는 40~69세의 1인가구 수가 가장 많음. 성별로는 전국에 비해 20대 여성 비중이 낮고, 60세 이상 여성 비중은 매우 높음
- 전국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60대 17.6%, 50대 15.1%, 30대 17.4%, 20대 17.2%, 40대 15.1% 순임. 경북은 70세 이상이 2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60대 19.9%, 50대 15.9%, 20대 14.0%, 30대 11.9%, 40대 10.7% 순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60세 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청년층(20~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낮게 나타남
- 경북의 1인 가구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39세 이하는 121,982가구이며, 70세 이

상은 122,719 가구, 40~69세는 212,452 가구로 증장년증에 속하는 1인 가구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전국에 비해 20대 여성 1인가구 비중이 11.2%로 낮고, 70세 이상 여성은 40.4%, 60대는 20.3%로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증고령층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고 청년 여성 1인가구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북 1인가구의 경제활동

<표 II-4> 경북 1인가구의 경제활동 유무(2020)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15세 이상)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일하였음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 휴직		
전체	388,783 (100.0)	215,785 (55.5)	199,802 (51.4)	11,336 (2.9)	4,647 (1.2)	172,998 (44.5)	
성별	남성	188,119 (100.0)	127,852 (68.0)	120,233 (63.9)	4,950 (2.6)	2,669 (1.4)	60,267 (32.0)
	여성	200,664 (100.0)	87,933 (43.8)	79,569 (39.7)	6,386 (3.2)	1,978 (1.0)	112,731 (56.2)
연령별	20세 미만	5,807 (100.0)	1,529 (26.3)	727 (12.5)	802 (13.8)	- (0.0)	4,278 (73.7)
	20대	59,930 (100.0)	36,742 (61.3)	30,759 (51.3)	5,256 (8.8)	727 (1.2)	23,188 (38.7)
	30대	46,001 (100.0)	39,761 (86.4)	37,917 (82.4)	938 (2.0)	906 (2.0)	6,240 (13.6)
	40대	44,667 (100.0)	36,842 (82.5)	35,042 (78.5)	792 (1.8)	1,008 (2.3)	7,825 (17.5)
	50대	62,868 (100.0)	46,318 (73.7)	44,006 (70.0)	1,214 (1.9)	1,098 (1.7)	16,550 (26.3)
	60대	68,983 (100.0)	34,709 (50.3)	32,876 (47.7)	1,158 (1.7)	675 (1.0)	34,274 (49.7)
	70세 이상	100,527 (100.0)	19,884 (19.8)	18,475 (18.4)	1,176 (1.2)	233 (0.2)	80,643 (80.2)

자료: 국가데이터처(2020), 「인구총조사」

- 경북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5%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4.2%p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임.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86.4%로 가장 높고,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남

- 경북 1인가구의 55.5%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68.0%, 여성의 43.8%가 일하였음을 응답해 남녀 격차를 드러냄. 특히, 주로 일하였음의 응답에서도 성별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1인가구 여성의 경제 활동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30대가 86.4%로 가장 높고, 40대(82.5%), 20대(61.3%), 50대(50.3%) 등의 순임

<표 II-5> 경북 1인가구의 직업별 현황(2020)

(단위: 가구, %)

	전체		남성		여성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관리자	1,894	(0.9)	1,531	(1.2)	363	(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317	(14.5)	17,381	(13.6)	13,936	(15.8)
사무 종사자	30,442	(14.1)	18,266	(14.3)	12,176	(13.8)
서비스 종사자	30,209	(14.0)	9,243	(7.2)	20,966	(23.8)
판매 종사자	15,892	(7.4)	7,964	(6.2)	7,928	(9.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133	(11.2)	14,847	(11.6)	9,286	(1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889	(8.3)	15,828	(12.4)	2,061	(2.3)
장치·기계조립 및 조립 종사자	36,438	(16.9)	29,737	(23.3)	6,701	(7.6)
단순노무 종사자	26,973	(12.5)	12,487	(9.8)	14,486	(16.5)
기타	598	(0.3)	568	(0.4)	30	(0.0)
합계*	215,785	(100)	127,852	(100)	87,933	(100)

*합계는 15세 이상의 취업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가데이터처(2020), 「인구총조사」

- 경북의 취업 1인가구의 직업은 장치·기계조작/조립직이 1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순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장치·기계조작/조립직이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사무종사이며, 여성은 서비스직이 23.8%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단순 노무 종사로 나타남

□ 경북 1인가구의 주거와 생활

<표 II-6> 경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사유(2020)

(단위: 가구, %)

구분	1인가구	본인 직장	본인학업	본인 독립생활	본인 건강	가족문제	가족사별	기타	
전체	388,791 (100.0)	119,762 (30.8)	22,931 (5.9)	72,001 (18.5)	6,683 (1.7)	74,291 (19.1)	91,126 (23.4)	1,997 (0.5)	
성별	남성	188,127 (100.0)	82,697 (44.0)	12,836 (6.8)	41,584 (22.1)	3,907 (2.1)	26,280 (14.0)	19,524 (10.4)	1,299 (0.7)
	여성	200,664 (100.0)	37,065 (18.5)	10,095 (5.0)	30,417 (15.2)	2,776 (1.4)	48,011 (23.9)	71,602 (35.7)	698 (0.3)
연령별	20세 미만	5,815 (100.0)	904 (15.5)	4,685 (80.6)	- (0.0)	- (0.0)	202 (3.5)	24 (0.4)	- (0.0)
	20대	59,930 (100.0)	29,104 (48.6)	17,866 (29.8)	9,620 (16.1)	- (0.0)	2,533 (4.2)	652 (1.1)	155 (0.3)
	30대	46,001 (100.0)	30,119 (65.5)	308 (0.7)	11,865 (25.8)	233 (0.5)	2,402 (5.2)	826 (1.8)	248 (0.5)
	40대	44,667 (100.0)	23,068 (51.6)	67 (0.1)	13,674 (30.6)	614 (1.4)	4,777 (10.7)	2,036 (4.6)	431 (1.0)
	50대	62,868 (100.0)	22,930 (36.5)	5 (0.0)	16,405 (26.1)	1,665 (2.6)	14,965 (23.8)	6,275 (10.0)	623 (1.0)
	60대	68,983 (100.0)	11,393 (16.5)	- (0.0)	15,232 (22.1)	2,148 (3.1)	19,946 (28.9)	19,895 (28.8)	369 (0.5)
	70세 이상	100,527 (100.0)	2,244 (2.2)	- (0.0)	5,205 (5.2)	2,023 (2.0)	29,466 (29.3)	61,418 (61.1)	171 (0.2)

주 : 가족문제는 '구체적으로 가족이 학업, 취업, 혼인, 건강 등으로 타지에 거주하게 되어서'임
 자료: 국가데이터처(2020), 「인구총조사」

○ 경북 1인가구의 사유는 남성의 경우 '본인 직장'과 '독립 생활'의 응답 비중이 높고, 여성은 '가족 사별'과 '가족 문제'의 응답이 높음.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는 본인 학업 비중이 높으며, 20~40대는 본인 직장, 60대 이상은 사별의 응답이 가장 높음

- 경북 1인가구의 사유는 본인 직장 때문이 30.8%로 가장 높고, 다음순으로 가족 사별(23.4%), 본인 독립생활(18.5%), 가족문제(19.1%) 등임. 성별로 보면, 남성은 본인 직장과 본인 독립생활이, 여성은 가족 사별과 가족문제의 응답이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은 본인 학업이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20대는 본인 직장 48.6%, 본인 학업 29.8%이며, 30~50대까지는 본인 직장과 본인 독립생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60대는 가족문제와 가족 사별, 70세 이상은 가족 사

별과 가족 문제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남. 사유별로는 50대 이하의 전 연령에서 본인 직장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며, 20세 미만과 20대는 본인 학업, 30~50대는 본인 독립 생활, 60대 이상은 사별과 가족문제의 응답이 매우 높음

2) 시군별 1인가구 현황

<표 Ⅱ-7> 경북 시군의 1인가구 현황(2024)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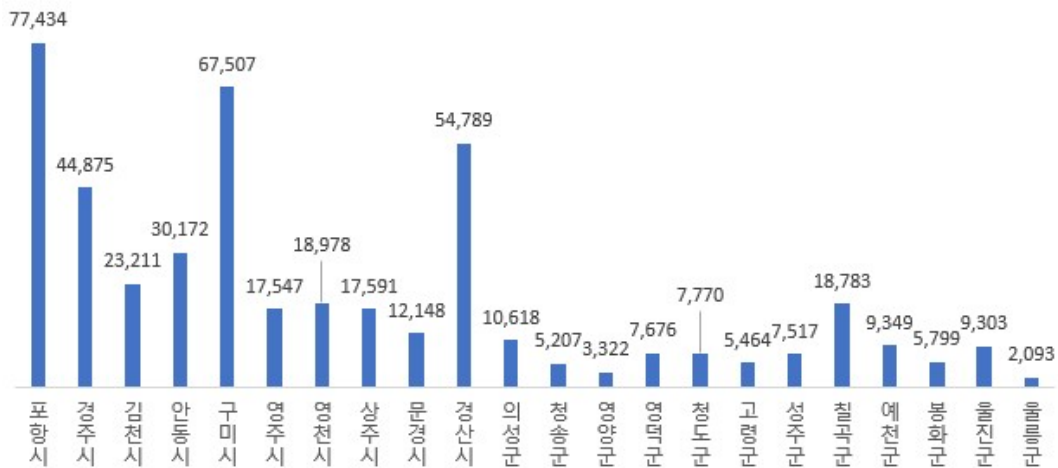
행정 구역	전체			남성		여성		1인가구 성비 (C/D*100)
	일반가구 (A)	1인가구 (B)	비율 (B/A)	1인가구 (C)	비율 (C/A)	1인가구 (D)	비율 (D/A)	
경상북도	1,174,597	457,153	38.9	229,931	19.6	227,222	19.3	101.2
포항시	219,703	77,434	35.2	40,095	18.2	37,339	17.0	107.4
경주시	115,464	44,875	38.9	21,824	18.9	23,051	20.0	94.7
김천시	61,623	23,211	37.7	11,219	18.2	11,992	19.5	93.6
안동시	72,810	30,172	41.4	14,276	19.6	15,896	21.8	89.8
구미시	180,308	67,507	37.4	38,505	21.4	29,002	16.1	132.8
영주시	46,210	17,547	38.0	8,100	17.5	9,447	20.4	85.7
영천시	46,469	18,978	40.8	9,491	20.4	9,487	20.4	100.0
상주시	43,835	17,591	40.1	7,939	18.1	9,652	22.0	82.3
문경시	31,172	12,148	39.0	5,221	16.7	6,927	22.2	75.4
경산시	129,430	54,789	42.3	28,370	21.9	26,419	20.4	107.4
의성군	24,419	10,618	43.5	4,646	19.0	5,972	24.5	77.8
청송군	11,965	5,207	43.5	2,381	19.9	2,826	23.6	84.3
영양군	7,698	3,322	43.2	1,485	19.3	1,837	23.9	80.8
영덕군	16,834	7,676	45.6	3,078	18.3	4,598	27.3	66.9
청도군	19,368	7,770	40.1	3,286	17.0	4,484	23.2	73.3
고령군	14,069	5,464	38.8	2,634	18.7	2,830	20.1	93.1
성주군	19,015	7,517	39.5	3,899	20.5	3,618	19.0	107.8
칠곡군	48,695	18,783	38.6	10,732	22.0	8,051	16.5	133.3
예천군	25,009	9,349	37.4	4,168	16.7	5,181	20.7	80.4
봉화군	14,081	5,799	41.2	2,795	19.8	3,004	21.3	93.0
울진군	21,992	9,303	42.3	4,478	20.4	4,825	21.9	92.8
울릉군	4,428	2,093	47.3	1,309	29.6	784	17.7	167.0

성비: 남자 100명당 여자수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 경북 시군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1인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시이나 전체가구 중 35.2%로 경북 평균보다 낮음. 반면 군지역은 1인 가구수는 적으나 12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1인 가구 40% 이상으로 나타남. 포항, 구미, 경산, 성주, 칠곡, 울릉 등 산업단지와 어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남성 1인가구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며, 농업 기반의 군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는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지역별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II-1]의 시군별 1인가구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 내 시군별 1인 가구수의 격차는 큼. 1인가구수가 많은 지역은 포항이 77,434가구로 1순위이며, 다음순으로 구미, 경산, 안동, 경주 등 인구 규모가 큰 시지역임. 인구 규모가 작은 군지역은 전반적으로 1인가구 수가 적으나, 칠곡군은 18,783명으로 군지역 중 가장 1인가구 수가 많음.

(단위: 가구)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그림 II-1] 시군별 1인가구 현황

- 하지만, <표 II-7>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군 내 1인가구의 비중으로 보면, 포항시가 35.2%로 가장 낮고, 울릉군이 47.3%, 영덕군이 45.6%로 가장 높음. 경북 내 22개 시군 중 1인가구가 40% 이상인 시군은 경산·안동·상주·영천 등 4개시와 고령·성주·칠곡·예천을 제외한 8개 군으로 전반적으로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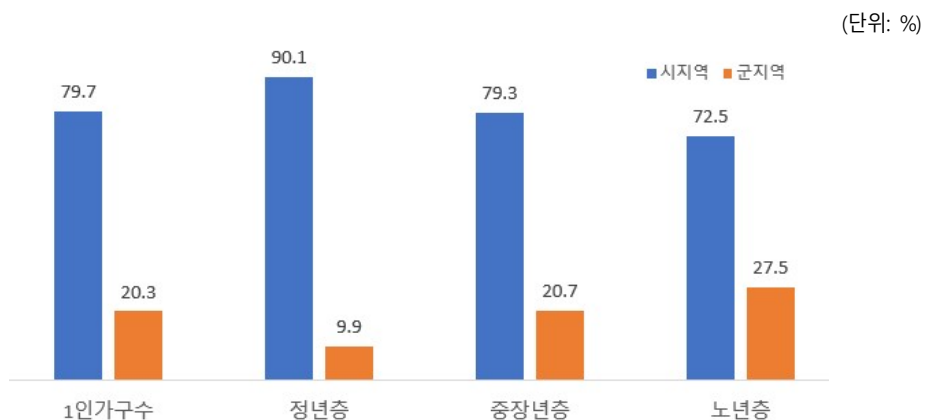
- 경북의 시군별 1인가구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큰 시군은 포항·구마·경산 등 3개 시와 대구와 인접한 성주·칠곡·울릉 등 3개 시임.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이 큰 5개 시군은 지역내에 산업단지와 어업 등이 발달해 있는 지역임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그림 Ⅱ-2] 시군별 1인가구 성비 현황

- 경북의 1인가구 중 10개 시 거주 인구는 전체의 79.7%이나 연령층별로는 차이를 보임. 청년층은 90.1%가 10개 시지역에 거주하며, 중장년층은 79.3%, 노년층은 72.5% 거주하고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그림 Ⅱ-3] 경북 연령층별 1인가구의 도농별 거주 구분

<표 II-8> 경북 시·군 연령 계층별 1인가구 현황(2024)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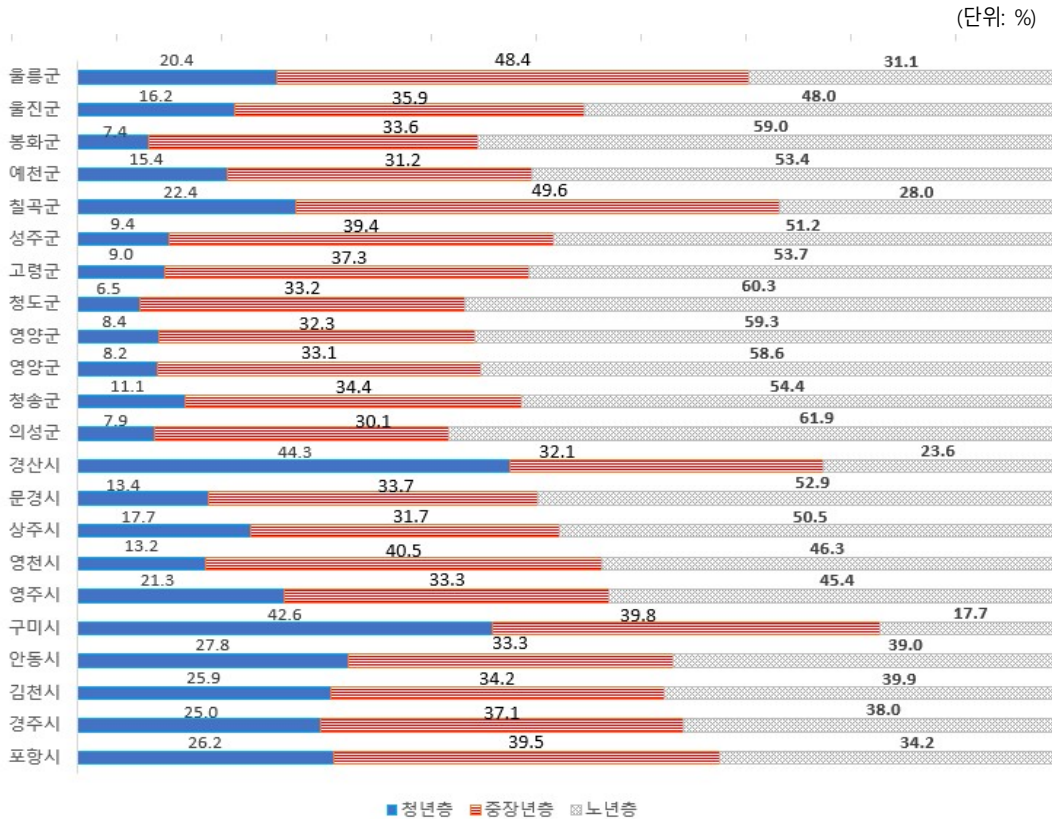
행정 구역	1인 가구수	연령 계층별 1인가구수			연령 3계층별 1인가구 비율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경상북도	457,153	121,970	167,549	167,622	26.7	36.7	36.7
포항시	77,434	20,324	30,615	26,495	26.2	39.5	34.2
경주시	44,875	11,216	16,628	17,031	25.0	37.1	38.0
김천시	23,211	6,019	7,937	9,255	25.9	34.2	39.9
안동시	30,172	8,373	10,033	11,766	27.8	33.3	39.0
구미시	67,507	28,737	26,844	11,926	42.6	39.8	17.7
영주시	17,547	3,735	5,838	7,974	21.3	33.3	45.4
영천시	18,978	2,505	7,693	8,780	13.2	40.5	46.3
상주시	17,591	3,121	5,582	8,888	17.7	31.7	50.5
문경시	12,148	1,632	4,092	6,424	13.4	33.7	52.9
경산시	54,789	24,262	17,593	12,934	44.3	32.1	23.6
의성군	10,618	842	3,196	6,576	7.9	30.1	61.9
청송군	5,207	579	1,793	2,835	11.1	34.4	54.4
영양군	3,322	273	1,101	1,946	8.2	33.1	58.6
영덕군	7,676	648	2,478	4,550	8.4	32.3	59.3
청도군	7,770	502	2,580	4,683	6.5	33.2	60.3
고령군	5,464	493	2,039	2,932	9.0	37.3	53.7
성주군	7,517	705	2,964	3,848	9.4	39.4	51.2
칠곡군	18,783	4,207	9,323	5,253	22.4	49.6	28.0
예천군	9,349	1,437	2,920	4,992	15.4	31.2	53.4
봉화군	5,799	429	1,949	3,421	7.4	33.6	59.0
울진군	9,303	1,504	3,337	4,462	16.2	35.9	48.0
울릉군	2,093	427	1,014	651	20.4	48.4	31.1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 경북 시군별 연령층별 인구 현황은 인구 규모와 비례하고 있어, 청년층은 구미와 경산, 포항 세지역이 가장 많고, 중장년층도 포항, 구미, 경산 순으로 가장 많으며, 노년층은 포항, 경주, 경산순임. 또한 상위 3 지역의 경북 내 비중을 보면, 청년층은 60.1%, 중장년층은 44.8%, 노년층은 33.7%로 청년 1인가구의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집중률을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음
 - <표 II-8>의 시군 연령계층별 1인가구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층 1인가구는 구미가 28,73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산 24,262명, 포항 20,324명 등 세 지역의 청년층 1인가구가 경북 전체의 60.1%임. 중장년층 1인가구도 포항 30,6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미가 26,844명, 경산 17,593명으로 경북 전체 중장년 1인가구의 44.8%이며, 노년층은 포항 26,49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주가 17,031명, 경산 12,934명으로 경북 전체 노년 1인가구의 33.7%임. 1인가구도 인구 규모에 비례해 거주하고 있으나, 연령층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순으로 도시 집중률이 높음
 - 군지역 중 청년 1인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칠곡군(4,207명)이며 다음 순으로는 울진군(1,504명)과 예천군(1,437명)임. 중장년층 1인가구수도 칠곡군(9,323명)이 가장 많고, 다음순으로 울진군(3,337명)과 의성군(3,196명)임
- 경북 시군별 연령층별 1인 가구 비중은 청년층은 최대 44.3%(경산)에서 최소 6.5%(청도)이며 노년층도 최대 60.3%(청도)에서 17.7%(구미)로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는 반면 중장년층은 49.6%(칠곡)에서 30.1%(의성)로 22개 시군 모두 30% 이상의 거주를 나타냄
 -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내 1인가구 중 연령층별 비중을 보면, 청년층은 경산이 44.3%로 가장 높고 청도군이 6.5%로 가장 낮음. 또한 청년층 1인가구 비중이 20% 이상인 시군은 구미(42.6%), 안동(27.8%), 포항(26.2%), 김천(25.9%), 경주(25.0%), 칠곡(22.4%), 영주(21.3%), 울릉(20.4%)으로 이중 칠곡과 울릉 2개가 군지역임
 - 중장년층은 칠곡이 49.6%로 가장 높고 의성군이 30.1%로 가장 낮아 격차가 크지 않으며, 노년층은 청도가 60.3%로 가장 높고 구미가 17.7%로 가장 낮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그 외 노년층 1인가구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의성(61.9%), 영덕(59.3%), 봉화(59.0%), 청송(58.6%), 영양(58.6%), 고령(53.7%), 예천(53.4%), 문경(52.9%), 성주(51.2%), 상주(50.5%)로 12개 군지역 중 칠곡과 울릉을 제외한 10개 군 모두 노년층 1인가구가 50% 이상임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그림 II-4] 연령층별 시군 1인가구 구성비

- 경북 시군별 성비를 살펴보면, 청년층 성비는 최대 295.4(울릉)~131.4(영양)이며, 중장년층 성비는 최대 282.6(울릉)~133.5(경산), 노년층은 최대 60.7(성주)~36.1(영덕)으로 청년층과 장년층의 남초현상과 노년층의 여초가 뚜렷함
- <표 II-9>의 시군별 청년층 1인가구의 성비는 울릉군이 295.4로 가장 높고, 다음순으로는 청송군이 240.6, 포항시가 224.2이며, 영양이 131.4로 가장 낮아 22개 시군 모두에서 남성 1인가구가 여성에 비해 많음. 또 여성에 비해 남성이 2배 이상 많은 성비 200 이상은 성주(219.0), 고령(217.4), 칠곡(217.0), 울진

(212.1), 영천(204.0) 등임

- 중장년층 1인가구의 성비는 울릉군이 282.6으로 가장 높고, 다음순으로는 봉화군이 228.1, 영양군이 214.6이며, 경산시가 133.5로 가장 낮음. 중장년층은 성비 200 이상이 3개 지역으로 청년층에 비해 남녀격차가 크지는 않으나, 모든 시군에서 남성 1인가구가 여성에 비해 많음
- 노년층 1인가구의 성비는 성주군이 60.7로 가장 높고, 영덕군이 36.1로 가장 낮아 노년층의 여성화 현상을 뚜렷히 드러냄

<표 Ⅱ-9> 경북 시군의 연령 계층별 1인가구 성비 현황(2024)

(단위: 가구, %)

행정 구역	남성			여성			성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포항시	14,055	17,661	8,379	6,269	12,954	18,116	224.2	136.3	46.3
경주시	7,024	9,679	5,121	4,192	6,949	11,910	167.6	139.3	43.0
김천시	3,829	4,789	2,601	2,190	3,148	6,654	174.8	152.1	39.1
안동시	5,013	5,798	3,465	3,360	4,235	8,301	149.2	136.9	41.7
구미시	19,143	15,687	3,675	9,594	11,157	8,251	199.5	140.6	44.5
영주시	2,314	3,489	2,297	1,421	2,349	5,677	162.8	148.5	40.5
영천시	1,681	4,784	3,026	824	2,909	5,754	204.0	164.5	52.6
상주시	1,981	3,453	2,505	1,140	2,129	6,383	173.8	162.2	39.2
문경시	962	2,439	1,820	670	1,653	4,604	143.6	147.5	39.5
경산시	14,465	10,057	3,848	9,797	7,536	9,086	147.6	133.5	42.4
의성군	509	2,080	2,053	333	1,116	4,523	152.9	186.4	45.4
청송군	409	1,107	865	170	686	1,970	240.6	161.4	43.9
영양군	155	751	579	118	350	1,367	131.4	214.6	42.4
영덕군	401	1,469	1,208	247	1,009	3,342	162.3	145.6	36.1
청도군	300	1,502	1,482	202	1,078	3,201	148.5	139.3	46.3
고령군	337	1,302	995	155	737	1,937	217.4	176.7	51.4
성주군	484	1,961	1,454	221	1,003	2,394	219.0	195.5	60.7
칠곡군	2,880	6,011	1,841	1,327	3,312	3,412	217.0	181.5	54.0
예천군	869	1,775	1,524	568	1,145	3,468	153.0	155.0	43.9
봉화군	267	1,355	1,173	162	594	2,248	164.8	228.1	52.2
울진군	1,020	2,142	1,316	481	1,195	3,146	212.1	179.2	41.8
울릉군	319	749	241	108	265	410	295.4	282.6	58.8

자료: 국가데이터처(2024), 「인구총조사」

3) 1인가구의 인구 구조를 통해 본 경북 시군 유형

- 경북 22개 시군의 1인가구의 성비와 연령층별 비중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연령층별, 성비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표 II-10> 경북 시군별 1인가구의 인구 구성 특성(2024)

행정 구역	1인가구 비중	1인가구 성비	연령층별 비중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경상북도	38.9	101.2	26.7	36.7	36.7
구미시	37.4	132.8	42.6	39.8	17.7
경산시	42.3	107.4	44.3	32.1	23.6
포항시	35.2	107.4	26.2	39.5	34.2
영천시	40.8	100.0	13.2	40.5	46.3
칠곡군	38.6	133.3	22.4	49.6	28.0
울릉군	47.3	167.0	20.4	48.4	31.1
안동시	41.4	89.8	27.8	33.3	39.0
김천시	37.7	93.6	25.9	34.2	39.9
경주시	38.9	94.7	25.0	37.1	38.0
영주시	38.0	85.7	21.3	33.3	45.4
상주시	40.1	82.3	17.7	31.7	50.5
문경시	39.0	75.4	13.4	33.7	52.9
의성군	43.5	77.8	7.9	30.1	61.9
청송군	43.5	84.3	11.1	34.4	54.4
영양군	43.2	80.8	8.2	33.1	58.6
영덕군	45.6	66.9	8.4	32.3	59.3
청도군	40.1	73.3	6.5	33.2	60.3
고령군	38.8	93.1	9.0	37.3	53.7
성주군	39.5	107.8	9.4	39.4	51.2
예천군	37.4	80.4	15.4	31.2	53.4
봉화군	41.2	93.0	7.4	33.6	59.0
울진군	42.3	92.8	16.2	35.9	48.0

자료: <표 II-7>과 <표 II-8>의 내용 일부 발췌해 구성함

청년 남성 집중 청년 남성 42%↑ 성비 107↑ 구미, 경산	중장년 남성 집중 중장년남성 39.5%↑ 성비 100↑ 포항, 칠곡, 울릉, 영천	균형 고른 연령분포 성비 90 내외 안동, 김천, 경주	고령 여성 집중 높은 노년층 비중 낮은 성비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	---	--	---

[그림 Ⅱ-5] 경북 1인가구 시군별 거주 유형

- 경북 22개 시군의 1인가구 거주 특성을 보면, 성비와 연령층별 비중을 통해 청년 남성 집중, 중장년 남성 집중, 균형, 고령 여성집중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표 Ⅱ-10>을 기반으로 성비를 통한 성별 집중도와 연령별 집중도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청년남성 집중 지역은 청년 1인가구 비율이 40% 이상으로 경북 평균 (26.7%)을 크게 상회하고, 성비도 107이상으로 남성 1인가구가 많은 구미와 경산과 같은 대학 및 산업 도시에서 나타남
 - 다음으로 중장년남성 집중지역은 중장년 인구 비중이 40% 내외로 높으며, 성비는 100 이상으로 포항과 칠곡과 같은 제조업 및 물류 산업지역과 울릉 및 영천과 같은 이주 노동자 및 남성 단신 부임 지역 등 산업 구조와 연계된 지역에서 나타남
 - 또한 균형 지역은 성비는 90내외이며 전 연령층이 비교적 고르게 거주하고 있는 안동, 김천, 경주 등의 지역 거점 시지역에서 나타남
 - 그 외 고령 여성집중 지역은 성비 90 이하에 노년층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대부분의 군지역과 안동을 제외한 북부권의 시지역에서 주로 나타남. 하지만, 고령 여성 집중 지역에 속한 시군 중 성비는 낮으나 비교적 고른 연령 분포를 보이는 영주시는 균형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성주군이나 울진군과 같이 비교적 중장년층 비중이 큰 군지역은 대구 인접의 산업 단지 이전 또는 원전과 같은 지역 산업의 영향으로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넓은 지역 면적과 적은 1인가구 규모 등이 제한성을 지니는 지역이기도 함

2. 경북 1인가구 실태

- 본 절은 2024년 발간된 「경상북도 1인가구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 수립을 중심으로」(배옥현)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구성함. 배옥현 연구의 실태 조사 일부를 추출해 발췌 및 원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경북 1인가구 실태와 정책 수요를 연령대별, 거주지별, 연령별 거주지(시/군) 교차분석을 통해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이에 2024년 조사 결과 분석과 설문지 등을 통해 주거 및 거주지 실태, 경제활동 실태, 일상 생활 실태 및 가치관, 영역별 정책 요구도로 분류해 주거와 경제활동, 일상 생활 등 3개 영역의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함. 또한 2024년 연구 기준으로 분류된 6개 영역(주거 안정 정책, 안전 정책, 경제/일자리 정책, 건강/돌봄 지원 정책, 여가/사회적 관계망 정책, 제도/인식 정책)의 정책 요구도도 연령대별, 거주지별로 재분석함. 2024년의 연구는 현재의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임.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령대와 거주지, 거주지별, 연령별 거주지(시/군) 교차분석 등을 통해 경북 1인가구의 세분화된 요구를 파악해 그 의미성을 파악하고자 함

<표 Ⅱ-11> 거주지별 연령별 조사자 현황

구 분	전체		사례수			비율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전 체	456	100.0	150	153	153	100.0	100.0	100.0
시지역	354	77.6	136	125	93	77.6	90.7	81.7
군지역	102	22.4	14	28	60	22.4	9.3	18.3

- 2024년 실태조사의 설문 대상자는 총 456명으로 여성은 238명(52.2%), 남성은 218명(47.8%)이며, 연령대는 청년층(20~39세)이 32.9%, 중장년층(40~64세)이 32.9, 노년층(65세 이상)이 32.9%로 고르게 표집하였으며, 거주지는 시지역(77.6%)이 군지역(22.4%)로 실제 1인가구의 시군 분포와 유사하게 표집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대와 거주지 뿐 아니라 추출해 연령별 거주지(시/군)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군지역은 총 사례수가 102명에 불과하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14명, 중장년층 28명, 노년층 60명에 불과함. 때문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와 군의 연령대별 격차를 파악하기 어려워 연령대와 거주지만으로 비교 분석함

1) 주거 및 거주지 실태

가. 성별·연령별 실태

○ 거처 종류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와 40-64세 모두 아파트(54.0%, 57.5%)> 기타(34.1%, 24.3%)>단독주택(12.0%, 18.3%) 순으로 나타나며, 65세 이상은 단독주택(76.5%)>아파트(12.5%)>기타(11.2%)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단독(71.6%)>아파트(16.7%)이며, 시는 아파트(48.4%)>기타(26.2%) 순임. 점유형태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와 40-64세 모두 자가(37.3%, 62.7%)>월세(35.3%, 19.0%)순으로 나타나며, 65세 이상은 자가(77.1%)>월세(17.0%)순이며, 거주지별로는 군은 자가(84.3%)>전세(9.8%)이며, 시는 자가(52.0%)>월세(29.1%)순임.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의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고, 노년층은 단독 비율이 높으며, 청년층은 타 연령에 비해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음.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 비중이 높음. 거주지별로는 군은 단독 비중이 높고 자가 비중도 시에 비해 32.3%p 높음

<표 Ⅱ-12>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단위: %)

구분	계	거처종류			점유형태				
		단독	아파트	기타*	월세**	자가	전세	기타** *	
합계	100.0	35.7	41.3	22.9	23.7	59.2	9.2	8.0	
연령대	39세 이하	100.0	12.0	54.0	34.1	35.3	37.3	16.7	10.7
	40-64세	100.0	18.3	57.5	24.3	19.0	62.7	8.5	9.8
	65세 이상	100.0	76.5	12.5	11.2	17.0	77.1	2.6	3.3
거주지	시	100.0	25.4	48.4	26.2	29.1	52.0	9.0	10.0
	군	100.0	71.6	16.7	11.8	4.9	84.3	9.8	1.0

* 다세대(빌라)+원룸+오피스텔+다가구주택+기타

**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공공임대주택 + 무상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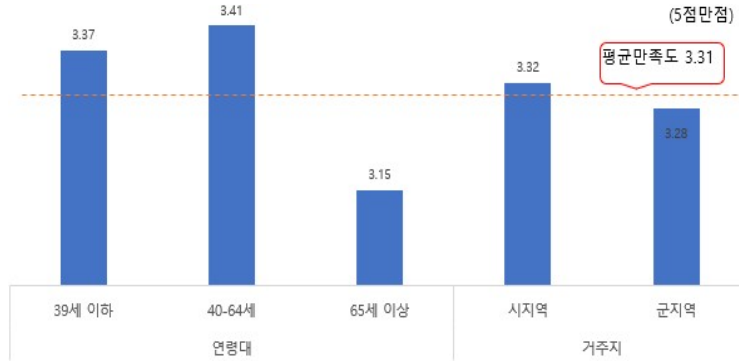
- 거주지 선택시 중요 요소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직장·학교 인접(39.3%)>거주 경험/주거비용 순으로 나타나며, 40-64세는 직장·학교 인접(27.5%)>주거비용(20.3%)>거주 경험(15.7%) 순, 65세 이상은 거주 경험(37.9%)>가족·지인 인접(15.0%)>여가·의료시설 접근성(13.7%)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거주 경험(30.4%)>여가·의료시설 접근성(15.7%)>가족·지인 인접(13.7%)이며, 시는 직장·학교 인접(27.7%)>거주 경험(20.9%)>주거비용(16.9%) 순임. 전반적으로 청년층과 시거주자는 직장을, 노년층과 군지역은 익숙한 거주 경험과 의료 시설을 주된 거주지 선택 요소임

<표 II-13> 거주지 선택 시 중요 요소(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	23.0	15.3	15.7	37.9	20.9	30.4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23.9	39.3	27.5	5.2	27.7	10.8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운 곳	10.5	8.7	7.8	15.0	9.6	13.7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15.6	15.3	20.3	11.1	16.9	10.8
여가 및 교육, 의료 시설 접근성	6.6	4.0	2.0	13.7	4.0	15.7
교통 편리성	5.0	5.3	4.6	5.2	4.8	5.9
주택상태가 좋은 곳	8.1	5.3	14.4	4.6	8.5	6.9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	1.3	2.7	1.3		1.7	
동네 환경이 쾌적한 곳	5.5	3.3	6.5	6.5	5.9	3.9
투자가치	0.2			0.7		1.0
거주 가능 기간	0.2	0.7				1.0

- 연령별 거주 주택 만족도는 연령별로는 40-64세(3.41점)>39세 이하(3.37점)>65세 이상(3.15점) 순으로 나타나며, 거주지별로는 시지역(3.32점)>군지역(3.28점) 순임. 노년층과 군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낮음



[그림 Ⅱ-6] 연령별 성별 거주 주택 만족도

- 거주지 선택시 중요 요소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열악한 주거 시설(46.7%)>주거 비용 부담(26.7%)>교통 불편(20.0%) 순이며, 40-64세는 열악한 주거 시설(42.9%)>주거 비용 부담(21.4%)>문화·여가 시설 부족(14.3%) 순, 65세 이상은 열악한 주거 시설(61.5%)>주거 비용 부담(23.1%)>교통 불편(7.7%)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열악한 주거 시설(53.8%)>교통 불편/주거 비용 부담(각 15.4%)이며, 시는 열악한 주거 시설(52.4%)>주거 비용 부담(26.2%)>교통 불편(9.5%) 순임. 연령과 거주지를 불문하고 열악한 주거 시설 개선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노년층과 함께 청년층도 교통 불편에 대한 응답이 높아 상대적 교통 약자임을 드러냄

<표 Ⅱ-14> 주거환경에서 개선을 바라는 점(1순위)³⁾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10.9	20.0	7.1	7.7	9.5	15.4
주거 비용 부담	23.6	26.7	21.4	23.1	26.2	15.4
열악한 주거 시설	52.7	46.7	42.9	61.5	52.4	53.8
불편한 주변 환경	1.8		7.1			7.7
편의시설 부족	5.5	6.7	7.1	3.8	7.1	
문화, 여가, 스포츠 시설 부족	5.5		14.3	3.8	4.8	7.7

3) 조사 응답자는 55명으로 39세 이하가 15명, 40~64세가 14명, 65세 이상이 26명이며, 시 거주자가 42명, 군거주자가 13명임

나. 거주지별 연령별 실태

○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연령대·거주지(시/군)로 교차 분석해 보면,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55.8%가 아파트에 거주하나, 군거주자는 42.9%가 단독에 거주하며, 40~64세는 시군 모두 아파트 거주자가 많으나 시거주자가 17.9%p 더 높게 나타나며, 65세 이상도 모두 단독 거주 비율이 높으나 군 거주자 전원이 단독 거주로 주택 유형의 차이가 뚜렷함. 또 점유형태로는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월세(37.5%)>자가(36.0%) 순이나 군거주자는 자가(50%)>전세(35.7%)이며, 40~64세는 시군 모두 자가가 많으나 군거주자가 10.6%p 더 높게 나타나며, 65세 이상도 모두 단독 거주 비율이 높으나 군 거주자가 34.9%p 더 높음. 이는 군의 주거 안정성이 더 높다는 의미보다는 경북 시군간의 주거 종류의 차이와 도농간 주거 여건 격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II-15>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단위: %)

구분	계	거처종류			점유형태				
		단독	아파트	기타*	월세**	자가	전세	기타***	
합계	100.0	35.7	41.3	22.9	23.7	59.2	9.2	8.0	
39세 이하	시	100.0	8.8	55.8	35.3	37.5	36.0	14.7	11.8
	군	100.0	42.9	35.7	21.4	14.3	50.0	35.7	-
40~64세	시	100.0	16.8	60.8	22.4	20.8	60.8	7.2	11.2
	군	100.0	25.0	42.9	32.2	10.7	71.4	14.3	3.6
65세 이상	시	100.0	61.3	20.5	18.3	27.9	63.4	3.2	5.5
	군	100.0	100.0	0.0	0	-	98.3	1.7	-

* 다세대(빌라)+원룸·오피스텔+다가구주택+기타

**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공공임대주택 + 무상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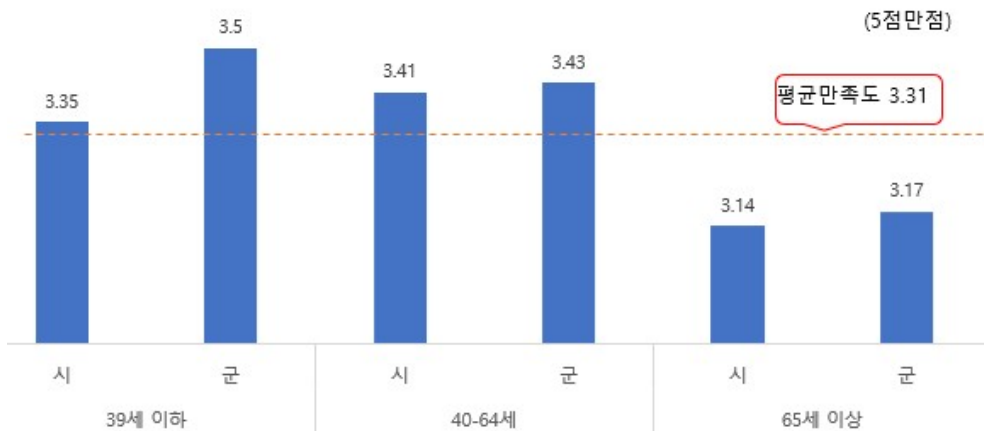
○ 거주지 선택 시 중요요소를 보면,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직장·학교(40.4%)>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16.2%)>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14.0%) 순이나 군거주자는 직장·학교/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28.6%)>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운 곳(14.3%) 순이며, 40~64세는 시는 직장·학교(40.4%)>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16.2%)>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14.0%)이며, 군지역은 직장·학교(21.4%)>주거비

용 부담이 적은 곳(17.9%/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17.9%)임. 65세 이상은 시는 거주 경험(38.7%)>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운 곳(16.1%)>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12.9%)이며, 군은 거주 경험(36.7%)>여가 및 교육, 의료 시설 접근성(21.7%)>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운 곳(13.3%) 순임. 군지역 거주 노년층은 의료 시설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큼

<표 Ⅱ-16> 거주지 선택 시 중요 요소(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	23.0	14.0	28.6	15.2	17.9	38.7	36.7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23.9	40.4	28.6	28.8	21.4	7.5	1.7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운 곳	10.5	8.1	14.3	6.4	14.3	16.1	13.3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	15.6	16.2	7.1	20.8	17.9	12.9	8.3
여가 및 교육, 의료 시설 접근성	6.6	3.7	7.1	0.8	7.1	8.6	21.7
교통 편리성	5.0	5.9		5.6		2.2	10.0
주택상태가 좋은 곳	8.1	5.1	7.1	14.4	14.3	5.4	3.3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	1.3	2.9		1.6			
동네 환경이 쾌적한 곳	5.5	3.7		6.4	7.1	8.6	3.3
투자 가치	0.2						1.7
거주 가능 기간	0.2		7.1				



[그림 Ⅱ-7] 거주지별 연령별 거주 주택 만족도

- 거주지별 연령별 거주 주택 만족도는 39세 이하는 군(3.50) > 시(3.35)이며, 40~64세도 군(3.43) > 시(3.41), 65세 이상도 군(3.17) > 시(3.14)로 전 연령대에서 군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더 높음. 또한 시지역 노년층 주거 주택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청장년층 중에는 시지역 청년층 주거 주택 만족도가 낮음

2) 경제활동 실태

가. 성별·연령별 실태

- 근로 형태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상용근로자(44.7%) > 임시근로(17.3%) > 실업자(13.3%) 순이며, 40-64세는 상용근로자(50.3%) > 실업자(13.1%) > 임시근로(12.4%) 순, 65세 이상은 경제활동 안 함(62.1%) > 공공근로/노인일자리(각 10.5%) 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경제활동 안 함(39.2%) > 상용근로자(16.7%) > 공공근로(15.7%) 순이며, 시는 상용근로자(36.4%) > 경제활동 안 함(26.3%) > 실업자(12.7%) 순임. 전반적으로 군지역은 노년층이 많아 경제활동 안함 응답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상용근로자 비중은 중장년층이 가장 높음

<표 II-17> 근로 형태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근로자(정규직)	32.0	44.7	50.3	1.3	36.4	16.7
임시근로(비정규직)	10.5	17.3	12.4	2.0	11.0	8.8
일용직 근로	4.2	4.0	3.9	4.6	4.0	4.9
공공근로/노인일자리/자활근로	4.2	2.0		10.5	0.8	15.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3.9	2.6	2.3	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0	2.0	5.2	7.8	5.1	4.9
무급가족 종사자	1.3	0.7	2.0	1.3	1.4	1.0
실업자	11.4	13.3	13.1	7.8	12.7	6.9
경제활동 안 함	29.2	16.0	9.2	62.1	26.3	39.2

- 월 평균소득 및 소득과 지출 차이는 연령별로는 40-64세(284.4만 원) > 39세 이하(218.7만 원) > 65세 이상(84.9만 원) 순으로 나타나며, 거주지별로는 시(204.6만 원) > 군(165.5만 원) 순임. 중장년층과 시거주 1인가구 소득이 더 높으며, 노년층은 소득과 지출 차이는 10.5만 원으로 경제적 여력이 약함을 드러냄

<표 Ⅱ-18> 월 평균소득 및 소득과 지출 차이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사례수	456	150	153	153	354	102
월평균소득	195.9	218.7	284.4	84.9	204.6	165.5
소득-지출 차이	66.8	94.2	96.2	10.5	69.4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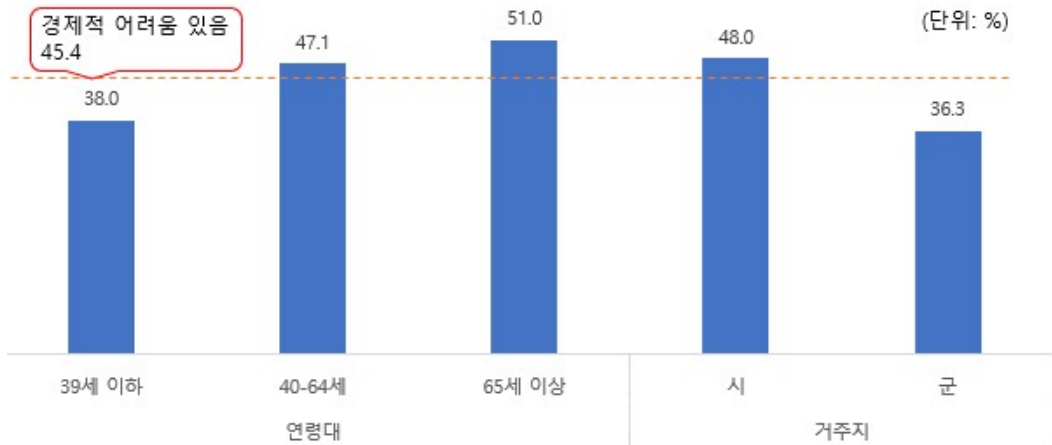
- 주된 수입원은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근로소득(73.3%) > 가족 지원(7.3%) 순, 40-64세는 근로소득(79.1%) > 개인연금/퇴직금(각 7.2%) 순, 65세 이상은 정부 지원(49.0%) > 근로소득(26.1%) > 개인연금/퇴직금(각 19.0%) 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근로소득(52.0%) > 개인연금/퇴직금(각 27.5%) > 정부 지원(10.8%) 순이며, 시는 근로소득(61.6%) > 정부 지원(20.9%) > 개인연금/퇴직금(각 5.6%) 순임. 전반적으로 노년층은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크며, 중장년층이 근로 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음. 또 군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퇴직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Ⅱ-19> 주된 수입원(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59.4	73.3	79.1	26.1	61.6	52.0
(전)배우자의 지원	3.3	6.7	3.3		4.0	1.0
가족의 지원	5.7	7.3	4.6	5.2	5.4	6.9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	10.5	5.3	7.2	19.0	5.6	27.5
정부 지원	18.6	3.3	3.3	49.0	20.9	10.8
금융소득/임대소득	2.0	2.7	2.6	0.7	2.0	2.0
기타	0.4	1.3			0.6	

-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에 대한 있음 응답률은 65세 이상(51.0%)>40-64세(47.1%)>39세 이하(38.0%)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려움 경험이 크며, 거주지별로는 시(48.0%)가 군(36.3%)보다 높음. 이에 시지역의 청년 1인가구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II-8]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 있음 응답률

나. 거주지별 연령별 실태

<표 II-20> 근로 형태

(단위: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근로자(정규직)	32.0	47.8	14.3	49.6	53.6	2.2	
임시근로(비정규직)	10.5	17.6	14.3	10.4	21.4	2.2	1.7
일용직 근로	4.2	4.4		4.0	3.6	3.2	6.7
공공근로/노인일자리/자활근로	4.2	1.5	7.1			1.1	25.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3.2	7.1	4.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0	2.2		6.4		7.5	8.3
무급가족 종사자	1.3	0.7		2.4		1.1	1.7
실업자	11.4	12.5	21.4	13.6	10.7	11.8	1.7
경제활동 안 함	29.2	13.2	42.9	10.4	3.6	66.7	55.0

- 근로 형태를 보면,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상용근로자(47.8%)>임시근로(17.6%)>경제활동 안 함(13.2%) 순이나 군거주자는 경제활동 안 함(42.9%)>실업자(21.4%)>상용근로자/임시근로(각 14.3%) 순이며, 40~64세 시거주자는 시는 상용근로자(49.6%)>실업자(13.6%)>임시근로/경제활동 안 함(각 10.4%)이며, 군거주자는 상용근로자(53.6%)>임시근로(21.4%)>실업자(10.7%)임. 65세 이상은 시는 경제활동 안 함(66.7%)>실업자(11.8%)>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5%). 군은 경제활동 안 함(55.0%)>공공근로/노인일자리(25.0%)>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8.3%) 순임. 군지역 거주 노년층은 공공근로 의존도가 시 지역보다 23.9%p 높음
- 월 평균소득 및 소득과 지출 차이는 39세 이하는 시(222.7만원)>군(180.1)만원이며, 40~64세는 군(326.4만원)>시(274.9만원), 65세 이상은 군(87만원)>시(83.6만원)임. 청년층은 시 거주 1인가구 소득이 높으나, 중장년과 노년은 군 거주자 소득이 더 높으며, 소득과 지출 차이도 동일함. 시군간의 소득 격차는 중장년층이 가장 크며, 청년층은 소득격차에 비해 소득-지출 차는 적은 편임

<표 Ⅱ-21> 월 평균소득 및 소득과 지출 차이

(단위: 만원)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사례수	456	136	14	125	28	93	60
월평균소득	195.9	222.7	180.1	274.9	326.4	83.6	87
소득-지출 차이	66.8	95	86.4	88.3	131.8	6.8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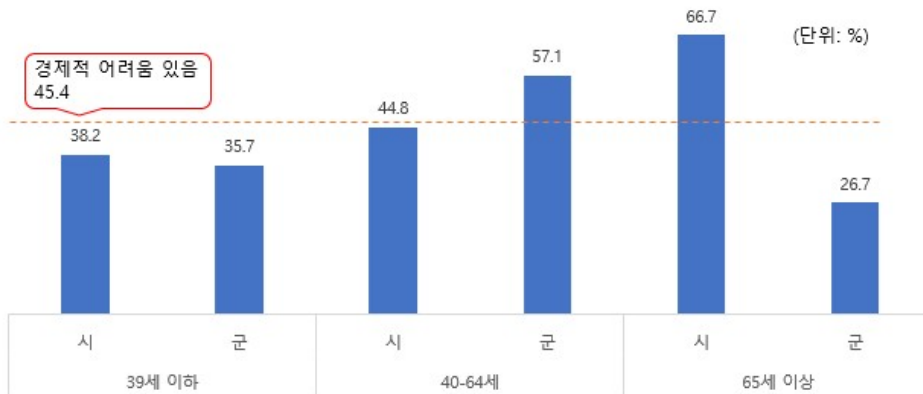
- 주된 수입원을 보면,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근로소득(77.2%)>배우자·가족의 지원(각 6.6%) 순이나 군거주자는 근로소득(35.7%)>개인연금/퇴직금(21.4%)>가족의 지원·정부 지원(각 14.3%) 순이며, 40~64세는 시는 근로소득(76.0%)>개인연금/퇴직금(8.8%)>가족의 지원(4.8%)이며, 군은 근로소득(92.9%)임. 65세 이상은 시는 근로소득(92.9%)>가족의 지원/정부 지원(각 3.6%)임. 65세 이상에서 시는 정부 지원(72.0%)>근로소득(19.4%)>가족의 지원·개인연금/퇴직금(각 4.3%)이며, 군은 개인연금/퇴직금(41.7%)>근로소득(36.7%)>정부 지원(13.3%) 순임. 시거주 청장년층은 근로 소득이 주 수입원이며, 군지역 노년층은 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사적 연금 및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임

<표 II-22> 주된 수입원(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59.4	77.2	35.7	76.0	92.9	19.4	36.7
(전)배우자의 지원	3.3	6.6	7.1	4.0			
가족의 지원	5.7	6.6	14.3	4.8	3.6	4.3	6.7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	10.5	3.7	21.4	8.8		4.3	41.7
정부 지원	18.6	2.2	14.3	3.2	3.6	72.0	13.3
금융소득/임대소득	2.0	2.2	7.1	3.2			1.7
기타	0.4	1.5					

○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 있음 응답률은 39세 이하는 시(38.2%)>군(35.7%)이며, 40~64세는 시(57.1%)>군(44.8%), 65세 이상은 시(66.7%)>시(26.7%)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서 시 거주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또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집단은 시거주 노년층이며, 다음으로는 군 거주 중장년층으로 나타남



[그림 II-9]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 있음 응답률

3) 일상 생활 실태 및 가치관

가. 성별·연령별 실태

-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취업(34.0%)>독립 편의(30.7%)>학업(16.0%) 순이며, 40-64세는 취업(35.3%)>독립 편의(30.7%)>이혼/별거/사별(13.1%) 순, 65세 이상은 이혼/별거/사별(83.7%)>가족 사망 등 기타(6.5%)순임. 노년층은 가족 해체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대부분임

<표 Ⅱ-23>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사례수	비율			
전 체	456	100.0	150	153	153
학업(대학 진학 등)	27	5.9	16.0	2.0	-
취업(회사 근처로 이사, 출퇴근 문제)	107	23.5	34.0	35.3	1.3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154	33.8	4.0	13.1	83.7
가족(부모·형제 등) 사망, 학업, 취업, 혼인, 건강, 불화 때문에	27	5.9	6.7	4.6	6.5
독립(개인적인 편의와 자유를 위해)	96	21.1	30.7	30.7	2.0
잡은 이직 등 일자리 불안정	9	2.0	2.0	3.9	-
실직, 사업 실패 등 경제력 상실	18	3.9	4.0	6.5	1.3
본인 건강	18	3.9	2.7	3.9	5.2

- 구성하기를 원하는 가구·거주형태는 39세 이하는 지금처럼 혼자(35.3%)>결혼하여 함께(34.0%)>원래 가족(18.0%) 순이며, 40-64세는 원래 가족(35.3%)>결혼하여 함께(24.2%)>지금처럼 혼자(22.9%) 순, 65세 이상은 지금처럼 혼자(67.3%)>원래 가족(14.4%)순임.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청년층은 지금처럼 혼자나 결혼하여 함께의 응답률 차이가 크지 않고, 중장년은 원래가족과 함께 거주 욕구가 커 현재 가구 형태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큼

<표 II-24> 구성하기를 원하는 가구·거주형태

(단위: 명,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사례수	비율			
전 체	456	100.0	150	153	153
지금처럼 혼자	191	41.9	35.3	22.9	67.3
원래의 가족과 함께	103	22.6	18.0	35.3	14.4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94	20.6	34.0	24.2	3.9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6	1.3	0.7	1.3	2.0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31	6.8	3.3	11.1	5.9
잘 모르겠음	31	6.8	8.7	5.2	6.5

- 연령대별 생활 만족도는 39세 이하(3.75점)>40-64세(3.46점)>65세 이상(2.84점) 순으로 젊은 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노년층의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함을 알 수 있으며, 거주지별로도 노년층 비중이 큰 군지역의 생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II-10] 연령대별 거주지별 생활 만족도

-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안정적인 소득(58.7%)>일상생활 유지(18.7%)>주거조건(16.0%) 순이며, 40-64세는 안정적인 소득(54.9%)>일상생활 유지(15.7%)>주거조건(13.1%) 순, 65세 이상은 안정적인 소득(36.6%)>일상생활 유지(28.1%)>신체/정신적 건강(26.8%)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안정적인 소득(41.2%)>신체/정신적 건강(31.4%)>일상생활 유지(19.6%)이며, 시는 안정적인 소득(52.5%)>일상생활 유지(21.2%)>주거조건(13.8%) 순임. 안정적인 소득이 전연령층과 지역에서 1위지만,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문제를 드러내며, 노년층은 일상생활 유지와 건강을 중요 요소로 인식함

<표 Ⅱ-25>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상생활 유지(가사, 요리 등 식사준비)	20.8	18.7	15.7	28.1	21.2	19.6
안정적인 소득(일자리 상담)	50.0	58.7	54.9	36.6	52.5	41.2
취미활동(운동, 문화 등 여가)	2.4	2.7	3.3	1.3	2.5	2.0
안정적인 주거조건 및 환경	11.4	16.0	13.1	5.2	13.8	2.9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1.3		3.3	0.7	1.4	1.0
원만한 사회적 관계 유지	0.4	0.7		0.7	0.6	
신체적/정신적 건강	13.2	3.3	9.2	26.8	7.9	31.4
고민 상담	0.4		0.7	0.7		2.0

<표 Ⅱ-26>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적 불안감	34.4	34.7	30.1	38.6	39.0	18.6
고독과 외로움	15.6	19.3	17.6	9.8	15.8	14.7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31.8	25.3	28.8	41.2	28.2	44.1
혼자 취미활동의 어려움	1.8	3.3	2.0		2.3	
안전에 대한 불안감	3.5	7.3	3.3		3.7	2.9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관리의 어려움	3.5	3.3	5.9	1.3	3.7	2.9
혼자 죽는 것에 대한 불안감	1.8	2.0	0.7	2.6	1.7	2.0
주거 관리/주택관리의 어려움	2.2	2.7	3.9		2.5	1.0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한 걱정	1.8	0.7	3.9	0.7	1.1	3.9
일상생활 유지	3.7	1.3	3.9	5.9	2.0	9.8

-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은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와 40-64세 모두 경제적 불안감(34.7%, 30.1%)>위급 시 대처 어려움(25.3%>28.8%)>고독과 외로움(19.3%, 17.6%)순이며, 65세 이상은 위급 시 대처 어려움(41.2%)>경제적 불안감(38.6%)>고독과 외로움(9.8%)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위급 시 대처 어려움(44.1%)>경제적 불안감(18.6%)>고독과 외로움(14.7%)이며, 시는 경제적 불안감(39.0%)>위급 시 대처 어려움(28.2%)>고독과 외로움(15.8%) 순임. 청장년층은 경제적 불안감이, 노년층은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 대응이 힘들다고 인식함
- 도움 희망 대상(정신적)은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가족/부모(50.7%)>친구/동료(22.7%)>도움 원치 않음(9.3%) 순이며, 40-64세는 가족/부모(43.1%)>친구/동료(22.9%)>국가나 지자체/상담기관(각 11.8%) 순, 65세 이상은 가족/부모(25.5%)>공공상담기관(17.6%)>이웃주민(15.7%) 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거가족/부모(35.3%)>이웃주민(15.7%)>공공상담기관(14.7%)이며, 시는 가족/부모(41.0%)>친구/동료(22.6%)>공공상담기관(11.3%) 순임. 노년층과 군 지역은 정신적 지지 기반으로 이웃주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7>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 희망 대상(정신적)

(단위: 명,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이나 부모님	39.7	50.7	43.1	25.5	41.0	35.3
친구나 직장동료	20.0	22.7	22.9	14.4	22.6	10.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9.9	6.7	11.8	11.1	10.2	8.8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	8.3	9.3	5.2	10.5	8.2	8.8
공공 전문상담 기관	12.1	6.7	11.8	17.6	11.3	14.7
민간 전문상담 기관	3.1	2.7	2.0	4.6	2.8	3.9
이웃주민	6.4	0.7	2.6	15.7	3.7	15.7
기타	0.7	0.7	0.7	0.7	0.3	2.0

- 도움 희망 대상(경제적)은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가족/부모(44.0%)>국가/지자체(26.7%)>공공상담기관(12.0%) 순이며, 40-64세와 65세 이상은 국가/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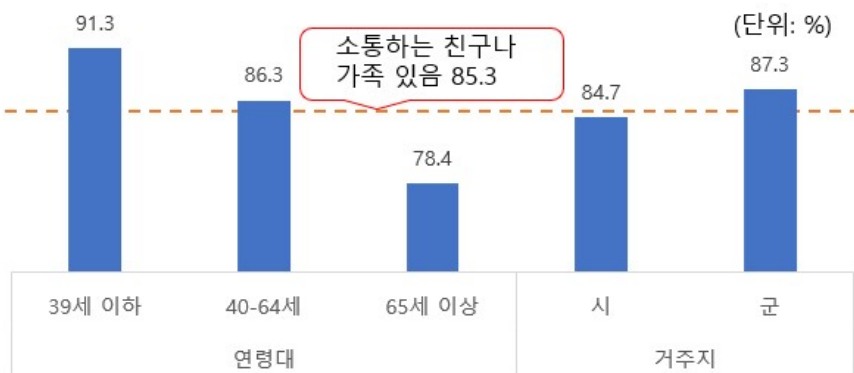
(39.9%, 44.4%)>가족/부모(32.7%, 30.7%)>공공상담기관(13.1%, 13.7%) 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가족/부모(36.3%)>국가/지자체(32.4%)>공공상담기관(17.6%)이며, 시는 국가/지자체(38.4%)>가족/부모(35.6%)>공공상담기관(11.6%) 순임. 전반적으로 청년층은 가족 의존도가 크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가/지자체 의존도가 높음

<표 Ⅱ-28>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 희망 대상(경제적)

(단위: 명,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이나 부모님	35.7	44.0	32.7	30.7	35.6	36.3
친구나 직장동료	2.4	4.0	2.6	0.7	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7.1	26.7	39.9	44.4	38.4	32.4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	8.8	10.0	9.2	7.2	9.0	7.8
공공 전문상담 기관	12.9	12.0	13.1	13.7	11.6	17.6
민간 전문상담 기관	1.8	2.0	2.0	1.3	2.0	1.0
이웃주민	1.1	1.3		2.0	0.3	3.9
기타	0.2		0.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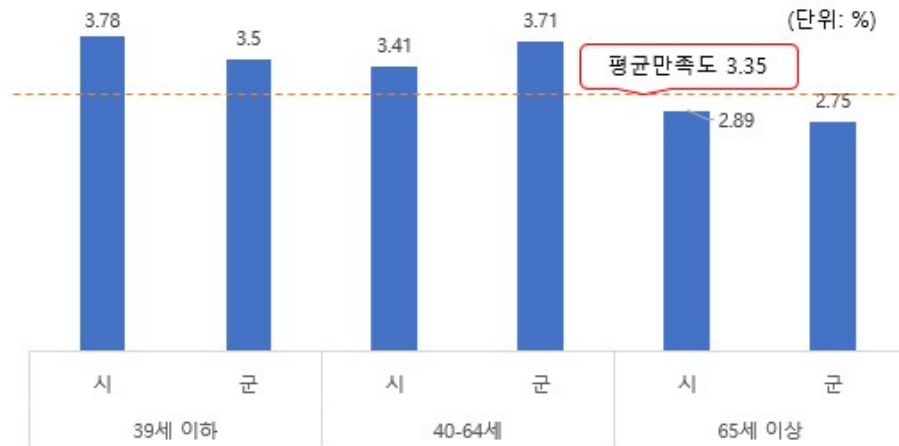
○ 소통하는 친구나 가족 있음에 대한 응답률은 39세 이하(91.3%)>40-64세(86.3%)>65세 이상(78.4%) 순으로 나이가 들수록 고립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남. 거주지별로는 군지역(87.3%)>시지역(84.7%)으로 큰 차이가 없음



[그림 Ⅱ-11] 연령대별 성별 소통하는 친구나 가족 있음 응답률

나. 거주지별 연령별 실태

- 거주지별 연령별 생활 만족도는 39세 이하는 시(3.78) > 군(3.50)이며, 40~64세도 군(3.71) > 시(3.41), 65세 이상도 시(2.89) > 군(2.75)로 나타남. 전 연령대에서 시 거주 청년층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군 거주 노년층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음. 특히, 노년층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생활 만족도를 나타냄



[그림 II-12] 거주지별 연령대별 생활 만족도

-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안정적인 소득(58.8%) > 일상생활 유지(17.6%) > 안정적인 주거조건(16.9%), 군거주자는 안정적인 소득(57.1%) > 일상생활 유지(28.6%) > 취미활동 > 안정적인 주거조건(각 7.1%) 순이며, 40~64세는 시는 안정적인 소득(53.6%) > 일상생활 유지(16.0%) > 안정적인 주거조건(14.4%)이며, 군은 안정적인 소득(60.7%) > 일상생활 유지(14.3%) > 주거조건 > 가족관계 > 건강(각 7.1%)임. 65세 이상은 시는 안정적인 소득(41.9%) > 일상생활 유지(33.3%) > 건강(11.8%), 군은 신체적/정신적 건강(50.0%) > 안정적인 소득(28.3%) > 일상생활 유지(20.0%)임. 군 거주 노년층의 50%가 건강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 모든 연령대는 안정적 소득을 최우선으로 인식해 경제적 여건의 중요성을 드러냄

<표 Ⅱ-29>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상생활 유지(가사, 요리 등 식사준비)	20.8	17.6	28.6	16.0	14.3	33.3	20.0
안정적인 소득(일자리 상담)	50.0	58.8	57.1	53.6	60.7	41.9	28.3
취미활동(운동, 문화 등 여가)	2.4	2.2	7.1	3.2	3.6	2.2	
안정적인 주거조건 및 환경	11.4	16.9	7.1	14.4	7.1	8.6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1.3			3.2	3.6	1.1	
원만한 사회적 관계 유지	0.4	0.7				1.1	
신체적/정신적 건강	13.2	3.7		9.6	7.1	11.8	50.0
고민 상담	0.4				3.6		1.7

<표 Ⅱ-30>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적 불안감	34.4	35.3	28.6	32.0	21.4	53.8	15.0
고독과 외로움	15.6	19.1	21.4	18.4	14.3	7.5	13.3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31.8	25.7	21.4	28.0	32.1	32.3	55.0
혼자 취미활동의 어려움	1.8	3.7		2.4			
안전에 대한 불안감	3.5	5.9	21.4	4.0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관리의 어려움	3.5	3.7		5.6	7.1	1.1	1.7
혼자 죽는 것에 대한 불안감	1.8	1.5	7.1	0.8		3.2	1.7
주거 관리/주택관리의 어려움	2.2	2.9		4.0	3.6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한 걱정	1.8	0.7		2.4	10.7		1.7
일상생활 유지	3.7	1.5		2.4	10.7	2.2	11.7

-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는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경제적 불안감(35.3%)>위급 시 대처 어려움(25.7%) 순이며 군거주자는 경제적 불안감(28.6%)>고독과 외로움/위급 대처/안전 불안(각 21.4%) 순이며, 40~64세는 시는 경제적 불안감(32.0%)>위급 시 대처 어려움(28.0%)이며, 군은 위급 시 대처 어려움(32.1%)>경제적 불안감(21.4%)임. 65세 이상은 시는 경제적 불안감(53.8%)>위급 시 대처 어려움(32.3%). 군은 위급 시 대처 어려움(55.0%)>경제적 불안감(15.0%) 순임. 군지역 거주자의 절반 이상은 건강 위기시 대처에 대한 불안이 큼
- 정신적 도움 희망 대상을 보면,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가족이나 부모님(50.7%)>친구나 직장동료(25.0%) 순이며 군거주자는 가족이나 부모님(50.0%)>공공 전문상담 기관(28.6%) 순이며, 40~64세는 시는 가족이나 부모님(44.0%)>친구나 직장동료(22.4%)이며, 군은 가족이나 부모님(39.3%)>친구나 직장동료(25.0%)임. 65세 이상은 시는 가족이나 부모님(22.6%)>친구/공공 상담기관(각 19.4%). 군은 가족이나 부모님(30.0%)>이웃주민(25.0%) 순임. 정신적 어려움은 가족을 도움 대상으로 주로 보지만, 군지역 거주 노년층은 이웃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31>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 희망 대상(정신적)

(단위: 명,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이나 부모님	39.7	50.7	50.0	44.0	39.3	22.6	30.0
친구나 직장동료	20.0	25.0		22.4	25.0	19.4	6.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9.9	6.6	7.1	12.8	7.1	11.8	10.0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	8.3	9.6	7.1	3.2	14.3	12.9	6.7
공공 전문상담 기관	12.1	4.4	28.6	12.8	7.1	19.4	15.0
민간 전문상담 기관	3.1	2.9		1.6	3.6	4.3	5.0
이웃주민	6.4	0.7		2.4	3.6	9.7	25.0
기타	0.7		7.1	0.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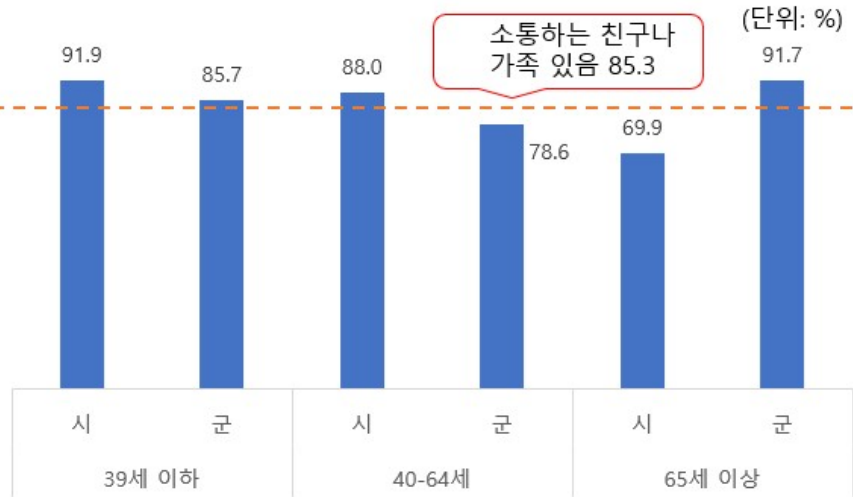
- 경제적 어려움시 도움 희망을 보면, 39세 이하 1인가구 중 시거주자는 가족이나 부모님(43.4%)>국가나 지방자치단체(27.9%) 순이며 군거주자는 가족이나 부모님(50.0%)>공공 전문상담 기관(21.4%) 순, 40~64세는 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40.0%)>가족이나 부모님(33.6%)이며, 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9.3%)>가족이나 부모님(28.6%)임. 65세 이상은 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51.6%)>가족(26.9%), 군은 가족(36.7%)>국가나 지방자치단체(33.3%) 순임. 청년층과 군지역 노년층은 어려움시 가족을 도움 희망대상으로 인식하며, 중장년층과 시거주 노년층은 국가나 지자체를 주 대상으로 인식해 차이를 드러냄

<표 Ⅱ-32>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 희망 대상(경제적)

(단위: 명, %)

구 분	전체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이나 부모님	35.7	43.4	50.0	33.6	28.6	26.9	36.7
친구나 직장동료	2.4	4.4		3.2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7.1	27.9	14.3	40.0	39.3	51.6	33.3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	8.8	11.0		8.8	10.7	6.5	8.3
공공 전문상담 기관	12.9	11.0	21.4	12.0	17.9	11.8	16.7
민간 전문상담 기관	1.8	1.5	7.1	2.4		2.2	
이웃주민	1.1	0.7	7.1				5.0
기타	0.2				3.6		

- 소통 상대 있음에 대한 응답률은 39세 이하는 시(91.9%)>군(85.7%)이며, 40~64세는 시(88.0%)>군(78.6%), 65세 이상은 군(91.7%)>시(69.9%)임.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시지역 거주자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노년층은 군지역 거주자의 응답률이 더 높음. 중장년은 시군간의 응답률 격차가 커서 중장년 군거주자에 대한 소통 문제 해소가 요구됨



[그림 II-13] 거주지별 연령대별 소통하는 친구나 가족 있음 응답률

4) 영역별 정책 요구도

○ 영역별 지원 정책 중요도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경제/일자리(4.15) > 안전(4.03) > 주거 안정(3.89) 순이며, 40-64세는 경제/일자리(4.21) > 안전(4.03) > 주거 안정(4.13) 순, 65세 이상은 건강/돌봄(4.21) > 경제/일자리(4.07) > 안전(3.90) 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안전(4.15) > 건강/돌봄(4.09) > 경제/일자리(4.05)이며, 시는 경제/일자리(4.17) > 건강/돌봄(4.05) > 안전(3.98) 순임.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요구도는 유사하나 중장년층이 더 중요도를 크게 보고 있으며, 노년층은 건강/돌봄에 대한 요구가 큼. 또 군지역 시보다 더 안전에 대한 요구가 큼

<표 II-33> 영역별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

(단위: % 5점 척도)

구분	계	주거 안정	안전	경제/일자리	건강/돌봄	여가/사회적 관계망	제도/인식	
합계	100.0	3.94	4.02	4.14	4.06	3.69	3.65	
연령대	39세 이하	100.0	3.89	4.03	4.15	3.82	3.72	3.70
	40-64세	100.0	4.13	4.14	4.21	4.14	3.89	3.93
	65세 이상	100.0	3.80	3.90	4.07	4.21	3.46	3.33
거주지	시	100.0	3.97	3.98	4.17	4.05	3.75	3.74
	군	100.0	3.82	4.15	4.05	4.09	3.49	3.36

- 주거 안정 정책 우선순위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와 40-64세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32.7%, 31.4%)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 인하(28.0%, 23.5%) 순이며, 65세 이상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35.9%)주택 시설 보수 지원(22.2%)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주택 시설 보수 지원(25.5%)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 인하(20.6%)이며, 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37.9%)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 인하(22.0%) 순임.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군지역은 기존 노후 주택의 보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큼. 이는 아파트 중심의 시지역 주거 환경과 임대 주택 건립이 어려운 군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것으로 사료됨

<표 Ⅱ-34> 주거 안정 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	33.3	32.7	31.4	35.9	37.9	17.6
공동체 형태의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10.5	8.7	11.8	11.1	8.8	16.7
임대주택 1인가구 입주조건 완화	18.6	19.3	20.9	15.7	18.6	18.6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 인하	21.7	28.0	23.5	13.7	22.0	20.6
주택 시설 보수 지원	11.8	6.0	7.2	22.2	7.9	25.5
주택 관련 교육	3.9	5.3	5.2	1.3	4.8	1.0

- 안전 정책 우선순위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와 40-64세는 주택 주변 환경 개선(36.0%, 47.1%)주택 보완장치 강화(25.3%, 27.5%) 순, 65세 이상은 위급 시 비상벨/알림 시스템(39.2%)주택 주변 환경 개선(24.2%) 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주택 주변 환경 개선(37.3%)위급 시 비상벨, 긴급 대피 및 알림 등(34.3%)이며, 시는 주택 주변 환경 개선(35.3%)주택 보완장치 강화(23.2%) 순임.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요구도는 유사하나 중장년층이 주택 주변환경 개선과 보완장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높고, 노년층은 위급시 문제에 대한 더 위험도를 높게 보고 있음. 또한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주택 주변 환경 개선 및 위급 상황 시 즉각 작동하는 비상 호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음

<표 II-35> 안전 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보완장치 강화	21.7	25.3	27.5	12.4	23.2	16.7
주택 주변 환경 개선	35.7	36.0	47.1	24.2	35.3	37.3
공공시설의 안전시설 조성 지원	13.4	12.0	13.1	15.0	14.7	8.8
위급 시 비상벨, 긴급 대피 및 알람 등	20.4	14.7	7.2	39.2	16.4	34.3
자율방범대 순찰 횟수 증가	4.8	6.0	2.0	6.5	5.6	2.0
무인 안심 택배함 설치	2.4	4.0	2.0	1.3	2.8	1.0
관련 교육 프로그램	1.5	2.0	1.3	1.3	2.0	

<표 II-36> 경제/일자리 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	25.0	31.3	28.1	15.7	26.0	21.6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	17.3	16.7	17.6	17.6	19.5	9.8
전공 및 전문성을 반영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	12.5	17.3	15.0	5.2	13.0	10.8
직업훈련 교육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7.0	8.0	8.5	4.6	7.9	3.9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등 공공근로사업	23.7	10.7	9.8	50.3	16.9	47.1
세금제도에서 1인가구에 대한 불이익 개선	7.7	6.7	13.1	3.3	8.5	4.9
금융자산, 재무관리, 노후설계 등 교육	3.3	4.7	3.9	1.3	4.2	
저축액에 대한 추가금 매칭 등 금융 지원	3.5	4.7	3.9	2.0	4.0	2.0

- 경제/일자리 정책 우선순위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31.3%)>전공 및 전문성을 반영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17.3%) 순, 40~64세는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28.1%)>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17.6%) 순, 65세 이상은 공공근로사업(50.3%)>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17.6%) 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공공근로사업(47.1%)>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21.6%)이며, 시는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26.0%)>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19.5%) 순임. 전반적으로 청년층은 일자리 정보 제공과 미래지향적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더 크며, 노년층과 군지역은 공공 근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표 Ⅱ-37> 건강/돌봄 지원 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에 대한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	24.1	21.3	24.8	26.1	20.9	35.3
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	18	18.0	23.5	12.4	18.9	14.7
병원 방문, 외출 시 동행 도우미 서비스	6.8	7.3	7.8	5.2	6.5	7.8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11.8	14.0	13.1	8.5	12.7	8.8
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11.4	14.7	11.8	7.8	11.3	11.8
건강증진 소모임 지원	2.2	4.7	0.7	1.3	2.5	1.0
식사활동 지원	9.6	7.3	7.2	14.4	10.5	6.9
건강검진 비용 또는 치매 등 의료비 지원	11.6	9.3	7.8	17.6	11	13.7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3.3	1.3	2.0	6.5	4.2	
응급처치 교육	1.1	2.0	1.3		1.4	

- 건강/돌봄 지원 정책 우선순위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21.3%)>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18.0%)>정

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14.7%) 순이며, 40-64세와 65세 이상은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24.8%, 26.1%)>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23.5%, 12.4%)>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13.1%, 13.1%) 순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35.3%)>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14.7%)>건강검진 비용 또는 치매 등 의료비 지원(13.7%)이며, 시는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20.9%)>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18.9%)>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12.7%) 순임. 전 연령대에서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과 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음

<표 II-38> 여가/사회적 관계망 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추진	21.7	24.0	25.5	15.7	21.8	21.6
1인가구 친목 모임, 동호회 지원	9.9	10.7	9.8	9.2	9.6	10.8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공동체 주거 활성화	11.2	12.7	12.4	8.5	11.9	8.8
소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 지원	9.6	11.3	8.5	9.2	9.0	11.8
자원봉사, 사회참여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 확대	10.5	6.0	13.1	12.4	8.2	18.6
문화/여가생활 활동 지원	21.5	21.3	22.9	20.3	22.9	16.7
반려 동식물 양육 지원	4.6	6.0	1.3	6.5	5.9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안부 확인	6.6	6.0	3.3	10.5	6.5	6.9
가족돌봄 및 가족 재구조화 프로그램 마련	4.4	2.0	3.3	7.8	4.2	4.9

- 여가/사회적 관계망 정책 우선순위는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관계망 형성 지원(24.0%)>문화/여가생활 활동 지원(21.3%)>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공동체 주거 활성화(12.7%) 순이며, 40-64세는 관계망 형성 지원(25.5%)>자원봉사, 사회참여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 확대(13.1%)>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공동체 주거 활성화(12.4%) 순, 65세 이상은 문화/여가생활 활동 지원(20.3%)>관계망 형성 지원(15.7%)>자원봉사, 사회참여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 확대(12.4%) 순

임. 거주지별로는 군은 관계망 형성 지원(21.6%)>자원봉사, 사회참여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 확대(18.6%)>문화/여가생활 활동 지원(16.7%)이며, 시는 관계망 형성 지원(21.8%)>문화/여가생활 활동 지원(22.9%)>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공동체 주거 활성화(11.9%) 순임. 청장년층은 관계망 형성지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공동체 주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며, 중장년층은 사회 활동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또 노년층은 문화/ 여가 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제도/인식 정책 우선순위는 전 연령대와 지역 모두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사업 확대>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 시민 공모>1인가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설치 순으로 응답함. 이는 현재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과 사업 부족, 1인가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등을 드러내고 있음.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군지역은 50.0%, 중장년은 40.5% 응답하고 있어 가장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Ⅱ-39> 제도/인식 정책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5점 척도)

구 분	전체	연령대			거주지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사업 확대	38.6	36.7	40.5	38.6	35.3	50.0
1인가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설치	14.9	15.3	13.7	15.7	16.1	10.8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 시민 공모	14.0	16.7	17.0	8.5	14.4	12.7
1인가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6.1	6.0	4.6	7.8	6.8	3.9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12.7	15.3	11.1	11.8	12.4	13.7
1인가구 정책 모범사례 홍보	4.6	2.0	4.6	7.2	4.5	4.9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8.8	8.0	7.8	10.5	10.2	3.9

3.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제도

1) 중앙 정부의 정책 및 제도

-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
 - 2018년에 1인가구 추가를 시작으로 2020년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 방안” ,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구분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2018)	-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 추가로 법적 기반 마련 제 15조)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 계획에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연령·성별·지역별 1인 가구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근거를 제공한다.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 방안 (2020)	- 5개 분야의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 분야 1 소득 및 돌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5개→2개) ·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 ·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강화 분야 2 주거 · 청년·노년층 맞춤형 지원 ·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후 가구수요에 맞게 공급 · 별도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검토 분야 3 안전 · 사전 예방체계 확충: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방체계 고도화,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집중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 · 즉각 대응시스템 구축: 신속민감대응시스템 전국 확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분야 4 사회적 관계망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분야 5 소비(Solo Economy) · 간편식품산업: 시장 활성화 기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지원 확대 · 외식업: 1인가구 메뉴개발 등 컨설팅 지원 · 생활소비재·스마트홈 산업: 디자인 등 맞춤형 상품 개발 · 온라인 판매 산업: 중소·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강화 · 로봇 산업: 돌봄로봇 등 관련 상품 공급 활성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제정)	- 고독사 예방 관련 제도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예방 의무 규정, 고독사예방 기본계획(5년주기) 수립·시행 의무화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수립(보건복지부)

[그림 Ⅱ-14] 중앙 정부의 1인가구 대응 정책

-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위의 그림과 같이 2018년 법적기반 마련, 2020년 범정부 1인가구 정책 TF 구성,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반 강화의 흐름으로 발전하며 시군별로 1인 가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4년 1인가구 사업을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 운영함.(배옥현 외, 2024)
- '온가족 보듬사업은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임. 1인가구 사업은 온가족 보듬사업의 취약가족에 속하며, 아래와 같은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온가족 보듬사업>

-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
- 지원대상: 취약·위기 가족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선정기준

유형	기준
취약가족	- 정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 (한)부모, 1인가구,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족, 이혼 위기가족 등 가족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조정 가능) 우선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 기준에 적합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적용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수급 증명서를 통해 소득 기준확인
긴급·위기 가족	- 정의: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 서비스 내용
 -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 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 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신청방법: 지역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지역가족센터 서비스신청 접수	지역가족센터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지역가족센터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지역가족센터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지역가족센터 서비스 제공후 관리

자료: 복지포(<https://www.bokjiro.go.kr/ssis-tbu/wataa/wfarehfo/moveTWAT52011M.do?wfarehfold=WLF00001098>)

- 2026년 현재 1인 가구 증가 대응 정책간담회(성평등 가족부)는 기존의 온가족보듬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던 1인가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해 상반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합하고, 하반기 현장 시범 적용을 준비하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 통해 생애주기 특성과 자립·돌봄·관계·안전 영역 중심의 핵심 위협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 강화 추진

2026년 상반기: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 개발



2026년 하반기: 가족센터 현장 시범 적용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아래의 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1인가구 특화 서비스 모델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대상 맞춤형 교육과 함께, 안심 장비 및 부동산과 병원 이용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인가구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수 있는 방안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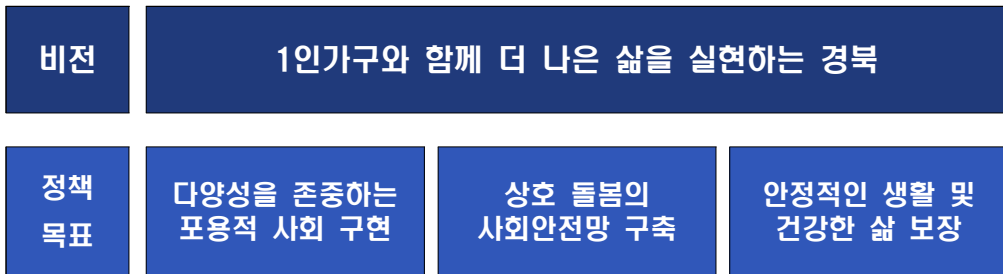
<표 Ⅱ-40> 1인가구 특화 서비스 모델 프로그램 구성

구분	내용
연령대	<p>· 자립 준비 청년 생활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재무 기초교육, 정리 수납·청소·주거관리 교육 등</p> <p>· 1인 가구 청년들간 소통모임 지원</p> <p><사례> 청년 1인가구 정리수납·청소·주거관리교육(서울 강북구), 청년 1인가구 기본 생활교육(정리정돈, 요리) 및 안전교육(대구 중구), 예비1인가구 재무교육(제주 서귀포시), 2030 소모임공동체(광주 서구)</p>
	<p>·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감 완화 심리상담(1:1 또는 집단)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p> <p>· 일상생활 속 자기돌봄 역량이 취약할 수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일상생활 속 자기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예시: 요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p> <p><사례> 중장년 1인가구 심리극 집단상담(서울 강북구), 중장년 1인가구 관계형성 지원 프로그램(대전광역시), 중장년 1인가구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충남 태안군), 중장년 1인가구 운동·노후생활준비 재무설계·글쓰기 및 독서모임 프로그램(충남 계룡시)</p>
	<p>· 노년기 건강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건강관리, 치매예방 인지활동과 요가, 웃음치료, 영양 교육 프로그램</p> <p>· 노년 1인 가구의 디지털 격차 해소: 키오스크 및 스마트기기 실습 중심 교육</p> <p><사례> 노년 1인가구 정서회복 프로그램(부산 사하구), 노년 1인가구 맞춤형영양교육(경기 남양주), 노년 1인가구 웰빙요가 및 힐링밥상(강원 평창군), 노인 1인가구 웃음치료(충북 진천군), 독거노인 우울증 검사 및 상담(전북 순창군), 노년 1인가구 키오스크 교육(경북 상주시)</p>
안전·건강	<p>· 1인가구 안전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등 안심장비 지원,</p> <p>· 집 수리 교육, 부동산 안심동행 서비스 운영</p> <p>·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지원</p> <p><사례> 1인가구 안심장비지원사업(서울 서대문구),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전북 순창군), 1인가구 부동산 안심 동행(전남 목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경기 안산시)</p>

자료: 성평등 가족부 정책 뉴스(성평등 가족부, 전국 가족센터 통해 1인가구 지원 강화, 2026.03.03.)

2) 경북 정책 및 제도

- 경상북도는 1인가구 지원의 제도적 기반으로 2023년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에는 「건강 가정 기본법」 및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해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 시행함



[그림 II-15]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 비전 및 목표

-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이하 1차 기본계획)은 “1인 가구와 함께 더 나은 삶 실현”을 비전으로 아래와 같은 3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등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함
 - 1차기본계획은 2024년 상반기의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경북 1인가구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수요 맞춤형 정책으로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 설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립됨
 - 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5개 영역에서 총 27개 세부과제를 도출함. 27개의 과제 중 정책추진 기반구축 영역은 여성가족과와 유관기관인 가족센터가 추진 주체이나, 주거 및 안전 영역은 청년 대상 주거 지원사업은 청년정책과와 건축디자인과, 1인가구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토지정보과, 안심귀가거리 조성 확대는 안전 정책과가 추진 주체인 사업이며, 취약계층 및 여성 안전 관련은 여성가족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또 생활 안전 영역 및 건강 돌봄에서도 청년대상 사업은 청년정책과, 저소득 1인가구 대상사업은 사회복지과, 노년 대상은 어린신 복지과 등이 추진부서임. 즉, 1인가구 사업은 대상 특성에 따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행 운영 되어야 하는 사업임

<표 Ⅱ-41>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 세부 추진과제

영역	세부추진과제	추진 부서(유관 기관)
정책추진 기반 구축	·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여성가족과(가족센터)
	· 1인가구 협업기반 및 전달체계 강화	
	· 경상북도 1인가구 포털 구축·운영	
	· 1인가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	
주거 및 안전	·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	청년정책과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정책과/건축디자인과
	· 1인가구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토지정보과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건축디자인과/여성가족과(가족센터)
	· 안심귀가거리 조성 확대	안전정책과
	· 1인가구 안심홈 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	여성가족과/시군
· 여성 1인가구 안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성가족과	
생활 안정	· 재무경제 교육 및 재무상담 지원	청년정책과/여성가족과(가족센터)
	· 저소득 1인가구 경제적 생활지원	사회복지과/건축디자인과
	· 청년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정책과
	· 신중년 일자리지원	경제정책노동과/민생경제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복지과
건강 및 돌봄	· 응급상황 대응 및 긴급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시스템	어르신복지과
	·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여성가족과
	·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청년정책과/보건정책과
	· 소통·회복 프로그램 운영	보건정책과(정신건강센터)
	· 마음 안심버스 운영	
	· 식생활 활동지원	어르신복지과/여성가족과(가족센터)
· 돌봄·가사서비스 지원, 특화서비스	어르신복지과	
사회적 관계망	· 1인가구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과(가족센터)
	· 1인가구 상담 (사례관리)	
	· 위기가구 발굴, 관리 및 자원 연계	사회복지과
	·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자원봉사대 발족)	

자료: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경상북도 내부자료)

- 27개 세부추진과제에서 여성가족과 중심으로 운영될수 있는 과제는 정책추진기반구축 영역의 4개 사업과 주거 및 안전 영역의 2개 사업, 건강 및 돌봄 영역의 1개 사업,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2개이며, 여성가족과와 타부서의 협업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은 주거 및 안전 과 생활안정, 건강 및 돌봄 등 3개 영역에 각 1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사업이 있음

- 특히, 여성가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 및 타부서와 협업 사업 등 총 12개 사업 중 가족센터와 연계된 사업은 9개로 1인가구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가족센터의 역할 중요성이 뚜렷히 드러남

<표 II-42> 2025년 경상북도 1인가구 시행계획 세부과제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대상	추진부서 (유관기관)
① 정책추진 기반구축	1-1. 1인가구 지원 기반 조성	1. 경상북도 1인가구 시행계획 수립 신규	공통	여성가족과
		2. 1인가구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규	공통	여성가족과
② 주거 및 안전	2-1. 주거 복지지원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	청년정책과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통	청년정책과 건축디자인과
	2-2.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1. 정리수납 마스터 신규+시범	공통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2.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지원	공통	건축디자인과
	2-3.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1. 안심귀가거리 조성 확대 및 모니터링	여성 노인	안전정책과
③ 생활안정	3-1. 경제적위험 상황 대비지원	1. 저소득 1인가구 경제적 생활지원	공통	사회복지과
		2. 주거급여 지원사업	공통	건축디자인과
	3-2. 안정적 경제 활동 지원	1. 청년애꿈 수당	청년	청년정책과
		2.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청년	청년정책과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어르신복지과
④ 건강 및 돌봄	4-1. 신체건강 지원	1.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노인	어르신복지과
		2.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청년	청년정책과
		3. 모바일 헬스케어	공통	보건정책과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어르신복지과	
5.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신규+시범		공통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4-2. 정신건강지원	1. 소통·회복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공동체 인식 확산)	공통	보건정책과 (정신건강센터)	
4-3. 식생활 및 가사 지원	1.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	어르신복지과	
	2. 은가족 요리교실(소셜 다이닝) 신규+시범	청년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⑤ 사회적 관계망	5-1.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1. 청년 1인가구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규+시범	청년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2. 1인가구 러닝크루 '퇴근 후 1로 모여' 신규+시범	청년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3. 1인가구를 위한 '해피살롱' 운영 신규+시범	중장년 노인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5-2. 고독 돌봄 서비스	1. 위기가구 발굴, 관리 및 지원 연계	공통	사회복지과
		2.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	공통	사회복지과
	3.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신규+시범	노인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자료: 2025년 1인 가구 시행계획(경상북도 내부자료)

- 1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수립된 2025년 「경상북도 1인가구 시행 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대응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더 명확화한 계획을 수립함
 - 2025년에는 경상북도 1인가구 시행 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보편적이면서 세대 맞춤형의 정책 추진과 경제적 자립 및 생활 안정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과 공동체 강화, 취약 1인가구 우선 보호 등임
 - 2025년 1인가구 시행계획의 세부 과제는 5대 영역에 11개 정책과제, 2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기본계획에서 수정되어 9개 신규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9개 신규 과제 중 7개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됨
 - 2025년 시행 계획에서는 연령별 성별 1인가구의 문제점을 주거불안과 심리정서 고립, 관계망 단절, 고용·경제 불안, 응급대응 취약, 범죄 불안 등 6개로 구분해 분석함
 - 연령별로 청년층은 주거 불안과 심리정서 고립, 고용·경제 불안의 문제점을, 중장년은 심리정서 고립과 관계망 단절, 고용·경제 불안을, 노년층은 심리 정서 고립과 관계망 단절, 응급 대응 취약의 문제점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 불안과 심리 정서 고립, 범죄 불안의 문제점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부 정책 수립이라는 목적성을 명확화함
 - 이에 시행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에 대상을 1인가구 전체 대상을 공통으로, 그 외 연령대별로 청년, 중장년, 노인을 구분하고, 여성 대상사업도 구분함
 - 또한, 추진 부서로는 청년 대상 사업은 청년 정책과(5개)가, 노인 대상 사업은 어르신 복지과(4개)가 주를 이루며, 그 외에는 여성가족과(9개)와 사회복지과 등임. 여성가족과가 추진하는 사업 중 7개가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타남
 - 사업의 주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공통이 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층 대상과 노년층 대상 사업이 각 7개로 다음 순이며, 중장년층과 여성 대상 사업은 각 1개에 불과함. 각 세부과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영역을 제외한 공통 대상 사업은 건강 및 돌봄 영역의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 가구 대상사업 또는 취약 계층 사업으로 1인가구가 포함된 형태로 파악됨. 이에 2025년 경북 시행계획에 제시된 사업에서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사업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표 II-43> 경북 2025 시행계획의 대상별 영역별 세부과제

(단위: 개)

구분	정책추진 기반구축(2)	주거 및 안전(5)	생활안전(5)	건강 및 돌봄(8)	사회적 관계망(6)	계
공통	2	3	2	3	2	12
청년층	-	1	2	2	2	7
중장년층	-	-	-	-	1	1
노년층	-	1*	1	3	2	7
여성	-	1*	-	-	-	1

주: *는 동일 사업에 대상이 2개인 경우임

○ 경상북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북 시군 1인가구 지원사업 우수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이 14개 시군의 18개 사업이 있음

- 사업비 재원을 통해 볼 때, 18개 사업 중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이 총 13개이며, 국비 100% 사업은 상주의 '연애 세포 자극, 나를 알아야 만날 수 있다'와 '1인가구 셀프 홈케어(청소&집수리)' 2개이며, 안동의 '1인가구 프로젝트'금쪽같은 나'가 도비 매칭 사업, 청도의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전액 군비 사업으로 운영됨. 특히 청도의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타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달리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임
- 각 사업의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청년 대상 사업이 5개, 중장년 대상 사업이 3개, 전 연령 대상 사업이 6개, 노년과 청년+중장년 사업이 각 1개임. 전연령 대상 사업에서는 1인가구 포함 사업이 2개임

<표 II-44> 경북 2025 1인가구 지원사업 시군 우수사례

시군	사업명	대상	사업비 (국:도:시군)
포항	1인가구 집단상담 프로그램	청년·중장년 1인가구	500만원 (50:15:35)
대상	청년·중장년 1인가구		
사업 내용	청년	싱글라이프 속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	
	중장년	이야기치료기법을 활용한 마음탐색 및 자기 돌봄 힘 기르기	
	공동체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 취약계층 나눔 활동 → 지역사회 참여 촉진, 관계망 확장	
→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삶의 질 향상			

II.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시군	사업명	대상	사업비 (국:도:시군)				
안동	1인가구 프로젝트 '금쪽같은 나'	(결혼예정)1인 가구 청년	400만원 (0:50:50)				
대상 1인 가구 및 결혼 예정 1인 가구(청년층) 사업내용 오리엔테이션, 반려 화분, 1인 밀키트, 상임불 명상, 글라스아트 체험 등 → 삶의 질, 네트워크 향상							
구미	구미는 매(1) 밝음, 1인가구 병원동행	1인 가구	553만원 (50:15:35)				
대상 1인가구 사업내용 <table border="1"> <tr> <td>구미는 매(1) 밝음</td> <td> - 1단계 마음밝음 : 성격강점 발견,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퍼스널 브랜딩 - 2단계 생활밝음 : 집밥의 민족, 공간 큐레이팅, 생활 공예 - 3단계 건강밝음 : 그룹 테니스 강습(도시공사 연계) - 4단계 관계밝음 : 지역축제 연계 소셜 다이닝, 이웃이음 </td> </tr> <tr> <td>1인가구 병원동행</td> <td> 병원 이용이 어려운 1인 가구 대상으로 보듬매니저 동행 * (구미드든동행) 상시 사례발굴, 긴급연계, 진료 동행, 행정지원, 심리지지, 통합사례관리 </td> </tr> </table>		구미는 매(1) 밝음	- 1단계 마음밝음 : 성격강점 발견,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퍼스널 브랜딩 - 2단계 생활밝음 : 집밥의 민족, 공간 큐레이팅, 생활 공예 - 3단계 건강밝음 : 그룹 테니스 강습(도시공사 연계) - 4단계 관계밝음 : 지역축제 연계 소셜 다이닝, 이웃이음	1인가구 병원동행	병원 이용이 어려운 1인 가구 대상으로 보듬매니저 동행 * (구미드든동행) 상시 사례발굴, 긴급연계, 진료 동행, 행정지원, 심리지지, 통합사례관리		
구미는 매(1) 밝음	- 1단계 마음밝음 : 성격강점 발견,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퍼스널 브랜딩 - 2단계 생활밝음 : 집밥의 민족, 공간 큐레이팅, 생활 공예 - 3단계 건강밝음 : 그룹 테니스 강습(도시공사 연계) - 4단계 관계밝음 : 지역축제 연계 소셜 다이닝, 이웃이음						
1인가구 병원동행	병원 이용이 어려운 1인 가구 대상으로 보듬매니저 동행 * (구미드든동행) 상시 사례발굴, 긴급연계, 진료 동행, 행정지원, 심리지지, 통합사례관리						
→ 심리정서 지원 및 생활 역량 강화, 위기상황 도움							
영주	청년 1인가구 문화체험 프로그램	청년 1인가구	500만원 (50:15:35)				
대상 청년 1인가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를 위한 요리, 마음 환기,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 경제교육, 공구 사용법, 나만의 그릇과 소반만들기 - 경제교육, 미술 수업등 							
→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영천	1인 노년 가구 디지털 역량강화 '일상디딤'	고령 1인가구	250만원 (52:12:36)				
대상 고령 1인가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기본 기능 및 환경 설정 교육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약물 알림 등 생활 밀착형 앱 활용 교육 - 온라인 결제, 인터넷 활용 등 실생활 적용 기능 교육 - 실물 키오스크 사용 방법 이해 및 반복 실습 등 							
→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으로 1인 노년가구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생활 자립 기반 강화							
상주	연애 세포 자극, 나를 알아야 만날 수 있다 외 2개	1인가구	1,145만원 (58:28:14)				
1 연애 세포 자극, 나를 알아야 만날 수 있다!(국비 100%)							
대상 1인가구 청년층 미혼남녀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기 : DISC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교육 및 자아관 탐색 장점 찾기 - 2회기 : 건강한 연애와 결혼의 의미교육 및 대화 방법 실습 - 3회기 : 와인 클래스 및 1:1대화 시간과 성격 맞춤 짝궁 찾기 							
→ 미혼남녀의 자기 이해 증진과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 형성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시군	사업명	대상	사업비 (국:도:시군)
----	-----	----	-----------------

2]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대상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중장년 1인가구
사업 내용	고독사 고위험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1인가구 셀프홈케어(청소&집수리)(국비 100%)

대상	1인가구(전연령)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 방법 교육과 각 영역별 이론 및 실습 - 수공구 및 전동공구의 종류를 배우고 직접 도구를 사용해 보며 기술 터득 - 질의응답을 통해 집청소&집수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결

→ 1인가구 실생활 주거생활 환경 교육

문경	교육문화프로그램(온가족보듬사업)	1인가구 등	180만원 (50:15:35)
----	-------------------	--------	---------------------

대상	1인가구(단독 1인가구 우선)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 프로그램 4회기 운영 (베이킹·공예·정서돌봄 등) -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상호교류 유도 - 만족도 조사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

의성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남자의 품격 공방」	중장년 남성 1인가구	500만원 (50:30:20)
----	--------------------------	----------------	---------------------

대상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사업내용	-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 생활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 역량 강화

→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청송	마음배송 안부꾸러미 전달, 라이프 레시피	1인가구	1,700만원 (50:26:24)
----	------------------------	------	-----------------------

1] 마음배송 안부꾸러미 전달

대상	고독사 위험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읍면별 고독사위험자 2명 선정 후 월 2회, 8개월 간 생필품 꾸러미 전달 - 행복기동대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가정에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위기 징후 조기 발견

2] 라이프 레시피

대상	미혼 청년 1인가구	
사업 내용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요리 교실: 1인가구 자립방상 프로젝트 - 청년 칵테일·홈바 클래스 : 문화·소통형 프로그램
	예비부부	- 예비부부·결혼준비 교육 : 현실 결혼 준비학교

→ 일상생활 역량강화 요리교실 및 예비부부 교육 운영

Ⅱ.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시군	사업명	대상	사업비 (국:도:시군)
영양	‘가치같이’돌봄 서비스 사업	1인 가구 등	2,000만원 (군비 100)
대상	1인 가구 및 기타 가구(산모 등)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 환자 중 수술, 중증질환, 골절 치료 후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사지원, 건강지원, 신체수발, 안전관리 등 - 주 3회, 2시간/회당(최대 2개월까지), 가구별 최대 100만원 이내(현물서비스) 		
영덕	나 혼자 산다(나·혼·산) IN 영덕	청년 1인가구	730만원 (31:10:59)
대상	청년 1인가구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교육 : 반려견을 매개로 한 정서 안정 및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 이미지메이킹 : 자기이해·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요리 : 생활 자립·건강 관리 중심 - 자격증(시활용 마스터) : 경제적 자립·취업 역량 강화 중심 		
→ 생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1인 가구 자기개발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청도	청년월세지원사업	미혼 청년 1인가구	2,800만원 (군비 100)
대상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세대주		
사업 내용	-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총 240만원 지원(생애 1회)		
→ 청년층 주거 안정을 통한 정년 체류 및 지방소멸 대응			
칠곡	혼자가 아닌 나	중장년 1인가구	150만원 (50:15:35)
대상	40대~60대의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사업 내용	- 사진, 심볼 키링 제작, 피크닉, 엽서, 영화관람, 소셜다이닝 등		
→ 문화·여가·심리·정서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실시			
예천	고독사·사회적고립 사업계획	1인가구	4,700만원 (43:30:27)
대상	고독사 우려가 있는 1인가구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고위험 1인가구 발굴 및 실태조사 - AI 돌봄스피커, 한전 안부살핌서비스 등 ICT 기반 안부확인 사업 운영 - 주거환경개선, 생필품 및 소액현물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 - 설·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행복기동대(284명) 활용 상시 안부확인 및 예방 캠페인 실시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자료 : 시군 1인 가구 지원사업 우수사례(경상북도 내부자료, 2026)

3) 타지자체의 우수 사례

가.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정책

- 1인가구가 163만에 달하는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복지실 내의 돌봄고독 정책관산하에 1인가구지원과를 두고 서울시 1인가구 정책을 수립 시행함
 - 1인가구 지원과의 구성은 1인가구 정책팀(6명)과 1인가구 협력팀(5명), 생활 지원팀(5명) 등 3개 팀에 과장 1명, 팀장 3명 등 총 17명임
- 2025년 서울시 1인가구 시행계획에 따르면, ‘외롭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3개 분야 34개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함
 - 일상지원은 1인가구의 안전 문제와 함께 건강한 밥상을 통한 건강한 일상 지원, 긴급 상황시 병원 안심 동행 등 5개 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일상을 지원함
 - 자립지원은 정리수납과 경제 교육,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증계보수비 및 이사비, 월세 지원 등 일상의 삶을 유지할 역량 강화를 주목적으로 함. 특히, 서울 거주 청년의 주거 열악성을 고려해 청년 대상 정책은 보다 선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연결지원은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1인가구의 고립, 은둔, 외로움 예방 방안을 모색함. 특히, 우리 동네 펫위탁소와 같은 사업은 반려 동물과 함께 하는 1인가구의 수요를 잘 반영한 사업임

<표 II-45> 2025년 서울시 1인가구 시행계획 지원사업

분야	지원 사업
분야 1. 일상지원: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지원 및 환경조성	
	1-1. 병원안심동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등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 대상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동행 등 지원(월 10회) 1-2. 1인가구 요리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요리교실 및 소통프로그램인 ‘행복한 밥상’ 사업(25개 전 자치구) - 청년 1인가구 대상 ‘건강한 밥상’(11개 자치구)

분야	지원 사업
	<p>-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연계한 요리교실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생활요리교육</p> <p>1-3. 안심장비 지원</p> <p>- 1인가구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상</p> <p>-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으로 구성된 안심장비 지원(총 2,100여 명)</p> <p>- 1인점포 대상 ‘안심경광등’ 지원(10,000개를 지원)</p> <p>1-4. 시 기반 지능형 CCTV</p> <p>-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장소에 시 기반 지능형 CCTV* 약 1,800대를 신설, 노후 CCTV 3,300여 대 교체</p> <p>* 시 기반 지능형 CCTV : CCTV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배회, 쓰러짐, 폭행 등 객체의 10가지 이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화면에 자동으로 보여주는 시스템</p> <p>1-5. 골목길 스마트보안등</p> <p>-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 취약지역에 설치된 스마트 보안등 4,000등 추가 설치</p> <p>* 스마트보안등은 스마트폰 ‘안심이앱’과 연동되어 밝기 조절과 비상시 긴급점멸이 가능한 보안등</p>

분야 2. 자립지원: 1인가구 스스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자립역량 향상

	<p>2-1. 정리수납 컨설팅</p> <p>-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활용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리수납 교육·챌린지를 신규 운영</p> <p>- 고립·은둔 고위험군과 저장강박이 의심되거나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자 대상으로 정리수납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일부영역 정리수납 지원</p> <p>2-2. 1인가구 맞춤형 경제교육</p> <p>-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재테크, 신용관리 등의 재무관리 교육과 경력설계, 재취업 등의 은퇴설계 교육 진행</p> <p>→ 일부 교육 후 재무설계 컨설팅, 취업 컨설팅 등 개별 상황에 맞는 1:1 상담 제공</p> <p>*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서민금융진흥원, KB금융공익재단,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와 협력</p> <p>2-3.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p> <p>-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집보기 현장동행, 전월세 계약상담과 지원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 지원</p> <p>- 사전예약을 통해 야간(~20:00)과 토요일에도 이용 가능</p> <p>2-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p> <p>-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19~39세) 대상</p>
--	---

분야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생애 1회) <p>2-5. 청년 월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중위소득 150%이하, 보증금 8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 청년(19~39세) 대상(주거취약계층 우선 지원:청년 한부모가족 및 청년 전세사기피해자,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39세→42세) 지원 연장)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p>*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0%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천원 단위 이하 절사)인 경우 신청 가능.</p>

분야 3. 연결지원: 1인가구의 고립·은둔·외로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결 강화

	<p>3-1.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상담, 사회적관계망 등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p>* 60세 이상의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의 사회적 활동 확대를 지원하고자 올해부터는 중장년 프로그램 이용연령 상한을 3세 연장·조정(40~64세→40~67세).</p> <p>3-2.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을 위해 공동식사를 지원하는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을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운영 <p>3-4.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로 구성된 주민모임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와 자조모임 프로그램(1인가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 상호 돌봄체계 구축) <p>3-5. 우리동네 펫위탁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등 장기 부재 시 반려동물을 돌보기 힘든 취약계층 대상 - 1인가구의 경우 반기별 마리당 최대 5일까지 위탁보호 지원(2026년 17개 자치구 총 38개 위탁소로 확대·운영) <p>3-6. 우리동네돌봄단·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돌봄단의 전화·방문 안부확인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이를 통해 고독사 저위험군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의 안전을 상시 확인 <p>*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인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고독사 고·중 위험군을 평</p>
--	--

자료: 서울복지포털(<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9422>)

-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을 위해 시작한 ‘서울마음 편의점’, 중장년 남성 대상 프로그램 개설,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이동형 서울 마음편의점’ 운영으로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위한 지원 확대
 -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외로움·고립감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4개소에서 시작한 ‘서울마음 편의점’ 사업 상반기 19개소로 확대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복지관·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함. 또한, 서울 마음편의점 10개소에 ‘중장년 남성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신설함(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

사업 대상

- 특화 프로그램은 12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로 외로움을 진단, 대상군으로 선정되면 참여가능함
- 사업 내용: 외로움 자가 진단, 전문가 및 고립 경험 당사자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자유로운 소통 공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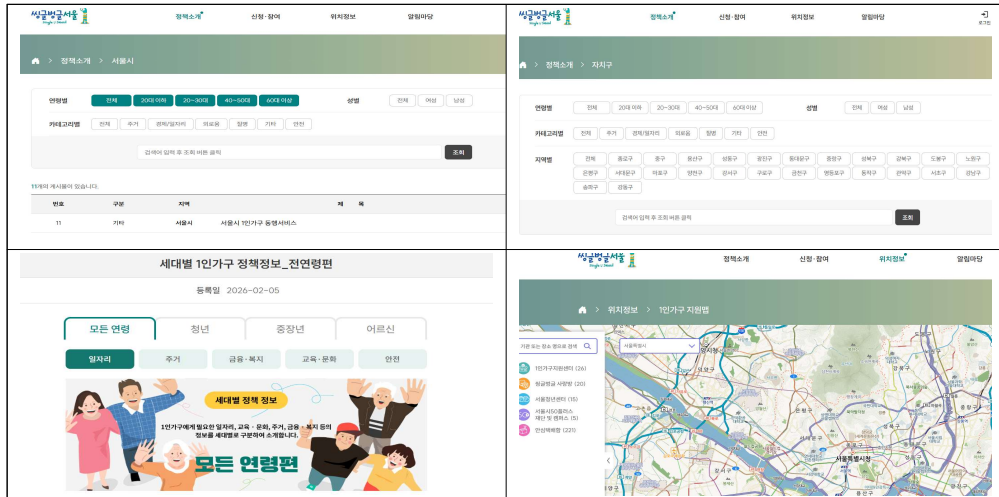


*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자료: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서울마음편의점’ 운영 확대! 19개 지점별 .. : 네이버블로그)

- 서울시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과 서울시 1인가구센터 운영을 통해 1인가구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음. 25개 자치구별로 26개 1인가구지원센터(광진구 1센터/ 2센터 운영)를 통해 서울 거주 또는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1인가구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포털을 통해 1인가구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그림 II-16] 서울시 1인가구 포털

-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은 위의 그림과 같이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라 연령별(전체/20대 이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성별, 카테고리별(전체/주거/경제·일자리/외로움/질병/기타/안전)로 구분해 검색이 가능함
- 특히, 세대별 1인가구 정책 정보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주요 지원 사업 정보와 연계 기관 정보를 제공함

<표 II-46>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내 연령대별 1인가구 지원사업

구분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	교육·문화	안전
모든연령	4	21	28	6	3
청년	11	6		13	12
중장년	1		3		3
어르신	2	5	15		

-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은 전반적으로 안전 환경과 병원 동행 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 지원과 전월세 계약 등 주거 안심, 정리 수납 등 생활 역량 강화, 소셜다이닝과 관계망 형성 등 고립예방과 고독사 방지 등의 방향성을 보임. 특히, 청년은 주거 지원 등 독립 생활 역량 지원을, 정책 사각지대의 중장년은 정리수납·혼밥탈출·문화체험 등 생활 밀착의 일상생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나.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

- 경기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내에서 1인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도 상에서는 1인가구 지원과 지원사업, 1인가구 시군 자유주제 제안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4명이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기도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43개의 지원 사업을 운영함
 - 경기도의 1인가구 정책은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3대 목표(함께 사는 삶, 어울려 사는 건강함 삶/ 잘사는 삶, 누구나 누리는 삶의 질/ 마음 편한 삶,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목표로 수요 맞춤, 사업운영 내실화, 신규·협업 사업 발굴 등을 추진 목표로 함
 - 2026년 시행 계획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은 43개 사업 운영을 목표로 제시함.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9개 실국, 17개 부서와 함께하며,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13개, 아동돌봄과 2개, 여성비전센터 1개 등 총 16개가 여성가족국 사업이며, 그 외 복지국 사업이 10개 등임
 - 시행계획 속 1인가구 타케팅 사업은 가족정책과가 운영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1인가구 생활꿀팁 바꾸니,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건강돌봄 프로그램, 식생활 개선 다이닝, 금융 안전교육, 온가족보듬사업 내 1인가구 교육·문화 프로그램, 시군 1인가구 제안사업 지원 강화(자유주제 제안사업) 등의 사업과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운영,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경기도 1인가구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등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관련 11개 사업과 여성비전센터가 운영하는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지원과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의 저소득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등이 있음

<표 II-47> 2026년 경기도 1인가구 시행계획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1	중장년 수다살롱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2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획과
3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5	위기이웃발굴 지원사업	복지국 복지사업과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국 노인복지과
7	노인상당사업	복지국 노인복지과
8	무연고 사망자 지원	복지국 노인복지과
9	AI 노인말벗서비스	복지국 노인복지과
10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획과
11	365 안부확인 AI 케어	시국 시프런티어사업과
12	1인가구 생활꿀팁 바꾸니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13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14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15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획과
16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17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복지국 노인복지과
18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19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복지국 복지사업과
20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21	건강돌봄 프로그램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22	식생활 개선 다이닝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23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획과
24	재도전론	복지국 복지정책과
25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및 컨설팅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26	금융 안전교육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27	어르신 인생노트	복지국 노인복지과
28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사회혁신경제국 공동체지원과
29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지원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30	은가족보듬사업 내 1인가구 교육·문화 프로그램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31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32	시 유방암 무료 검진 서비스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3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복지국 복지정책과
34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획과
35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36	저소득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37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38	저소득 주인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39	1인가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지원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40	시군 1인가구 제안사업 지원 강화(자유주제 제안사업)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41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운영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42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43	경기도 1인가구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자료: 경기도 1인가구 포털(<https://www.gg.go.kr/1ingg/main.do>)

- 경기도는 ‘시군 시군 1인가구 제안사업 지원 강화(자유주제 제안사업)’ 운영을 통해 시군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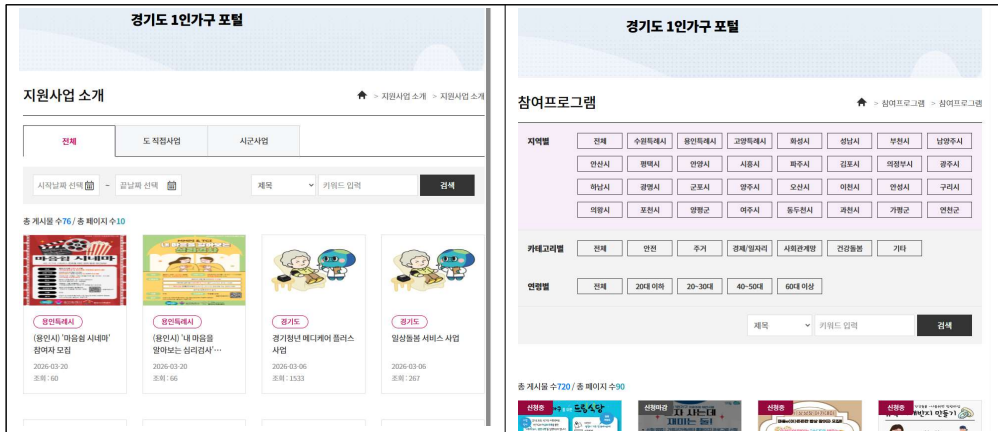
사업 대상: 도내 1인가구

사업 내용: 시군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시군별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군명	프로그램명	시군명	프로그램명
수원시	1인가구 워킹&러닝 페스티벌	광명시	1인가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용인시	몸과 마음 돌봄, 심리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군포시	찾아가는 1인가구 정리수납
화성시	1인가구 페스타"i am 1인가구"	오산시	건강 돌봄 프로그램
성남시	1인가구 축제	이천시	청년 힐링캠프 등
남양주시	1인가구 맞춤형 영양플러스(중장년기, 노년기)	구리시	1인가구 여가활동 지원 및 공방 체험 프로그램
안산시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한 교육 및 체험	의왕시	1인가구 심리건강 지원사업(개인 및 집단상담)힐링 프로그램
안양시	1인가구 자립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등	양평군	1인가구 여가생활지원
시흥시	소가구, 공예품 만들기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여주시	1인가구 자기돌봄 프로그램
파주시	1인가구 생애주기별 심리정서 지원 및 공예 체험	동두천시	1인가구 사회적으로립지원 예방프로그램
김포시	1인가구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싱글레터(Single letter)'	과천시	'혼자서도 잘해요'우리집 간단 집수리 &정리수납 교육
광주시	1인가구 생애주기별 1인가구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가평군	1인가구 생애주기별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자료: 경기도 1인가구 포털(<https://www.gg.go.kr/1ingg/main.do>)

- 경기도는 경기도 1인가구 포털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1인가구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함. 또 경기도 직접사업과 각 시군 운영 사업 홍보와 소개하고 검색 가능하도록 구성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



[그림 II-17] 경기도 1인가구 포털

- 경기도의 1인가구 정책과 제도, 각 시군 제도 등을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음
- 또한 각 시군이 운영하는 참여프로그램에 대해 연령별(전체/20대 이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카테고리별(전체/안전/주거/경제·일자리/사회관계망/건강돌봄/기타)로 구분해 검색이 가능함. 또한 참여 프로그램을 포스터 형식으로 제공하고 신청중/신청마감/접수 예정 표시를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그림 II-18] 경기도 시군 운영 프로그램

4. 소결

- 본 장은 경북 1인가구의 현황과 경북 1인가구 실태,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북도, 타지자체의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보편적 가구 형태로 변화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기초 변화를 파악해 봄.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경북 1인가구 현황

- 경북 1인가구 현황은 연령대별,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경북 1인가구의 경제 활동 및 주거와 생활 등 통계적 의미성이 있는 자료를 분석해 경제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봄. 또한 시군별 1인가구의 연령층별 현황 분석을 통해 시군별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함
- 경북 1인가구 인구학적 특성
 - 2024년 기준 경북의 1인가구 비중은 38.9%로, 전국 평균(36.1%)보다 2.8%p 높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인가구 수와 지역 내 비중 모두 전국 5번째로 높은 보편 가구의 형태임
 - 경북 1인가구의 연령 3계층별 가구수를 보면 65세 이상이 167,622가구로 가장 많고, 중장년층(40~69세)이 167,549가구로 다음순이며, 39세 이하가 121,982가구임. 연령대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70세 이상(122,719가구, 26.8%)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7.0%p 높고 20~30대 청년층 비중(25.9%)은 8.7%p 낮아 경북 1인가구의 고령화 현상을 뚜렷히 드러냄. 성별로는 전국 대비 20대 여성 비중(11.2%)은 낮은 반면, 60세 이상 여성 비중은 매우 높게(70세 이상 40.4%, 60대 20.3%) 나타남
- 경북 1인가구 사회·경제적 특성
 - 경북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5%이며, 남성(68.0%)이 여성(43.8%)보다 24.2%p 높음.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6.4%로 가장 높고, 40대(82.5%), 20대(61.3%) 순이며, 직업군은 장치·기계조작/조립직(16.9%)이 가장 많으나, 성별로 보면 남성은 조립직(23.3%), 여성은 서비스직(23.8%) 비중이 높음

- 경북 1인가구의 형성 사유는 본인 직장(30.8%)이 가장 큰 이유이며, 가족 사별(23.4%), 가족 문제(19.1%), 독립 생활(18.5%) 순임. 하지만,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전 연령에서는 '직장'이 주요 원인이며, 60대 이상은 '사별'과 '가족 문제'의 응답이 높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직장'과 '독립', 여성은 '사별'과 '가족 문제'를 주요 사유로 꼽음. 즉 60대 이상과 여성은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1인가구 구성 비중이 높음

○ 시군별 1인가구 특성을 통해 본 1인가구 거주 유형

- 경북 22개 시군의 성비를 통한 성별 집중도와 연령별 집중도를 통해 청년 남성 집중, 중장년 남성 집중, 균형, 고령 여성집중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음

<표 II-48> 경북 1인가구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거주 유형

구분	특징
청년 남성 집중	청년 1인가구 비율이 42% 이상에, 성비도 107이상으로 남성 1인가구가 많음 구미와 경산과 같은 대학 및 산업 도시
중장년 남성 집중	중장년 인구 비중이 40% 내외이며, 성비는 100 이상으로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많음 포항과 칠곡과 같은 제조업 및 물류 산업지역 울릉 및 영천과 같은 이주 노동자 및 남성 단신 부임 지역 등 남성 일자리 많은 지역
균형	비교적 고른 연령 분포와 성비 90 내외로 고령 여성 집중이 덜한 지역 안동, 김천, 경주 등의 지역 거점 시지역
고령 여성 집중	높은 노년층 비중으로 고령 여성 비중이 특히 높은 지역 때문에 성비가 낮게 나타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성비 90 이하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등

2) 경북 1인가구 실태

- 경북 1인가구 실태는 2024년 발간된 「경상북도 1인가구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 수립을 중심으로」(배옥현)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구성함. 배옥현 연구의 실태 조사 일부를 추출해 발췌 및 원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경북 1인가구 실태와 정책 수요를 연령대별, 거주지별, 연령별 거주지(시/군) 교차분석을 통해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함. 2024년 실태 조사의 설문 대상자는 총 456명으로 여성은 238명(52.2%), 남성은 218명(47.8%)이며, 연령대는 청년층(20~39세)이 32.9%, 중장년층(40~64세)이 32.9%, 노년층(65세 이상)이 32.9%이며, 거주지는 시지역(77.6%)이 군지역(22.4%)로 실제 1인가구의 시군 분포와 유사함
- 경북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 연령별 경북 1인가구의 주거 및 거주지, 경제활동, 일상 생활 실태에 대한 1, 2 순위 응답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Ⅱ-49> 연령별 생활 실태

구 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주거 및 거주지	거처 종류	아파트(54.0%)> 기타(34.1%)	아파트(57.5%)> 기타(24.3%)	단독주택(76.5%)>아파트(12.5%)
	점유형태	자가(37.3%)>월세(35.3%)	자가(62.7%)>월세(19.0%)	자가(77.1%)>월세(17.0%)
	거주시 선택시 중요 요소	직장·학교 인접(39.3%)>거주 경험/주거비용	직장·학교 인접(27.5%)>주거비용(20.3%)	거주 경험(37.9%)>가족·지인 인접(15.0%)
	거주 주택 만족도	40-64세(3.41점)>39세 이하(3.37점)>65세 이상(3.15점)		
	주거 환경개선에서 바라는 점	열악한 주거 시설(46.7%)>주거 비용 부담(26.7%)	열악한 주거 시설(42.9%)>주거 비용 부담(21.4%)	열악한 주거 시설(61.5%)>주거 비용 부담(23.1%)
경제활동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44.7%)>임시근로(17.3%)	상용근로자(50.3%)>실업자(13.1%)	경제활동 안 함(62.1%)>공공근로/노인일자리(각 10.5%)
	월 평균소득	40-64세(284.4만 원)>39세 이하(218.7만 원)>65세 이상(84.9만 원)		
	주된 수입원	근로소득(73.4%)>가족 지원(7.3%)	근로소득(79.1%)>개인연금/퇴직금(각 7.2%)	정부 지원(40.4%)>근로소득(26.1%)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에 대한 있음	65세 이상(51.0%)>40-64세(47.1%)>39세 이하(38.0%)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구 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일상생활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취업(34.0%)>독립 편의(30.7%)	취업(35.3%)>독립 편의(30.7%)	이혼/별거/사별(83.7%)
	구성하기를 원하는 가구·거주형태	지금처럼 혼자(35.3%)>결혼하여 함께(34.0%)	원래 가족(35.3%)>결혼하여 함께(24.2%)	지금처럼 혼자(67.3%)>원래 가족(14.4%)
	생활 만족도	39세 이하(3.75점)>40~64세(3.46점)>65세 이상(2.84점)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안정적인 소득(58.7%)>일상생활 유지(18.7%)	안정적인 소득(54.9%)>일상생활 유지(15.7%)	안정적인 소득(36.6%)>일상생활 유지(28.1%)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	경제적 불안감(34.7%)>위급 시 대처 어려움(25.3%)	경제적 불안감(30.1%)>위급 시 대처 어려움(28.8%)	위급 시 대처 어려움(41.2%)>경제적 불안감(38.6%)
	도움 희망 대상(정신적)	가족/부모(50.7%)>친구/동료(22.7%)	가족/부모(43.1%)>친구/동료(22.9%)	가족/부모(25.5%)>공공상담기관(17.6%)
	도움 희망 대상(경제적)	가족/부모(44.0%)>국가/지자체(26.7%)	국가/지자체(39.9%)>가족/부모(32.7%)	국가/지자체(44.4%)>가족/부모(30.7%)
	소통하는 친구나 가족 있음	39세 이하(91.3%)>40~64세(86.3%)>65세 이상(78.4%)		

- 거주지(시/군)별 경북 1인가구의 주거 및 거주지, 경제활동, 일상 생활 실태에 대한 1, 2 순위 응답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II-50> 거주지별 생활 실태

구 분	군	시	
주거 및 거주지	거처 종류	단독(71.6%)>아파트(16.7%)	아파트(48.4%)>기타(26.2%)
	점유형태	자가(84.3%)>전세(9.8%)	자가(52.0%)>월세(29.1%)순
	거주시 선택시 중요 요소	거주 경험(30.4%)>여가·의료시설 접근성(15.7%)	직장·학교 인접(27.7%)>거주 경험(20.9%)
	거주 주택 만족도	시지역(3.32점)>군지역(3.28점)	
	주거 환경개선에서 바라는 점	열악한 주거 시설(53.8%)>교통 불편/주거 비용 부담(각 15.4%)	열악한 주거 시설(52.4%)>주거 비용 부담(26.2%)
경제활동	근로 형태	경제활동 안 함(39.2%)>상용근로자(16.7%)	상용근로자(36.4%)>경제활동 안 함(26.3%)
	월 평균소득	시(204.6만 원)>군(165.5만 원)	
	주된 수입원	근로소득(52.0%)>개인연금/퇴직금(각 27.5%)	근로소득(61.6%)>정부 지원(20.9%)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에 대한 있음	시(48.0%)>군(36.3%)	

구분	군	시
생활 만족도	시(3.42)> 군(3.12)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안정적인 소득(41.2%) >신체/정신적 건강(31.4%)	안정적인 소득(52.5%) >일상생활 유지(21.2%)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	위급 시 대처 어려움(44.1%) >경제적 불안감(18.6%)	경제적 불안감(39.0%) >위급 시 대처 어려움(28.2%)
도움 희망 대상(정신적)	가족/부모(35.3%)>이웃주민(15.7%)	가족/부모(41.0%)>친구/동료(22.6%)
도움 희망 대상(경제적)	가족/부모(36.3%)>국가/지자체(32.4%)	국가/지자체(38.4%)>가족/부모(35.6%)
소통하는 친구나 가족 있음	군(87.3%)>시(84.7%)	

- 연령대별 및 거주지별 교차분석에 대한 경북 1인가구의 주거 및 거주지, 경제활동, 일상 생활 실태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Ⅱ-51> 연령 및 거주지별 생활 실태 교차분석

구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주거 및 거주지	거처 종류	아파트(55.8%)	단독(42.9%)	아파트(60.8%)	아파트(42.9%)	단독(61.3%)	단독(100.0%)
	점유형태	월세(37.5%)	자가(50.0%)	자가(60.8%)	자가(71.4%)	자가(63.4%)	자가(98.3%)
	거주시 선택시 중요 요소	직장·학교 (40.4%)	직장·학교/거주 경험(지역) (28.6%)	직장·학교 (40.4%)	직장·학교 (21.4%)	거주 경험 (38.7%)	거주 경험 (36.7%)
	거주 주택 만족도	39세 이하는 군(3.5)>시(3.35)이며, 40~64세도 군(3.43)>시(3.41), 65세 이상도 군(3.17)>시(3.14)					
경제활동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47.8%)	경제활동 안함(42.9%)	상용근로자 (49.6%)	상용근로자 (53.6%)	경제활동 안함(66.7%)	경제활동 안함(55.0%)
	월 평균소득	40~64세 군(326.4만원)>40~64세 시(274.9만원)>39세 이하 시(222.7만원)>39세 이하 군(180.1)> 65세 이상 군(87만원)>65세 이상 군(83.6만원)임					
	주된 수입원	근로소득 (77.2%)	근로소득 (35.7%)	근로소득 (76.0%)	근로소득 (92.9%)	정부지원 (72.0%)	개인연금/퇴직금 (41.7%)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에 대한 있음	65세 이상 시(66.7%)>40~64세 시(57.1%)>40~64세 군(44.8%)>39세 이하 시(38.2%)>39세 이하 군(35.7%)>65세 이상 군(26.7%)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구 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시	군	시	군	시	군	
일상생활	생활 만족도						39세 이하 시(3.78)>40~64세 군(3.71)>39세 이하 군(3.50) >40~64세 시(3.41)>65세 이상 시(2.89)>65세 이상 군(2.75)
	혼자 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안정적소득 (58.8%)	안정적소득 (57.1%)	안정적소득 (53.6%)	안정적소득 (60.7%)	안정적소득 (41.9%)	신체/정신적 건강(50.0%)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	경제적불안감 (35.3%)	경제적불안감 (28.6%)	경제적불안감 (32.0%)	위급시 대처 어려움(32.1%)	경제적불안감 (53.8%)	위급시 대처 어려움(55.0%)
	도움 희망 대상(정신적)	가족이나 부모님(50.7%)	가족이나 부모님(50.0%)	가족이나 부모님(44.0%)	가족이나 부모님(39.3%)	가족이나 부모님(22.6%)	가족이나 부모님(30.0%)
	도움 희망 대상(경제적)	가족이나 부모님 (43.4%)	가족이나 부모님 (50.0%)	국가나 지자체 (40.0%)	국가나 지자체 (39.3%)	국가나 지자체 (51.6%)	가족 (36.7%)
	소통하는 친구나 가족 있음	39세 이하 시(91.9%)>65세 이상 군(91.7%)>40~64세 시(88.0%) >39세 이하 군(85.7%) >40~64세 군(78.6%) 65세 이상 시(69.9%)					

○ 경북 1인 가구의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요구도

- 연령별 경북 1인가구의 영역별 정책의 중요도와 각 영역 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도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요구 1, 2 순위 응답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함

<표 II-52> 연령별 정책 요구도

구 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영역별 지원 정책	경제/일자리(4.15) >안전(4.03)	경제/일자리(4.21) >안전(4.03)	건강/돌봄(4.21) >경제/일자리(4.07)
주거 안정 정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32.7%)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인하(28.0%)	임대주택 공급 확대(31.4%)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 인하(23.5%)	임대주택 공급 확대(35.9%) >주택 시설 보수 지원(22.2%)
안전 정책	주택 주변 환경 개선(36.0%) >주택 보완장치 강화(25.3%)	주택 주변 환경 개선(47.1%) >주택 보완장치 강화(27.5%)	위급 시 비상벨/알림 시스템(39.2%) >주택 주변 환경 개선(24.2%)
경제/일자리 정책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31.3%) >전공 및 전문성을 반영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17.3%)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28.1%)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17.6%)	공공근로사업(50.3%)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지원(17.6%)

II.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구 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건강/돌봄 지원 정책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 (21.3%)>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18.0%)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 (24.8%)>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23.5%)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 (26.1%)>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12.4%)
여가/사회적 관계망 정책	관계망 형성 지원(24.9%)> 문화/여가생활 활동지원(21.3%)	관계망 형성 지원(25.5%)>자원봉사, 사회참여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13.1%)	문화/여가생활 활동 지원(20.3%)>관계망 형성 지원(15.7%)
제도/인식 정책	전연령대:가족지원센터의 예산사업 확대>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 시민 공모		

- 거주지역별 경북 1인가구의 영역별 정책의 중요도와 각 영역 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도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요구 1, 2 순위 응답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함

<표 II-53> 거주지별 정책 요구도

구 분	시	군
영역별 지원 정책	경제/일자리(4.17)>건강/돌봄(4.05)	안전(4.15)>건강/돌봄(4.09)
주거 안정 정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37.9%)>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 인하(22.0%)	주택 시설 보수 지원(25.5%)>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 인하(20.6%)
안전 정책	주택 주변 환경 개선(35.3%)>주택 보완장치 강화(23.2%)	주택 주변 환경 개선(37.3%)>위급 시 비상벨, 긴급 대피 및 알람 등(34.3%)
경제/일자리 정책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26.0%)>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19.5%)	공공근로사업(47.1%)>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21.6%)
건강/돌봄 지원 정책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20.9%)>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18.9%)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35.3%)>건강, 안전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시스템 마련(14.7%)
여가/사회적 관계망 정책	관계망 형성 지원(21.8%)>문화/여가생활 활동 지원(22.9%)	관계망 형성 지원(21.6%)>자원봉사, 사회참여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 확대(18.6%)
제도/인식 정책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사업 확대(35.3%)>1인가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설치(16.1%)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사업 확대(50%)>1인가구 인식개선 캠페인(13.7%)

○ 경북 1인 가구의 생활 실태를 통해 볼 때, 연령별, 거주지역별 현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음

<표 II-54> 생활 실태의 연령 및 거주지별 인식차와 정책적 함의

구분	주요 특징과 현황	정책적 함의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구인 구직 정보 제공 등 자립생활 지원 필요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거주 및 자가 비중이 높으나 실직 불안과 원가족과 함께 살고픈 욕구 등 삶의 불안족도가 높음 경제/ 일자리 정책과 함께 주택 주변 환경 개선과 같은 안정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음 특히 군지역의 중장년층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과 사회참여를 통한 외로움 및 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강화 필요 주택 주변 환경 개선 등 안정 정책 요구
노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돌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수요가 매우 높음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군지역에서 더 두드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층이 지역사회 속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돌봄 강화 필요
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악한 주거 환경과 함께 주거 비용 부담 큼 군지역보다 생활 만족도는 높으나, 경제적 어려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안정 대책과 일자리 지원 등의 정책 필요
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 및 단독 거주 비율 높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 큼 시지역에 비해 신체/정신적 건강과 위급시 대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큼 또한 시지역에 비해 이웃 주민에 대한 의존도 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 돌봄 강화가 요구됨

→ 때문에 도농간 차별화된 주거 지원 정책과 경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청년의 자립과 독립생활 지원, 중장년의 경제, 사회적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원, 노년층이 지역 사회 속에서 일상을 보낼수 있는 지원 정책이 요구됨

○ 1인가구 제도/정책에 대한 응답에서, 연령별, 거주지역별 현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음

<표 Ⅱ-55> 제도/정책에 대한 연령 및 거주지별 인식차와 정책적 함의

구분	주요 특징과 현황	정책적 함의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일자리와 안전 분야 지원 정책 요구 큼 •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요구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활동 지원 및 안전 정책 필요 • 임대 주택 등 주거 안전 정책 필요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주변 환경 개선 요구 큼 •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요구 큼 • 중장년층은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 요구 뚜렷함 	
노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돌봄 분야 지원 정책 요구 큼 • 위급시 비상벨/알림 시스템 요구 큼 • 공공근로 사업 요구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문제에 대한 요구 큼 • 경제활동에 공공 의존성 큼
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한 요구 큼 •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 • 군에 비해 주택 보안 장치 강화 요구 큼 • 정책 접근성 및 효율적인 정보 전달에 대한 요구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안정 뿐 아니라 안심 주거에 대한 요구가 뚜렷해 1인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 필요 • 1인 가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설치 등 디지털 활용 정책 접근성 강화
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 비해 주택 시설 보수 지원 요구 큼 • 안전부문에서는 시에 비해 위급시 비상벨, 긴급 대피 및 알림 등 요구 큼 • 군지역보다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지역 대상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주거 지원 제도 필요함 • 위급 상황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1인 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 또한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제공과 관계망 형성 지원은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높은 정책이며,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사업 확대와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 시민 공모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1, 2 순으로 응답해 시군에서 1인 가구 사업을 주체가 되는 거점 기관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시민 공모에 대한 요구를 통해 현재의 1인가구 정책이 도민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드러냄

3)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제도

- 중앙 및 경북, 타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제도와 정책의 흐름을 개관함
 -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2026년 현재 1인가구 사업은 온가족 보듬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 할 수 있음. 하지만, 2026년 상반기 성평등 가족부가 1인가구 대응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1인가구 특화 서비스 모델 프로그램을 구성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2024년 「제 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를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2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여성 가족과 주도 사업은 9개이며, 타부서와 협력 사업이 3개임. 여성가족과 주도 및 협력 사업 12개 중 가족센터와 연계된 사업이 9개로 확인되어 가족센터가 경북도 1인가구 사업의 거점 기관임을 파악할 수 있음
 - 타지자체의 사례로는 서울 1인가구 포털과 서울 1인가구 지원센터, 서울마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조직 구성과 사업을 개관하고, 경기도 1인가구 포털을 운영하고 ‘시군 1인가구 제안 사업 지원강화(자유주제 제안 사업)’과 ‘온가족보듬사업 내 1인가구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여성1인가구 안심 패키지 보급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조직 구성과 사업을 개관함. 서울은 17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통해 센터 및 마음 편의점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포털을 통해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접근성을 향상 시킴. 경기도는 개별 조직은 아니지만 4명의 담당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특화 사업 운영 지원과 포털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Ⅲ. 인식 및 정책 요구도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Ⅲ. 인식 및 정책 요구도 분석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2024년 기준, 경북의 1인가구는 38.9%로 가장 많은 가구 형태임. 1인가구는 연령별 성별로 1인가구 형성 과정의 차이를 드러낼 뿐 아니라 거주 지역별 욕구 차이도 뚜렷함. 이에 본연구는 1인가구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 사업 현황과 운영 실태, 애로점과 요구사항 등을 조사를 통해 1인가구 요구도를 파악해, 시군 중심으로 수행할수 있는 사업 발굴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설문조사: 경북 22개 시군 1인가구 사업 운영 주체인 가족센터 대상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질문지 구성해 설문조사
 - 면담 조사: 우수 실행기관
- 조사기간 : 2026. 4. 13. ~ 6. 10.
- 조사 방법

22개 시군 가족센터 1인가구 사업 담당자 및 센터장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1인가구 사업의 애로점 및 필요 정책 등 개방형 질문 포함



면담조사 실시: 1차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 기관 대상 센터 운영 사업 구체적 확인 및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수요 확인

- 조사 내용
 - 1차 서면 질문지 배포, 2차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면담 및 면접 조사

<표 Ⅲ-1> 조사 내용 구성

대상	조사내용
1인가구 사업 실행기관	- 일반현황 : 연령, 지역, 경력 등 - 1인 가구 사업 현황(3년간) :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사업 성과, 이용자의 만족도 및 피드백 등 - 1인가구 사업이 어려운 이유(사업이 없는 경우 하지 않는 이유) - 1인가구 사업의 애로점과 필요 정책,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 사업 제안 등

2. 조사결과

1) 조사 대상 기관

- 경북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가족 센터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각 지를 배포·조사함. 시군 가족센터의 1인가구 사업은 필수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센터별로 0개 또는 1~3개 가량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자 또는 센터장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음. 이에 총 17개 센터에서 총 29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센터장 4명, 사업 운영 실무자 25명임. 응답한 17개 센터 중 군지역 센터가 8개소, 시지역 센터가 9개소임. 이후 1차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 사례 및 1인가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사례 구체화와 지역 여건과 현황 등을 추가 조사함

<표 Ⅲ-2> 조사 참여 기관

센터명	면담자	운영주체	종사자수	비고
A	센터장+실무자	위수탁	24명	통합센터('21)
B	실무자	위수탁	16명	통합센터('16)
C	실무자	위수탁	32명	통합센터('19)
D	실무자	위수탁	31명	통합센터('21)
E	실무자	직영	8명	통합센터('19)
F	실무자	위수탁	34명	통합센터('14)
G	실무자	위수탁	23명	통합센터('16)
H	센터장+실무자	위수탁	48명	통합센터('18)
I	센터장+실무자	위수탁	25명	통합센터('16)
J	실무자	위수탁	6명	통합센터('16)
K	실무자	위수탁	12명	통합센터('20)
L	실무자	위수탁	31명	통합센터('16)
M	실무자	위수탁	30명	통합센터('16)
N	실무자	위수탁	22명	통합센터('16)
O	실무자	위수탁	31명	통합센터('16)
P	실무자	직영	33명	통합센터('19)
Q	센터장+실무자	위수탁	9명	통합센터('26)

* 종사자 등 현황은 2026년 1월 기준이며, 경북도 내부 자료를 참조함

2) 1인가구 대상 사업 분석

- 경북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가족 센터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해 3년간의 1인가구 사업 현황을 조사함. 조사 결과 확인된 1인가구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Ⅲ-3> 경북 시군 가족센터 1인가구 사업 운영 현황(2023~2025)

센터명 (시/군)	사업명	사업내용							
A (군)	통기타 인트로	대상:중장년 1인가구 내용:통기타수업 및 동아리 활동(성과보고회 공연)							
	견이로운 간식/ 내손으로 만드는 펫웨어	대상:반려견을 키우는 1인가구 10명 대상 내용:애완견 간식을 만드는 방법 배우고, 반려견의 옷을 직접 만들어 소통하는 프로그램							
	들꽃향기 천아트	대상:중장년 1인가구 내용:천아트를 통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품완성							
	내면여행 타로호	대상:청년 1인가구 내용:타로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기							
	1인가구생활백서	대상:1인가구 내용:고독·고립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돌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지원							
	천일이의 소확행	대상:1인가구 내용:특별한 날 또는 특정 계절에 맞춰 나에게 주는 선물을 직접 만들어보며 자존감을 높이고 힐링							
B (시)	1인가구야 놀러와	대상:1인가구 내용:교육 및 문화체험, 자조모임 지원							
	1인가구 형성지원사업	대상:1인가구 내용:1인가구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친밀감 향상과 문화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1인가구에 필요한 교육 및 체험	대상:1인가구 내용:취미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C (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 “혼자살롱(2023)”	대상: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 및 세대통합형 참여자(지역민, 원가족, 지인 등이 함께 참여) 내용: 소셜다이닝, 무비데이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자기관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자립역량강화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24, '25)	대상:1인가구 내용(2025년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30%;">1(한)잔의여유</td> <td>커피교육및체험활동</td> </tr> <tr> <td>소셜다이닝</td> <td>베이킹 체험 및 공유주제를 바탕으로 정보나눔</td> </tr> <tr> <td>1(일)어버린</td> <td>정서적 안정을 위한 제감예술명상과</td> </tr> <tr> <td>마음을찾아서</td> <td>이완요가</td> </tr> </table>	1(한)잔의여유	커피교육및체험활동	소셜다이닝	베이킹 체험 및 공유주제를 바탕으로 정보나눔	1(일)어버린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제감예술명상과	마음을찾아서
1(한)잔의여유	커피교육및체험활동								
소셜다이닝	베이킹 체험 및 공유주제를 바탕으로 정보나눔								
1(일)어버린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제감예술명상과								
마음을찾아서	이완요가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센터명 (시/군)	사업명	사업내용				
D (시)	금쪽같은 나(23, 24, 25)	대상:1인 가구(근로자) 내용:1인 가구의 생활 및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E (군)	빛이 나는 솔로	대상:65세 이상 1인 가구 내용:치매 예방교육, 노년기 집단상담, 보드게임, 보습크림 만들기, 참쌀파이 만들기 등 체험활동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				
F (시)	유쾌한 일(1)상 생활	대상: 2030세대 1인가구 내용:나만의 자산관리 교육				
	취준생 직장인 여기여기 모여라	대상: 취준생 및 직장인 1인가구 내용:스트레스 관리교육				
G (군)	1인가구 1이(이리)와!	대상:1인가구 내용:재무교육, 여가체험 프로그램				
	'반짝이는 매1'	대상:1인가구 내용:여가활동 교육				
	'일타 싱글들!'	대상:1인가구 내용:템플스테이				
H (시)	2023년 청년 중장년 사회적관계망형성지원사업	대상: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내용:심리정서지원, 일상돌봄 등				
	2024년 청년 중장년 마음돌봄 및 공동체프로그램	대상: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내용:자기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 관계점검 등, 공동체프로그램				
	2024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형성지원	대상: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내용:심리정서지원 및 사회적관계망형성 등				
	2025년 1인가구 마음돌봄 집단상담 및 공동체프로그램	대상: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내용:소그룹 집단상담 및 공동체프로그램				
I (시)	일(1)로 만난 사이 ('23, '24, '25)	대상:1인가구 내용:건강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의 장 활성화				
	청년 1인 가구 역량강화 및 정서 지원프로그램 (LOVE MYSELF/HOME SWEET HOME)	대상:1인 가구 및 독립 예정(예비) 청년 내용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LOVE MYSELF</td> <td>식생활: 요리(저당 저염 음식) 정서지원: 감정 아로마 향수 만들기 경제자립: 경제교육 안전: 호신술(주짓수)</td> </tr> <tr> <td>HOME SWEET HOME</td> <td>관리: 수납·정리 교육 기술: 공구 사용법 환경/심미: 시나몬 캔들 만들기, 선캐처 도어 벨 만들기</td> </tr> </table>	LOVE MYSELF	식생활: 요리(저당 저염 음식) 정서지원: 감정 아로마 향수 만들기 경제자립: 경제교육 안전: 호신술(주짓수)	HOME SWEET HOME	관리: 수납·정리 교육 기술: 공구 사용법 환경/심미: 시나몬 캔들 만들기, 선캐처 도어 벨 만들기
	LOVE MYSELF	식생활: 요리(저당 저염 음식) 정서지원: 감정 아로마 향수 만들기 경제자립: 경제교육 안전: 호신술(주짓수)				
HOME SWEET HOME	관리: 수납·정리 교육 기술: 공구 사용법 환경/심미: 시나몬 캔들 만들기, 선캐처 도어 벨 만들기					
청년 1인가구 문화 프로그램	대상:청년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내용:베이킹, 도자기, 터프팅 공예, 가족 공예, 글라스 공예, 목공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행					

Ⅲ. 인식 및 정책 요구도 분석

센터명 (시/군)	사업명	사업내용						
J (군)	(2023년) '일단 모여'	대상:1인가구 내용: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일상생활 역량 강화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도모						
	(2024년) '마그마힐링' <마음자리 그림 마당>	대상:1인가구 내용:만다라 워크북을 활용하여 일상적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감 완화 등 정서적 안정						
	(2025년) 청년 1인 '문화생활의 정석'	대상:청년 1인 가구 내용:도시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부족한 청년 맞춤형 문화·여가 맞춤형 프로그램(MBTI, 팝아트 등) 운영으로 정서적 회복 탄력성 강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K (군)	1인가구사업	대상:중장년(44세~59세) 내용:정리수납, 웃음치료, 생활요리 등 생활 관리 능력						
	즐거로운 여가생활	대상:청년 1인가구(30대~40대 초반) 내용:취미활동 원데이 클래스 등 소통기회 마련						
	오늘의 취미	대상:청년 1인가구(25세~49세) 내용:원데이 클래스, 혼밥혼술요리						
	1인 중장년 독거남성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밑키트 지원사업	대상:중·장년 1인 가구(15명) 내용:주 1회(총 25회) 3~4개 밑키트 지원하며 정기 방문 및 소통(복지 사각지대 중장년 남성 발굴)						
L (시)	1인가구 셀프홈케어	대상:1인가구 내용:1인가구가 필요한 청소, 세탁 등 국안별 청소방법과 공구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여 간단한 셀프 집수리 교육						
	1인가구 러닝크루 “퇴근 후 1로 모여”	대상:1인가구 내용: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형성과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운동습관을 기르는 장을마련함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형성 지원 '문화가 있는 날'	대상:1인가구 내용:1인가구 문화 향유와 건강한 문화생활 조성을 위하여 매달 1회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영화관람 문화체험 등 소감을 나누며 소통하는 문화 활동 시간						
M (시)	2030, 4050 프로젝트('23,'24)	대상:청년, 중장년 1인가구 내용(2024년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자립능력 향상</td> <td>건강한 독립을 위한 요리교실 등 기초생활교육 및 체험, 맞춤형 금융 코칭 및 영화제 등</td> </tr> <tr> <td>정서지원</td> <td>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서지원</td> </tr> <tr> <td>병원동행</td> <td>가정에서 병원 이동, 접수, 수납, 진료 동행, 약국 이용, 귀가 지원</td> </tr> </table>	자립능력 향상	건강한 독립을 위한 요리교실 등 기초생활교육 및 체험, 맞춤형 금융 코칭 및 영화제 등	정서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서지원	병원동행	가정에서 병원 이동, 접수, 수납, 진료 동행, 약국 이용, 귀가 지원
	자립능력 향상	건강한 독립을 위한 요리교실 등 기초생활교육 및 체험, 맞춤형 금융 코칭 및 영화제 등						
정서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서지원							
병원동행	가정에서 병원 이동, 접수, 수납, 진료 동행, 약국 이용, 귀가 지원							
구미는 내일(1)도 밝음('25')	대상:1인가구 내용:1인가구 자기이해프로그램, 정서 지원 및 일상생활 개선 교육과 맞춤형 문화체험활동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센터명 (시/군)	사업명	사업내용
N (군)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자조모임 '해피살롱'	대상:중장년 1인가구 내용:정기적 교류활동과 자조모임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사회적 고립 완화 및 관계망 형성
O (군)	온가족 보듬사업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싱글라이프 행복 더하기'	대상: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및 1인 가구 및 행복지킴이 활동가 대상 내용:요리활동, 심리·정서 안정 집단 힐링프로그램 티테라피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취약위기가족 지원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일상 나눔 모임 동행	대상:50대~60대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내용:취미나 특기 등 일상 나눔을 통해 유대감 형성 및 고립감 해소
	취약위기가족 기능강화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일상 나눔 모임 '혼자가 아닌 나'	대상:중장년 1인가구 내용:문화, 여가활동, 심리·정서지원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프로그램 실시
P (시)	요린이 집밥요리	대상:1인가구 내용:집밥 요리 역량 강화로 건강한 생활 문화 조성
	삼시세끼 집밥요리	대상:1인가구 내용:집밥 요리 역량 강화로 건강한 생활 문화 조성
	빛이나는 솔로	대상:1인가구 내용:자신의 퍼스널칼라 찾기 능 내적 이미지 업그레이드로 셀프리더십 향상

*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Q 기관은 2026년 설립되어 1인가구 사업 현황이 없음

- 시군 가족센터의 1인가구 사업은 필수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16개 기관에서 3년간의 사업 현황 조사 결과 32개 사업이 확인됨.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조사 결과 각 센터별로 원데이 클래스 사업을 개별로 표시한 경우와 D센터의 '금쪽같은 나'와 같이 2~3년간 지속되는 연속 사업을 하나로 묶어 표시한 경우도 있으며,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1인가구 사업이 운영 되기도 해, 실제 운영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성을 지님
- 하지만, 사업 전반을 경북도의 2025년 경상북도 1인가구 시행계획 세부과제의 영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4영역(건강 및 돌봄)의 소통·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식생활 및 소셜 다이닝, 5영역(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고독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음

- 경북 1인가구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에서는 다목적성을 띄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소통과 참여 확대를 주요 목적성으로 하고 있음

<표 Ⅲ-4> 1인가구 운영 사업 유형 구분

유형	활동
사회적 관계망 형성(자조모임)	소셜다이닝(함께 식사), 러닝크루, 동아리 활동, 자조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및 소통 창구 마련
심리정서 지원 및 힐링	타로 상담, 만다라 명상, 예술 명상, 갱년기 및 스트레스 관리 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여가 문화, 취미 활동	통기타, 가죽/목공 공예, 테라리움, 템플스테이,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
자립 지원 및 생활 역량강화	요리(집밥), 정리수납, 금융/재무 교육, 전세사기 예방, 집수리(공구 사용법), 호신술 등 혼자 사는 데 필수적인 실무 지식과 기술 교육
복지 및 돌봄	독거 남성 밀키트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 경북 가족센터 운영 1인가구 사업을 1인가구의 니즈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자조 모임을 포함한 사회 관계망 형성, 심리 정서 지원 및 힐링, 여가 문화 취미 활동 지원, 자립 지원 및 생활 역량 강화, 사각 지대 발굴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 및 돌봄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표 Ⅲ-3>의 사업 현황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1인가구 사업은 다회차로 운영될 경우 심리 정서 지원과 여가 문화, 취미 활동을 통해 자조모임 형성을 도모함. 또한 취미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 정서 지원 및 힐링으로의 연계와 자립 지원 및 생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한 소통망 형성 등 다목적성 사업으로 운영됨. 특히, I 기관의 ‘청년 1인 가구 역량강화 및 정서 지원프로그램’의 예와 같이 각 회차별로 요리 체험, 감정 아로마 향수 만들기를 통한 정서 지원, 경제 교육을 통한 경제 자립, 호신술 교육을 통한 안전 등 커리큘럼 구성 다양화로 참여자들의 흥미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즉 1인가구 운영 사업은 각 센터별로 연 1~2개로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하고 다목적성을 추구함. 이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1인가구의 소통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기도 함

3) 1인가구 사업 운영상의 애로점과 운영 프로그램 평가

- 1인가구 사업 수행기관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1인가구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과 긍정적 반응 프로그램, 아쉬운 점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했음. 설문 조사의 개방형 질문을 기반으로 면담 및 전화 등으로 기관별 보충조사를 실시하고, 1인가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기관 6개소에 대해서는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해 1인가구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조사 분석함

(1) 운영한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혼자 하기 쉽지 않은 체험형·교류형 프로그램으로 드러남. 사업 유형으로는 취미·여가·힐링 프로그램과 심리 정서 및 상담 프로그램, 일상 생활 역량 프로그램 등 익숙한 유형이지만, 체험 등 활동 공유를 통해 관계망이 형성되고 관계 맺음의 기대효과가 있음. 이에 프로그램은 단순 일회성 보다는 다회성, 또는 자연스러운 재참여 지원 형태가 적합하며, 참여자간 또 운영자와 참여자간의 라포 형성으로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취미, 여가, 힐링 등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은 다회기 및 템플스테이나 원데이 클래스 등 형태에 관계 없이 높은 호응도를 보임. 또 다회기 프로그램에서는 초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치 또는 혼자 하기 어려운 취미 활동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템플스테이, 여가 프로그램 및 요리 공예 등 원데이 클래스의 경우 직접 체험과 단기간 참여가능한 점 때문에 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음(A, C, G)

혼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취미활동(터프팅, 반려식물 만들기, 보습크림 만들기, 요리 등)(D, E)

청년 1인 '문화생활의 정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기에 진행한 정서적 이완과 자기표현을 중심으로 한 다도체험이 긴장감을 완화하고 참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음(J)

- 심리 정서 및 상담 프로그램은 사진, 미술 치유 등 소규모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수 있는 유형과 이미지 메이킹과 퍼스널 컬러 등 외적 자기 이해를 통해 자존감과 긍정성을 제고하는 유형 모두 효과성이 있음.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와 함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힘으로써, 심리 정서 지원 효과와 함께 참여자의 재이용율을 높이기도 함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사진, 미술 치유 활동 등 소규모 체험 활동, 자조모임,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조절할수 있도록 도움. 참여자간 관계 형성 등으로 만족도와 재참여율이 높은편(B, L)

소집단 중심의 프로그램(집단상담)은 1인가구에 대한 자기이해 및 심리정서지원의 효과가 좋았음(H)

이미지메이킹 및 퍼스널컬러 등으로 외적자기 이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A, M)

MBTI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J/P유형별여행계획세우기'활동은 서로 다른 성향을 일상적인 사례로 시각화하여 전달함으로써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J)

- 일상 생활 역량 강화 및 일상 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생활 요리, 공구 사용법과 호신술 등은 청년의 독립 생활 역량과 중장년의 삶을 지지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호도가 높음. 청소와 수납 등 생활 밀착형과 함께 1인가구의 건강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소셜다이닝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높으며, 이후 참여자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재이용률을 높임

요리(저당·저염식), 호신술, 공구 사용법, 정리 수납 등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G)

나홀로쿠킹(식품 안전교육과 1인 음식 만들기) 등 요리 교실(A, K)

다양한세대의 1인가구가 함께 요리와 식사를 진행하며 교류하는 소셜다이닝(C)

- 취미와 여가, 심리 정서, 일상생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다 회기성 프로그램이 호응도가 높음. 또한,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4회기 또는 8회기 전체 참여를 선택하는 유연적 회기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의 호응도를 높일수 있음

2030프로젝트의 경우 8회기의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체험(밀반찬 만들기), 성격강점검사, 미술치료 집단상담, 클라이밍, 볼링, 청년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의 형태로 진행함. 지속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2030커뮤니티 형성함

또한 유연한 회기 운영(회기 분절방식:전체 8회기를 4회기씩 2차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참여자가 자신의 일정에 따라 4회기 또는 8회기 전체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이러한 운영 방식의 유연화로 장기간(2개월) 매주 시간을 비워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낮추어 참여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음.(M)

- 경북 내 1인가구 사업 중 가족센터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복지와 돌봄 지원 사업임. 이 사업은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군지역의 경우 더 의미성이 있는 사업임

복지 사각지대에 속하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대상 밀키트 지원 사업의 경우,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않지만 실제 섭식의 어려움이 큰 계층을 발굴해 매주 밀키트를 제공(6개월)하는 사업임. 호응도가 높아 인원을 줄이고 주 2회로 확대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본 사업의 대상자인 농어촌 지역 1인 중장년 독거남성의 경우, 밀키트가 단순한 보조식이 아닌 주요 식생활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K)

-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첫째 템플스테이, 공예 등 체험 및 교류 활동, 둘째 저당·저염식 요리 교실, 호신술, 공구 사용법, 정리 수납 등 생활 밀착형 자립 지원, 셋째 MBTI를 활용한 여행 계획 세우기, 사진미술치유,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참여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장을 완화해 심리적 벽을 낮추고 내적·외적 자기 이해를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심리 정서 지원, 넷째 군지역 중장년 독거 남성 대상 밀키트 사업과 같은 실질적 물품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짐. 하지만, 앞의 3가지 유형 모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유형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인가구간의 지속적 접촉을 확대하여 외로움과 고립이 아닌 소통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2) 1인 가구 사업 진행 시 애로점

- 1인가구 사업 운영의 어려움은 먼저, 대상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임. 1인가구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1인가구 사업참여가 낙인찍기의 형태가 된다는 우려가 기피 요인이기도 해 대상자 모집에 이중고를 겪고 있음. 둘째, 청년 및 직장인 1인가구 사업 운영시 야근, 출장, 당직 등으로 낮은 프로그램 참여율의 문제가 있음. 특히, 요리 등 체험 프로그램시에는 예산 및 자원 낭비 등 행정적 어려움이 있음. 셋째, 요리 및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운영시 조리실 등 전용 시설 부족과 소도시와 농촌 등의 강사 섭외의 어려움과 원거리 출장에 대한 추가 비용 등의 문제 등 인프라와 지역 자원 부족의 문제가 있음. 넷째, 통합가족 사업으로 운영중인 1인가구 사업의 업무 부담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다섯째, 우

수 사례를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와 개별 사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등 담당자의 고충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과 낮은 참석률

- 전체 응답 기관 중 10개소가 1인가구 사업은 운영 첫 단계인 대상자 모집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음. 1인 가구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어 대상자 발굴과 모집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큼. 또한 1인 가구사업을 취약계층사업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보는 인식도 어려움의 한 요소임. 이에 소도시나 농촌의 경우 1인 가구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로 참여를 기피하기도 함. 또한 청년이나 중장년 1인가구와의 접촉 어려움, 실질적 1인가구 확인의 문제 등 과 맞물리며 대상 발굴에도 어려움이 따름

1인가구의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고, 실질적 1인가구 확인의 어려운 현실 등으로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A, B, H, I, K, M, O)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초기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경제적 지원 중심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담당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함.(C, F)

소도시나 농촌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홍보 모집 및 프로그램 참여의 접근성이 약함. 소도시의 경우는 '1인가구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 참여자 발굴 및 지속 참여 유도가 어려움. 또한, 농촌에서는 분산된 지역 특성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낙인 부담 등으로 참여 기피가 발생해 대상자 발굴 및 모집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A, C, N)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대상 사업 운영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가 되기도 함. 1인가구사업을 취약계층 대상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해, 참여자들이 낙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C)

본사업은 매칭프로그램이 아닌 1인가구대상 문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참여자의 비율은 높은 반면 여성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이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한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I)

- 청년 및 중장년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당직 등 일정 변경이 잦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고 당일 불참 사례가 빈번함. 이는운영측의 입장에서는 관리상의 문제가 되며, 또한 사전 재료 준비가 필요한 요리 등의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예산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지기도 함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사업의 경우 직장인이 많아, 출장과 당직 등으로 퇴근시간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수업진행 및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청년층 대상 사업의 경우 7시 이후로 수업시간을 정해도 어려움이 있어, 시간 조율이 어려움(A, D, H, I, N, O)

직장생활 내 불가피한 일정 변경으로 인한 당일 No-show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청년 및 중장년 선호의 요리 교실 및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는 인원수에 맞춰 재료를 사전 준비하고 있어 당일 결원이 예산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짐.(I)

○ 1인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 인력 부족의 문제

- 청년 및 중장년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경우 인프라 부족과 강사 섭외 등의 어려움이 따름. 인프라 부분에서는 일상 생활 지원이나 소셜 다이닝 등 요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시 전용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또한 격리성이 큰 도서나 군지역의 경우 청년 및 중장년 선호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 풀의 부족과 함께 외부 강사 섭외시 원거리 출장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 등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따름

- 나홀로 쿠킹 등 요리 수업의 경우 조리실의 문제가 발생함. 교육장 내에서 음식 만들기에는 비위생적이고 다양한 음식 만들기에는 물 사용, 불사용 등 어려움이 많아, 인접한 대여 가능 시설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따름(A)

- 중소도시나 군지역(도서, 산간 지역)의 경우 청년 및 중장년 선호의 프로그램 구성시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풀이 매우 한정적임. 외부에서 강사 섭외의 경우 일반적인 강사료 기준 외에 원거리 출장에 따른 추가적인 섭외 비용 및 체류비 지원(울릉군 등의 경우) 등 예산 집행에 있어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함(I, J)

- 1인가구 사업 예산과 담당 인력이 없이 통합 가족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담당자의 업무 부담 증가와 예산 부족 등 문제가 뚜렷함. 2024년부터 통합 가족사업에 1인가구 사업이 포함되며, 기존 1인가구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축소로 이전보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보임. 하지만, 담당자의 입자에서는 기존 사업 외 1인가구 사업에 대해 상담과 사례관리 행정 업무 등과 야간 시간 프로그램 진행 등 업무 부담이 커짐

단독사업으로 운영되던 1인가구 사업이 2024년부터 통합가족 사업형태로 운영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 기존참여자들이 사업축소로 인식하거나 관계망 유지에 대한 부분의 미흡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음(C)

직장인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담당자의 체력적, 업무적 피로도가 높음(G)

1인가구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사례관리 사업과 통합 운영되면서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 더해 1인가구 사업 대상자 발굴부터 프로그램 기획·운영, 행정업무,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을 동일 인력이 병행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함. 이에 참가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개입이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운 한계가 나타남. 이현재 사업 구조에서는 1인가구 상담, 원가족 관계 개선, 사례관리 등 심층적 개입 영역까지 충분히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향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함 (L)

1인가구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과 인력이 제한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 간 욕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임.(L)

- 기타 의견으로는 우수 사례의 실제 적용이 어려운 현실과 각 센터의 운영 사업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운영참고자료 및 우수사례가 실제 지역여건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현장적용에 한계가 있었음(C)

월간 진행으로 인해 마지막시간에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프로그램별 만족도와 의견을 상세하게 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I)

20세~59세 1인 독거남성을 대상으로 밀키트 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중·장년 독거남성의 경우 고령층 중심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경제적 어려움, 불규칙한 식생활,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연령 기준으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음. 중년남성 대상 밀키트 사업 운영을 통해 대상자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정기적인 안부확인과 사례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고립감 완화에도 효과가 있었음.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 식사지원외에도 생활필수품, 위생용품, 생필품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욕구가 확인된만큼 단발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물품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K)

초반 참여자들이 낯설고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음. 그래서 다음 계획에서 초반에 참여자들의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후, 프로그램 진행하는 환류방안 계획함. 고립도가 높은 경우, 무리한 소통 활동이나 장기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느낌.(M)

- 연령대별, 소득과 건강, 고립 정도에 따른 1인가구의 욕구가 매우 다르지만 이를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운영이 어려움. 또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큰 1인가구 대상 사업은 접근성을 고려해 운영 확대를 할 필요가 있으며, 노년층 1인가구 사업은 예비 1인 가구 참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인가구 대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연령, 소득, 건강 상태, 고립 정도가 달라, 참여자의 욕구와 선호도 등의 차이가 커서 프로그램의 주제나 난이도, 내용구성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청년층의 경우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개인별로 원하는 교육 내용과 수준 차이가 커서 참여자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A, G, H, I, M)

노년층 사업에서는 예비 1인가구의 참여 비중이 높아 실제 정책 대상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과 대상 간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L)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과 같은 1인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장기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구 변동성이 크고 연령대 다양성에 거주지 분산 등으로 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A)

체험 및 취미 프로그램을 통한 1인가구 자조모임 형성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는 같은 집단이 되기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진 경우가 많았음. 개별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의 자조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외부거점활용이 미흡하여 대상자 확대에 한계가 있었음(B, E)

4) 1인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

- 정책적 요구에 대한 조사는 설문지 문항의 개방형 질문을 기반으로 필요한 지원과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특화 사업 등을 분석해 정리하였음. 또한 각 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소개와 특화 사업 제안을 통해 1인가구 사업 수행 기관인 센터의 요구도를 파악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센터장 및 실무자 대상 심층 면담 조사 및 전화면담을 실시해 구체적 사항으로 조사 분석하였음

(1) 1인 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요구

- 1인 가구 사업 운영 기관에 인력 및 예산 확보, 직원 역량 강화 필요
 - 1인가구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인력 배치 필요함

프로그램 운영인력 확충과 사례관리 전담인력 및 기능분리 등 관리 지원체계 구축(L, N)

가족센터의 경우 타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인가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L, M, Q)

-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을 통한 운영자의 역량 강화 필요함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사업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F)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해 안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필요하면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 또 1인가구에 대해 이해를 하고 사업에 접근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음(F, H)
 지역 특성상 1인가구를 위한 문화 및 소통 기회가 부족하므로, 프로그램 참여를 기반으로 자조모임 및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 1인가구 사업의 경우 자조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도 있던데 어떤기준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지 공유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K)
 각 시설에서 실시한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Q)

○ 1인가구 사업 운영을 위해 자원 연계 등 협업체계 구축 기반 마련 필요함

- 지역 내 1인가구 현황 및 연계 기관 1인가구 사업 현황 공유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효과성 제고 지원

1인가구 수행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통한 1인가구 빅데이터 등 현황 공유 (A, H)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필요 함. 즉 기관간 협력을 통해 1인가구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B, M, N, O)

-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특화 프로그램 전문 강사 연계 및 원거리 이동시 강사비 추가 지원

소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사 연계 및 원거리 이동에 따른 체류비 및 교통비 등 추가 지원 필요(C)
 광역단위 강사 인력풀 구축 및 현실적 지원_ 경상북도 차원의 전문 강사뱅크(Pool) 구축: 청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도내외 전문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시·군 단위 센터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이 필요함.(I)

- 경북도 차원의 공공매체 및 포털 등을 통한 1인가구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지원 필요함. 또한 유관기관 토론회 및 사업 공유회를 통해 1인가구와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 필요함

센터 자체 홍보뿐만 아니라, 신규참여자 모집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공공매체 및 포털 등 지자체차원의 홍보 매체 확대 등 홍보지원이 필요함.(C, H, I, L)
 1인가구 대상 사업을 진행하는 유관기관들의 토론회나 사업공유회 등이 필요함. 이를 통해 정보 교환과 함께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Q)

(2) 경북 1인가구 대상 특화 사업 발굴

- 농촌이 많은 경북에서 1인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과 거점형 공간 구축을 통해 1인가구 및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를 겪는 누구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구축 필요함. 이러한 공간을 통해 소통과 활동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농촌지역의 경우 이동성이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 '찾아가는 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거점형 모임 운영'이 필요.(L)

서울 마음 편의점은 관내 1인가구 등록자에 대해 간편식(햇반, 스펀, 김, 참치 등)을 제공하고 1인가구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참여에 별다른 조건이 없어 참여율이 더 높다고 함. 이런 형태로 1인가구가 상시 방문하여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공유 거실 및 카페나 라운지형태의 공간지원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 제고 필요(A, H, J)

- 주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1인가구 중 여성 1인 가구 전체와 고령 가구 대상으로 안심 홈키트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사업(여성 및 고령 1인가구)이 필요함. 최근 원룸, 다세대 주택 등 청년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함. 또한, 단독주택이나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고령 1인가구의 경우 방법 시설이 취약하여 범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 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사례) 물리적 보안 장비 패키지 지원: 스마트 도어벨,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및 휴대용 비상벨(I)

- 체험과 활동, 소모인 중심 1인가구 사업 참여자들 외 사각지대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 발굴이 필요함

1인가구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긴급 지원망 강화가 필요(M)

인구 비율이 높은 1인 노인가구를 제외한 1인 중장년, 1인 청년 지원사업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함(Q)

(3) 생애주기별 단계별 1인가구 프로그램 발굴

- 1인가구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및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와 생활 지원, 취미 활동, 식생활 등 체험과 활동을 통해 관계성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임

퍼스널 컬러 진단, 피부 타입 측정 등 외적 자기이해 욕구를 충족을 통한 자존감 향상프로그램(IM)

요리, 경제, 정리수납교육 등 생활지원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사업들이 실제 참여 지속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참고 할 만하다고 판단됨(C, L, M)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취미 프로그램(요리, 성격강점검사, 클라이밍, 볼링 등)의 지속적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필요함.(A, I, M)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반려견, 그림, 문화 체험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취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외부활동과 지속성 도모.(B, F)

1인 가구는 식사해결이 큰 문제이기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F)

- 거주지와 연령대, 경제적 여건과 사회 활동 등에 따라 수요가 다양한 1인가구이지만, 청년층은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의 체험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중장년은 정서적 교육과 공감, 이후 공동체 활동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선호함. 또한 중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및 건강 등에 높은 관심도를 보임

청년 1인가구는 단순상담보다 요리, 취미, 원데이클래스 등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 할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남(C)

중장년 1인가구는 정서적 교류와 공감 형성이 가능한 소규모 모임형 프로그램(북리딩, 취미 활동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C)

중고령층 대상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서비스, 건강관리 등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 지속 운영이 필요.(J)

- 중장년부터는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겪게 되는 1인 가구 대상 사업의 핵심은 정서적 지지와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사회 속에서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에 다회기성으로 지속 참여가 가능한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1인가구 지원사업은 집단상담 및 공동체프로그램(소집단) 등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 확대 필요함. 특히 정기 모임, 자조모임, 상담 및 사례관리 연계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영역임.(LMH)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기적 교류 기반 자조모임, 찾아가는 서비스 및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운영 필요(L, N, O)

읍·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노년 1인가구의 경우 이동의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연계형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음(C)

단회기가 아닌 다회기성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관계망 형성 유도(B, L, O)

3. 소결

- 본장은 경북 1인가구 사업의 거점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센터 대상으로 1차 구조화된 질문지와 일부 기관에 대한 2차 심층 면담 및 전화 면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함⁴⁾. 1차적으로는 경상북도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1인가구 사업의 현황과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과 애로점,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및 지역별 특화 사업 제안 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함. 2차적으로는 현장의 애로점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조사를 통해 가족 센터가 운영하는 1인가구 사업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점과 프로그램 평가, 1인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로 분석 정리함.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1인가구 대상 사업 분석

- 1인가구 사업은 가족센터의 필수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16개 기관에서 3년간 운영한 사업 32개의 자료를 확보함. 2~3년간 지속되는 연속 사업을 하나로 묶어 표시한 경우도 있으며,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되기도 해, 실제 운영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성을 지님. 하지만, 전반적으로 2025년 시행 계획 영역 기준으로 보면 4영역(건강 및 돌봄)의 소통·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식생활 및 소셜 다이닝, 5영역(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고독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북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 사업을 선행연구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테마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자조모임)과 심리정서 지원 및 힐링, 여가 문화, 취미 활동, 자립 지원 및 생활 역량강화, 복지 및 돌봄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으며, 현장의 사업 실행에서는 유형에 관계 없이 다회차로 운영될 경우 자조 모임 또는 소통망 형성까지 이르는 다목적성 사업으로 운영함

4) 조사 대상 기관은 22개 기관 중 17개 센터의 29명이 응답하였으며, 2차 조사는 8개 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함

2) 1인가구 선호 프로그램 및 운영상의 애로점

- 1인가구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취미, 여가, 힐링 등을 테마로 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 사진, 미술 치유 등 소규모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수 있는 유형과 이미지 메이킹과 퍼스널 컬러 등 외적 자기 이해를 통해 자존감과 긍정성을 제고하는 두가지 유형의 심리 정서 및 상담 프로그램
 -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일상 생활 역량 강화 및 일상 생활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생활 요리, 공구 사용법과 호신술 등)
 - 취미와 여가, 심리 정서, 일상생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다회기성 프로그램(8회기 중 기간별로 4회기를 참여하는 선택형까지 포함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실질적 복지와 돌봄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 사업 운영상의 애로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대상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임. 1인가구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1인가구 사업참여가 낙인찍기의 형태가 된다는 우려가 기피 요인이기도 해 대상자 모집에 이중고를 겪음
 - 둘째, 청년 및 직장인 1인가구 사업 운영시 야근, 출장, 당직 등으로 낮은 프로그램 참여율의 문제가 있음. 특히, 요리 등 체험 프로그램시에는 예산 및 자원 낭비 등 행정적 어려움이 있음
 - 셋째, 요리 및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운영시 조리실 등 전용 시설 부족과 소도시와 농촌 등의 강사 섭외의 어려움과 원거리 출장에 대한 추가 비용 등의 문제 등 인프라와 지역 자원 부족의 문제가 있음
 - 넷째, 통합가족 사업으로 운영중인 1인가구 사업의 업무 부담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다섯째, 우수 사례를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와 개별 사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등 담당자의 부담이 큼

3) 1인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

○ 가족센터의 1인가구 사업 운영 상의 애로점과 정책적 요구도를 기반으로 1인가구 사업 운영 체계와 인력 미흡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1인 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 지역 사회 협의체 구축,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업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음. 특히, 지역사회 협업체계는 각 시군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맞춤형 협업체계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표 Ⅲ-5> 1인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분	내용
예산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인력 확충과 사례관리 전담인력 및 기능분리 등 관리 지원 체계 구축 ▶ 1인가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위한 예산 지원
운영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사업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1인 가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교육 필요 ▶ 타지자체의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방식 이해 필요 ▶ 각 시설의 우수 사례 공유 필요
지역 사회 협업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수행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통한 1인가구 빅데이터 등 현황 공유 ▶ 기관간 협력을 통해 1인가구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1인가구 사업 운영시 타기관과의 사업 중복성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해 연계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광역단위 강사 인력풀 구축 및 현실적 지원_ 경상북도 차원의 전문 강사뱅크(Pool) 구축: 청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도내외 전문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시·군 단위 센터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이 필요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참여자 모집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공공매체 및 포털 등 홍보지원 ▶ 1인가구 대상 사업을 진행하는 유관기관들의 토론회나 사업공유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

- 경북 1인가구 대상 특화사업으로는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의 경북(특히 군지역) 거주 1인가구의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한 거주 지역기반의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과 중장년 남성 등 사각지대의 1인가구 발굴 지원 사업,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1인가구 대상 주거 안전 사업 필요성을 드러냄

<표 Ⅲ-6> 1인가구 특화사업 발굴

구분	내용
접근이 쉬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경우 이동성이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 ‘찾아가는 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거점형 모임 운영’이 필요. ▶ 서울 마음 편의점과 같이 1인가구가 상시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지원을 통해 접근성 제고 필요
주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사업(여성 및 고령 1인가구)이 필요함. 또한 방범 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사각지대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긴급 지원망 강화 ▶ 1인 중장년, 1인 청년 지원사업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

-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고립 예방과 생활 지원,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 흥미를 끌어내고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선호도가 높으며, 청년층은 체험형, 중장년은 소규모 모임형, 중고령층은 돌봄 중심 등 연령별 차이를 보임. 사업 운영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의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지지 등을 통해 1인가구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요한 목적성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Ⅲ-7> 수요 맞춤형 1인가구 사업 발굴

구분	내용
선호 프로그램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스널컬러 진단 등 외적 자기이해 욕구 충족을 통한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 요리, 경제, 정리수납교육 등 생활지원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결합 운영하는 사업 ▶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취미 프로그램(요리, 성격강점검사, 클라이밍, 볼링 등)의 지속적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취향 밀착형 프로그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다이닝 등 식사 해결 프로그램 <p>연령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요리, 취미, 원데이클래스 등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 할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 중장년: 정서적 교류와 공감 형성이 가능한 소규모 모임형 프로그램 ▶ 중고령층: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고독사 예방 서비스, 건강관리 등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
정서지지와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집단상담 및 공동체프로그램(소집단) 등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 확대 필요 ▶ 읍·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특히 노년 1인가구의 경우 이동의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연계형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음 ▶ 단회기가 아닌 다회기성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관계망 형성 유도

4) 시사점

- 본 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1인가구 사업은 현재 가족센터의 필수 사업이 아니어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며, 대부분 통합가족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독립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 추진 기반 취약함. 이에 1인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운영자 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및 공공 중심의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가 요구됨
 -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1인가구 지원 사업 참여가 ‘낙인찍기’로 인식될까 봐 기피하는 경향과 청년 및 직장인은 야근이나 당직 등으로 인해 낮은 참여율 등 대상자 발굴부터 운영까지 어려움. 이에 공공 중심 또는 협력 체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함
 - 요리나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조리 시설 부족과 농촌 지역은 전문 강사 및 비용 부족 등 인프라와 지역자원 부족 문제로 운영 어려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수 사례를 지역 현지에 적용하기 어렵고,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등의 담당자의 부담이 큼. 이에 간담회 운영 및 교육을 통한 1인가구 사업 이해 확대와 담당자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경북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이 쉬운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 안전 사업 운영,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등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체계 마련이 요구됨
- 특히, 1인가구 사업에서 운영되는 취미와 힐링, 여가, 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소통 및 자기 이해 등의 프로그램은 1인가구의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지지로 이어지며 외로움이 내재된 1인가구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것을 주목적성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1인가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IV. 정책적 제언

- 1. 요약 및 정책 방향**
- 2. 1인가구 지원 방안**

IV.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정책 방향

- 경상북도는 2024년 기준 1인가구 수가 457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8.9%에 달함. 2010년 28.6%에서 10.3%p 증가하며 보편적 가구 형태가 됨. 이러한 1인 가구원수의 증가는 1인가구 내 연령별, 거주지별, 사회 경제적 여건별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본 연구는 경북의 다양한 1인가구의 수요와 요구도를 반영한 사업과 정책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됨

1) 요약

- 경북 1인가구 현황으로 드러난 정책 수요
 - 경북 1인가구는 2024년 기준 38.9%로 전국 시도중 5번째 높은 비중을 보이며, 연령층별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각 36.7%이며 청년층 비중은 26.7%임. 또 경북 1인가구의 성비는 101.2로 남성이 약간 많으나, 청년층은 180.1, 중장년층은 148.2, 노년층은 44.3으로 연령별 성비 격차가 큼.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비가 낮아지고 있어, 노년층 여성 집중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 경북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68.0%)이 여성(43.8%)보다 24.2%p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6.4%로 가장 높고, 40대(82.5%), 20대(61.3%) 순임. 또 1인가구 형성 원인은 본인 직장(30.8%)이 가장 큰 이유이나, 50대 이하 에서는 '직장'이, 60대 이상은 '사별'과 '가족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경북 22개 시군의 1인가구 인구 구조를 보면, 1인가구의 인구 규모 및 연령별 비중, 성비 등에서 차이가 뚜렷함. 이를 기반으로 경북 시군의 1인가구 거주 유형을 4개로 구분함
 - 청년 남성 1인가구 집중 지역: 청년 1인가구 비중이 42% 이상이며 성비 107 이상의 구미와 경산 등 2개 지역
 -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집중 지역: 중장년 1인가구 비중이 40% 내외이며 성비

- 100 이상의 포항, 칠곡, 울릉, 영천 등 4개 지역
- 균형 지역: 연령대별 구성이 고른편이며, 성비 90 내외로 고령 여성 집중이 덜한 안동, 김천, 경주 등 3개 지역
- 고령여성 집중지역: 노년층 비중 크며, 성비가 낮아 고령 여성이 많은 상주, 문경 등 13개 지역
- 4개 지역 중 청년 남성 및 중장년 남성 집중 지역은 경북 내에서 산업 및 이주 노동자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 요인이 큰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령여성 집중 지역은 인구 유출 및 정체 지역으로 볼수 있음
 - 4개의 지역 구분은 각 시군내 1인가구의 인구학적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지역 산업 여건 및 인근 시군과의 위치적 특성, 거주 1인가구의 사회 경제적 속성 등은 고려되지 않은 한계성이 명확함. 하지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1인가구 사업의 연령층별 주 대상을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

□ 경북 1인가구 실태 조사로 드러난 생애주기별 거주지별 정책 수요

- 주거 및 거주지에 대한 요구차를 보면,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에서 청년층의 취약성 뚜렷하며 노년층은 단독주택과 자가 비중이 높으며 열악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뚜렷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드러냄. 특히, 거주지 선택 기준에 거주 경험 비중이 높아 익숙한 환경에서의 생활에 대한 요구가 뚜렷함

구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거처 종류	아파트 54.0%	아파트 57.5%	단독주택 76.5% (아파트 12.5%)
점유형태	자가 37.3% 월세 35.3%	자가 62.7%	자가 77.1%
거주지 선택 기준	직장·학교 인접 39.3%	직장·학교 인접 27.5%	거주 경험 37.9%
주택 만족도	3.37	3.41(최고)	3.15(최저)
개선 요구	열악한 시설 46.7%	열악한 시설 42.9%	열악한 시설 61.5% (최고)

-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차를 보면, 상용 근로는 중장년층이 가장 높고, 월평균 소득도 가장 높으며, 근로 소득 의존 비중도 높음. 하지만, 청년층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남

구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근로형태	상용근로 44.7%	상용근로 50.3%	비경제활동 62.1% 공공근로·노인일자리 10.5%
월평균소득	218.7만 원	284.4만 원 (최고)	84.9만 원 (최저)
주 수입원	근로소득 73.3%	근로소득 79.1%	정부지원 49.0% 근로소득 26.1%
경제적 어려움	38.0%(최저)	47.1%	51.0% (최고)

- 일상생활에 대한 요구차를 보면, 청년 및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1인가구 사유는 뚜렷히 구분되며, 중장년층은 원래가족과 함께 거주하고픈 욕구가 큼. 또 전 연령대에서 안정적 소득에 대한 요구가 크며, 가장 힘든 점으로 중장년층은 경제적 불안감을 응답했으나, 노년층은 위급시 대처 응답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통대상이 줄어들고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1인가구 이유	취업 34.0% 독립 편의 30.7%	취업 35.3% 독립 편의 30.7%	이혼·별거·사별 83.7% (비자발적 비중 압도적)
원하는 거주 형태	혼자 35.3% 결혼 34.0%	원래 가족 35.3% 결혼 24.2%	혼자 67.3%
생활 만족도	3.75 (최고)	3.46	2.84 (최저)
가장 필요한 것	안정적 소득 58.7% (최고)	안정적 소득 54.9%	안정적 소득 36.6% 일상생활 유지 28.1% (2위 높음)
가장 힘든 점	경제적 불안감 34.7% 위급 시 대처 25.3%	경제적 불안감 30.1% 위급 시 대처 28.8%	위급 시 대처 41.2% 경제적 불안감 38.6%
경제적 도움 대상	가족·부모 44.0%	국가·지자체 39.9%	국가·지자체 44.4%
소통대상 있음	91.3%(최고)	86.3%	78.4% (최저)

- 정책 요구차를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모두 경제·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며,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맞춤 구인 구직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하지만, 경제 일자리와 안전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의 요구도가 더 크며,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요구도가 더 큼. 또 고령층은 건강 및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요구가 크며, 주거 정책에서 시설 보수 지원 요구가 큼. 특히, 전 연령대에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요구가 커서 위기 상황시 전연령대의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음

구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최우선 정책 영역	경제·일자리(4.15) 안전(4.03)	경제·일자리(4.21) 안전(4.03)	건강·돌봄(4.21) 경제·일자리(4.07)
주거 정책	임대주택 공급 32.7%	임대주택 공급 31.4%	임대주택 공급 35.9% 시설 보수 지원 22.2%
안전 정책	주택 주변 환경 개선 36.0%	주택 주변 환경 개선 47.1%	위급 비상벨 39.2%
경제·일자리 정책	맞춤 구인구직 31.3%	맞춤 구인구직 28.1%	공공근로사업 50.3%
건강·돌봄 정책	가사간병서비스 34.7%	가사간병서비스 34.7%	가사간병서비스 26.1%

- 주거 및 거주지에 대한 거주지(시/군)별 요구차를 보면, 군지역은 단독주택 거주와 자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주거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구분	군 지역	시지역
거처 종류	단독주택 71.6%	아파트 48.4%
점유형태	자가 84.3%	자가 52.0% · 월세 29.1%
주택 만족도	3.28	3.32

- 경제활동에 대한 거주지(시/군)별 요구차를 보면, 시지역의 월평균 소득이 더 높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 수입원에서 군지역은 개인 연금 비중이 크고, 시지역은 군지역보다 근로 소득 및 정부 지원 비중이 큼

구분	군 지역	시지역
월평균소득	165.5만 원	204.6만 원
경제적 어려움	36.3%	48.0%(높음)
주 수입원	근로소득 52.0% · 개인연금 27.5%	근로소득 61.6% · 정부지원 20.9%

- 일상생활에 대한 거주지(시/군)별 요구차를 보면, 생활 만족도는 시지역이 높으나 경제적 불안감이 크며, 군지역은 위급시 대처에 대한 불안이 큼

구분	군 지역	시지역
생활 만족도	3.12	3.42(높음)
가장 힘든 점	위급 시 대처 44.1%(1위)	경제적 불안감 39.0%(1위)
경제적 도움 대상	가족·부모 36.3% 국가·지자체 32.4%	국가·지자체 38.4%(1위)

- 정책에 대한 거주지(시/군)별 요구차를 보면, 최우선 정책으로는 시지역이 경제·일자리, 군지역은 안전으로 지역 차가 뚜렷하며,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군지역은 시설 보수 지원, 군지역은 임대 주택 지원, 안전 정책도 군지역은 비상벨·긴급 알림, 시지역은 주택 주변 환경 개선으로 시군간 요구차가 큼. 하지만 건강·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시군 모두 가사 간병 서비스 요구가 큼

구분	군 지역	시지역
최우선 정책	안전(4.15) 건강·돌봄(4.09)	경제·일자리(4.17) 건강·돌봄(4.05)
주거 정책	시설 보수 지원 25.5%	임대주택 공급 37.9%
안전 정책	비상벨·긴급 알림 34.3%	주택 주변 환경 개선 35.3%
경제 정책	공공근로사업 47.1%	맞춤 구인구직 26.0%
건강·돌봄 정책	가사간병서비스 35.3%	가사간병서비스 20.9%

□ 1인가구 사업 운영기관 조사로 드러난 정책 수요

- 조사 결과 경북 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1인가구 사업은 2025년 시행 계획 영역 기준으로 보면 4영역(건강 및 돌봄)의 소통·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식생활 및 소셜 다이닝, 5영역(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고독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으로 확인됨. 각 사업은 크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자조모임)과 심리 정서 지원 및 힐링, 여가 문화, 취미 활동, 자립 지원 및 생활 역량강화, 복지 및 돌봄 등으로 유형화 되고 있으나, 현장의 사업 실행에서는 유형에 관계 없이 다회차로 운영될 경우 자조 모임 또는 소통망 형성까지 이르는 다목적성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1인가구 사업 운영상의 애로점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구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와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전문성의 부족 문제, 1인가구에 대한 정보 부족과 타기관과의 중복성 문제, 군 및 소지역의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의 문제, 1인가구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홍보 채널 부족 문제 등 다방면의 문제가 파악되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함
 - 먼저 사업 운영 기관에서 예산과 인력 부족 및 사업 전문성 부재의 문제와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

구분	내용
예산과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인력 확충과 사례관리 전담인력 및 기능분리 등 관리 지원체계 구축 ▶ 1인가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위한 예산 지원
담당자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사업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1인 가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교육 필요 ▶ 타지자체의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방식 이해 필요 ▶ 각 시설의 우수 사례 공유 필요

→ 1인가구 사업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 독립성 강화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담당자의 역량 강화

- 다음으로는 1인가구 사업의 중복성 및 군지역 및 소도시의 인프라 부족, 1인가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부재, 홍보의 어려움 등 시스템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광역단위의 지원을 요구함

구분	내용
1인가구 Date 부재 및 사업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수행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통한 1인가구 빅데이터 등 현황 공유 ▶ 기관간 협력을 통해 1인가구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강사 인력풀 구축 및 현실적 지원_ 경상북도 차원의 전문 강사 풀 구축: 청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도내외 전문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시·군 단위 센터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이 필요 ▶ 공유 주방 등 시설 부족_ 소셜 다이닝 등 1인가구 수요가 높은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부족의 문제
공공 중심 홍보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참여자 모집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공공매체 및 포털 등 홍보지원(현장에서는 당근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음) ▶ 1인가구 대상 사업을 진행하는 유관기관들의 토론회나 사업공유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 기관과의 협력 및 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1인가구 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
- 전문강사 풀 구축 및 시설확충(주변 시설 연계 정례화) 등을 통해 군단위 및 소도시의 1인가구 프로그램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 경북도 1인가구 포털과 같은 경북도 공공 채널을 통한 1인가구 사업 및 제도 안내 등 홍보 채널 마련, 사업 공유회를 통한 1인가구 인식 개선 효과 제고
- 경북 군지역 또는 소도시의 낮은 접근성과 사각지대 1인가구 발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경북 특화형 사업 발굴에 대한 요구를 드러냄

구분	내용
낮은 접근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경우 이동성이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 ‘찾아가는 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거점형 모임 운영’이 필요. ▶ 읍·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서울 마음 편의점과 같이 1인가구가 상시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지원을 통해 접근성 제고 필요
사각지대 1인가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긴급 지원망 강화 ▶ 1인 중장년, 1인 청년 지원사업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

- 찾아가는 프로그램, 경로당·마을 회관 등 지역 거점 활용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시 공간 마련
사각지대의 중장년 및 청년 1인가구 발굴을 통해 복지와 소통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보편적 가구의 형태가 된 1인가구는 다양한 연령별 선호 프로그램의 차이를 보임. 이에 이를 고려한 대상맞춤형 사업 발굴이 요구됨

구분	내용
대상 맞춤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요리, 취미, 원데이클래스 등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 할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 중장년: 정서적 교류와 공감 형성이 가능한 소규모 모임형 프로그램, 집단상담 및 공동체프로그램(소집단) 등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중고령층: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고독사 예방 서비스, 건강관리 등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

-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선호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대로 관계망 형성 유도 등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모델 발굴

2) 생애주기 및 거주지별 특성과 요구

- 연령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청년층은 경제와 자립 지원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며, 중장년층은 소득 대비 불안감이 커 정서적 지원이 요구되며, 노년층은 위급시 대처 등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며 건강·돌봄 요구를 드러냄
- 청년층의 핵심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감(34.7%)과 위급 시 대처(25.3%)이며,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 소득(58.7%), 정책 요구 1순위는 경제·일자리(4.15)로 자립과 독립에 대한 요구가 매우 뚜렷함
- 중장년층의 핵심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감(30.1%)과 위급 시 대처(28.8%)이며,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 소득(36.6%)과 일상생활 유지(28.1%), 정책 요구 1순위는 경제·일자리(4.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높게 나타냄
- 노년층의 핵심 어려움은 위급 시 대처(41.2%)와 경제적 불안감(38.6%)이며,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 소득(54.9%), 정책 요구 1순위는 건강·돌봄(4.21)이며,

경제·일자리(4.07) 응답도 높음. 전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건강·돌봄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노년층의 일상 유지와 지역 사회 기반 돌봄 지원 등에 대한 요구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⁵⁾와의 연계를 통해 해소 될 수 있음. 이에 경북 거주 고령 1인가구의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해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와의 적극적 연계가 요구됨

- 또한 지역별로는 청년층이 집중된 시지역과 노년층이 집중된 군지역의 수요차는 뚜렷함. 특히, 군의 소득 수준이 더 낮음에도 군지역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과 돌봄에 대한 낮은 접근성임
 - 시는 경제 불안 높으며, 주거비 부담이 크고, 청년 집중 지역임. 이에 정책 요구 1순위는 경제·일자리(4.17)이며 다음순이 건강·돌봄(4.05)임. 시지역의 소득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체감률은 48.0%로 군(36.3%)보다 오히려 높음. 이는 청년층 비중이 큰 부분도 있지만, 전연령대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임
 - 군지역은 안전 공백과 노년층 비중이 높아 돌봄 수요가 집중하며, 시지역보다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서 낙인 우려 지역임. 이에 정책 요구 1순위는 안전(4.15)이며, 다음순으로 건강·돌봄(4.09)임. 특히, 시와 달리 핵심적 어려움으로 위급 시 대처(44.1%)의 응답이 가장 많으며, 가사간병 수요(35.3%)도 시(20.9%)보다 크게 높고, 생활만족도(3.12)는 시(3.42)보다 낮음

5)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돌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거주지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임. 노인의 경우는 보건 의료와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 돌봄 등을 제공함(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https://www.mohw.go.kr>)

3) 정책 방향성

-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방향성과 연령층 및 거주지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챗gpt 활용 제작

[그림 IV-1] 경북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방향성 및 수유

2. 1인가구 지원방안

- 본 연구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 중 거주지와 연령별 수요를 반영한 일상생활과 정주 여건, 안전 지원에 중점을 두며 다음과 같은 3대 목표를 제안함. 목표는 첫째, 시군 특화형의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와 둘째, 경북도 주도의 생활안전·정주여건 중심 지원을 위한 경북형 1인가구 안심 생활 지원 확대, 셋째, 1인가구 사업 운영 기반 확충을 위한 1인가구 정책 추진 기반 고도화임. 이에 아래와 같은 13개 세부 과제를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 맞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챗gpt 활용 제작

[그림 IV-2] 맞춤형 1인가구 지원 방안

목표 1. 지역 맞춤형 1인가구 지원 강화(시군 특화형)

- 본 연구의 결과 가족센터는 1인가구 사업 운영 기관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가구 사업을 필수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음. 하지만, 취약 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1인가구 특화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함. 이에 경북도 1인가구 지원 사업 시군 우수사례(경북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250~2,000 만원 가량의 사업비로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가 산재되어 있고 주요 인프라 접근성이 낮으며 교통 약자인 중고령층이 많은 경북의 농촌에서 1인가구 사업 운영은 어려움이 많음. 특히,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가구에 대해서는 발굴부터 어려움이 따름. 이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마을 회관 등 지역 거점형 모임 운영 등을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포함, 구미, 경산과 같은 1인가구 정책 대상이 많은 지역은 거점 공간 구축을 통해 1인가구 발굴부터 다양한 수요 만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이 요구됨

1-1. 찾아가는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1인가구는 정보 부족, 시간 제약, 이동 불편, 심리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이동성의 제약이 크며, 고립 위험이 있는 중장년·고령 1인가구, 자립 초기 청년 1인가구, 위기상황을 경험한 1인가구는 센터 사업 참여를 유도가 거의 불가능함. 이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1인가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6년 현재 성평등 가족부도 시군 지역 가족센터 프로그램 구성에서 연령별·지역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음. 이에 농촌지역의 마을로 찾아가는 거점 공간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취약 계층을 위한 방문형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됨

■ 생활권 중심 이동형 프로그램 운영

- 농촌 지역의 경우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 내 거점 공간 연계형 소모임 및 디지털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망 형성

거점 공간 연계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모델

- 월 1~2회 가족센터 담당자 현장 방문, 소집단 프로그램 운영

마을 자원	보건진료소·방문간호사	행정복지센터
회장·이장 1인가구 연락망 협력자	안부 확인/정보 공유	참여자 모집·장소 섭외 지원

- 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작은도서관, 도시재생 시설 등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한 소모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 접근성 취약 대상 우선 지원 사업 운영
- 방문형 생활역량 교실(일상 생활 지원): 1:1 매칭 또는 소모임 매칭으로 정리수납, 식생활, 재무 기초, 생활 요리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립 위험군 연계 방문형 정리수납·식생활 코디네이터(코디네이터 연계)

1-2. 온가족보듬사업 연계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온가족보듬사업은 복지रो에 따르면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과 재난·사고 등으로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겪는 위기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또한 2024년 이후 개별로 운영된 1인가구 사업을 온가족 보듬 사업에 포함시킬 것. 특히, 가족센터 주요사업 구조상 온가족 보듬사업은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긴급돌봄 등 통합적 지원 기능을 갖고 있어, 위기 1인가구 지원과 연계성이 큼.(가족센터홈페이지 참조) 이에 경북도 내 시군 가족센터에서는 온가족 보듬 사업의 일환으로 1인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과 1인가구 사업으로서의 성과 관리 및 확산을 통해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인 1인가구를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온가족 보듬 사례 관리 내 1인가구 유형 반영해 가족 사업 연계 지원
- 1인가구 전담 프로그램 지원
 - 심리 정서 회복, 관계망 형성, 일상 생활역량 강화
- 1인가구 대상 동행 서비스 연계
 - 위기 1인 가구(부동산 및 금융 등 법적 문제 직면 가구 등)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 및 동행 서비스 지원

1-3. 지역 특화형 1인가구 시범 사업 운영

○ 1인가구는 연령별, 거주지별 요구도의 차이가 크며, 이는 경북 내에서도 1인가구 인구 구조에 따라 청년 남성 집중형과 중장년 남성 집중형, 고른 연령층이 분포하는 균형형, 고령여성 집중형으로 유형화가 가능함. 이중 중장년 1인가구는 청년층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어 있고, 노년기에 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이혼·사별·비혼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은 식생활 관리,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시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유주제형 사업 발굴 및 운영과 사각지대의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시군 제안 기반 자유 주제 사업 운영

- 경북 22개 시군은 아래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인가구 인구 구성의 차이로 인해 정책 대상자의 차이가 뚜렷해 대상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챗gpt 활용 제작

[그림 IV-3] 경북 시군별 여건 및 대상맞춤 프로그램

가족센터 운영 사업 중 중장년 선호 프로그램

- ▶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외적 자기이해 욕구를 충족을 통한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 ▶ 요리, 경제, 정리수납교육 등 생활지원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결합 운영하는 사업
- ▶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취미 프로그램(요리, 성격강점검사, 클라이밍, 볼링 등)의 지속적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취향 밀착형 프로그램
- ▶ 소셜 다이닝 등 식사 해결 프로그램

- 사업 운영은 시군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1인가구 프로그램 제안하고 광역 도는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운영함. 각 사업은 아래와 같이 경기도 1인가구 포털을 통해 안내 및 홍보 진행



경기도 _ 시군 1인가구 제안사업 지원 강화(자유주제 제안사업)

▣ 경북형 중장년 1인가구 관계 회복 프로젝트

- 경북형 중장년 1인가구 관계 회복 프로젝트는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서 생활역량 강화, 관계망 형성, 정서적 회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예방 중심 사업임
- 건강한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생활요리교실,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영양교육, 공동식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중장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 공동식사를 통한 관계 형성 유도(특히, 남성 취약성 큼)
- 생활자립 아카데미: 정리수납 교육, 청소 및 세탁관리 교육, 가전제품 활용 교육, 금융·소비자 교육, 스마트폰 및 디지털 활용 교육 등을 포함한 생활자립 아카데미를 운영. 독립적인 생활능력 향상 및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감소 효과 기대
- 관계회복 커뮤니티: 동네친구 만들기, 산책모임, 독서모임, 취미동아리, 소규모

여행모임 등 관계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참여자 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정기적이며 지속적 모임 유도)

- 정서지원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사별 경험자, 이혼 경험자, 장기 고립 위험군 대상의 집단상담, 심리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 필요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 및 치료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 구축

1-4. 1인가구 거점 공간 조성

○ 가족센터는 사업 운영에서 청년층과 중장년 및 고령 1인가구 대상으로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계망을 통한 소통과 외로움, 고립 해소를 주요 목적성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1인가구 사업의 지속성과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회성 프로그램보다 상시 이용 가능한 거점 공간이 필요함

■ 가족센터 내 1인가구 전용 또는 우선 활용 공간 조성

- 상담, 모임, 교육, 자조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조성

■ 지역사회 연계형 공유공간 조성

- 가족센터 외 마을 공유공간, 도시재생 거점 공간 등과 협약해 권역별 1인가구 활용 가능 공간 구축

■ 거점 공간 중심의 소통·상담·커뮤니티 기능 운영

1인가구 거점 공간조성 사례)

지역	형태	내용	운영/지원
서울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 기반 커뮤니티 공간	함께서재·마음정원·공방 등으로 구성된 ‘마음마루’	중·장년 1인가구 고립감 해소, 이슈대응형 디자인
수원 영통구	민간 카페와 연계한 거점	조스데이블 광고점과 협약, 소모임·교육·심리미팅 연계	공간 이용 할인,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 (소곡)	소통 거점 네트워크	민간 소통거점 6곳과 협약, 지역 기반 관계망 조성	맞춤형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

목표 2. 경북형 1인가구 안심 생활 지원 확대(일상생활·안전·정주여건 중심)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도농간 주거 환경 격차로 단독 거주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는 노후주택 개보수 및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고, 도시는 임대 주택 및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또, 노년층과 여성 1인가구는 주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뚜렷했으며, 1인가구 내 경제 활동 참여율에서도 여성의 취약성이 드러남. 또한 정책적 요구도 조사에서는 가사 간병 서비스 운영과 1인가구 사업 시민 공모 운영에 대한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남. 이에 경북도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묶어 ‘경북형 1인가구 안심 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는 1인가구의 주거·정주, 마음·돌봄, 안전·안심, 자립·일자리, 정책 참여 등을 통해 경북도 특화형 정책 운영을 도모 할 수 있음.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경북에 적용해 지역 특화형으로 확산함으로써 1인가구와 함께 성장하는 경북 실현을 도모 할 수 있음

2-1. 경북형 1인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주거 안정 정책에서 전체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나, 군은 주택 시설 보수 지원로 응답함. 이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71.5%이며, 자가 소유가 84.3%에 달하는 군지역의 여건과 임대 주택 지원 등 보편적 정책의 접한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농촌형 정주 여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군지역 특화 주거 개선 사업 확대

- 농촌 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청년층 대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1인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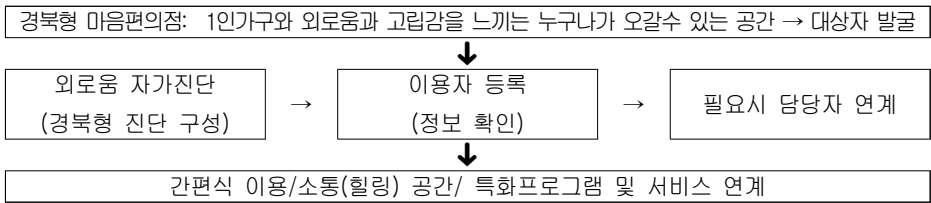
▣ 시지역 1인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

- 계약상담, 집보기 동행, 전입 희망지역 정보 제공을 통해 계약·권리 보호

2-2. 경북형 마음 편의점 시범 사업

- 조사 결과 경북내 1인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 마음 편의점과 같은 1인가구가 상시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지원을 통해 접근성 제고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이에 경북도도 청년 및 중장년이 많은 도시형 지역에 마음 편의점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1인가구 발굴 및 거점 공간을 통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족센터 및 복지관 연계한 마음편의점 운영



서울 마음 편의점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교류 공간 마련: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의 필요성.
- 고립 예방 및 지원:외로움이 은둔이나 고립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돕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오프라인 지원 플랫폼조성

운영 규모 및 예산

2025년 시범 운영	2026년 확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25개소 확대 계획(2026년 5월 총 19개소)
예산: 총 1억 3,600만 원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 사업 시작
공간 조성비 1,000만 원/ 운영비 2,400만원	

공간 구성: 욕구 기반의 'ZONE' 분리

사회적 교류 ZONE (소통)	라면 조리기, 커피 등 간식 비치, 보드게임 및 건강관리 용품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만남 유도.
재충전 ZONE (침)	반백, 리클라이너, 족욕기 등을 배치하여 개별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상담 공간	소통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를 적용하여 상담 참여가 자연스럽게 편만한 환경 구축



서울마음편의점 현장

라면조리기 및 라면장

휴식 관련 기구 등

- 전 지정 BI 적용 현판을 부착하여 일관된 이미지 전달 → 브랜드 시각화
운영 프로세스: 진단에서 연계까지

방문 및 자가진단	12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외로움 및 고립 위험도 측정
대상자 분류 및 상담	도움 필요로 분류될 경우 사회복지사 전문 상담 실시
서비스 연계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공공·민간 서비스 연결

대상군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 고립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 회복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관계지원군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소규모 교류 프로그램 제공
일상돌봄군	자기돌봄 및 일상 관리 회복 지원
일상위험고립군	관계망과 자기관리의 동시 회복, 지역 전담 기구 연계
집중관리군	은둔형 외톨이나 자기방임 등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우리동네돌봄단의 밀착 관리 지원
긴급위기군	정신건강상담(응급개입)을 최우선으로 연계하며 집중적인 위기 관리 시행

기관별 역할 분담

서울시	사업 총괄, 모델 개발 연구 협력, 민간 협력 기업 확보 및 홍보
자치구	예산 교부 및 관리 감독(모니터링), 유관기관 자원 협력 지원
운영기관(복지관)	시설 조성 및 운영(상담·프로그램), 운영 인력 관리, 실적 및 결과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고립경험당사자 치유활동가교육 및 파견, 모델 개발 연구 전담
50+재단	외로움돌봄동행단 교육 및 인건비 지급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26년 서울마음편의점 조성운영계획(서울정보소통광장<<https://opengov.seoul.go.kr/>>)

■ 군지역 대상 이동형 마음편의점 운영

- 군지역의 가족센터, 복지관, 전통시장 등지로 찾아가는 마음편의점 운영으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2-3. 여성 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사업

○ 조사 결과 안전정책 분야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시와 군에서 모두 ‘주택 환경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시지역은 2순위로 주택 보완장치 강화(23.2%)를 응답해, 주거지에서도 외부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냄. 이에 일부 시군에서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안전 홈키트 사업을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확대,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집수리 지원 등으로 생활 공간에 대한 안전성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경북형 여성 1인가구 안심 홈키트 지원 사업

- 여성 1인가구 대상 사업 운영
- 스마트 도어벨,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및 휴대용 비상벨, 가정용 CCTV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심 반상회 운영으로 피드백과 소통망 형성 지원

지역	내용
서울 안심장비	대상: 1인가구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 1인점포 내용: - 1인가구 대상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으로 구성된 안심장비 지원(총 2,100여 명) - 1인점포 대상 ‘안심경광등’ 지원(10,000개를 지원)
경기여성 안심패키지	대상: 경기도 거주 여성1인가구, 범죄피해여성, 한부모가정, 여성가구 내용: 스마트 문열림 센서, 스마트 홈카메라, 휴대용 호신용 스틱 등(시군별로 물품 차이)
인천 미추구출	대상: 관내 여성 1인가구 10가구/ 여성 1인점포 20점포 내용: 1인가구(현관 도어가드), 1인점포(비상벨)

자료: 싱글빙글서울(서울 1인가구 포털); 경기도 홈페이지; 인천미추출구 홈페이지

■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 집수리 지원 서비스

- 여성 1인가구의 집수리 시 시군에서 안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인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이용 시간대 등을 파악하는 등 정보 공개

■ 위급 비상벨·긴급 알림 시스템 구축 등 긴급 상황 대응 체계 연계

2-4. 경복형 생활 돌봄 지원 서비스 운영

- 1인가구의 건강/돌봄 지원 정책 우선 순위 조사에서 시와 군, 청년층과 중장년, 노년층 모두에서 “1인가구에 대한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 제공”의 우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실제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도 원가족과 떨어져 있어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1인가구의 위기를 지원할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뚜렷함

■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역	내용
서울시	대상: 1인가구 및 병원 이용 어려운 시민
건강동행	내용: 서울 소재 병원, 대중교통 동행(월 최대)
경기도병원	대상: 1인가구 및 사실상 1인가구(노인 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안심동행	내용: 해당 시군 운영(안산, 광명, 군포, 성남, 과천, 평택, 시흥, 광주, 구리, 양평, 안성)

자료: 싱글빙글서울(서울 1인가구 포털); 경기도 홈페이지

■ 지역 기반 안부확인·생활 지원·긴급 돌봄 연계

- 지역 내 활동 영역이 넓은 집배원 등을 통한 고립가구 지원, 중장년 1인가구 대상 반찬 지원을 통해 대상자 모니터링, 위기 상황시 개입 통로 구축

지역	내용
구미 안부살핌 소포우편 서비스	대상: 고립 고위험군 100가구 내용: 집배원들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를 대상으로 월 2회 정기 방문해 라면, 즉석식품, 휴지 등 1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대면 안부 확인 위기 징후가 발견시 지자체 전달 → 긴급지원,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울진 남성 대상 밀키트 사업	대상: 20~59세 1인가구 남성 내용: 6개월(25회)간 가족센터 직원이 직접 밀키트 배달 → 생활 밀착형 물품 제공 및 사례 관리를 통한 지원

자료: 싱글빙글서울(서울 1인가구 포털); 경기도 홈페이지

■ 1인가구 가사 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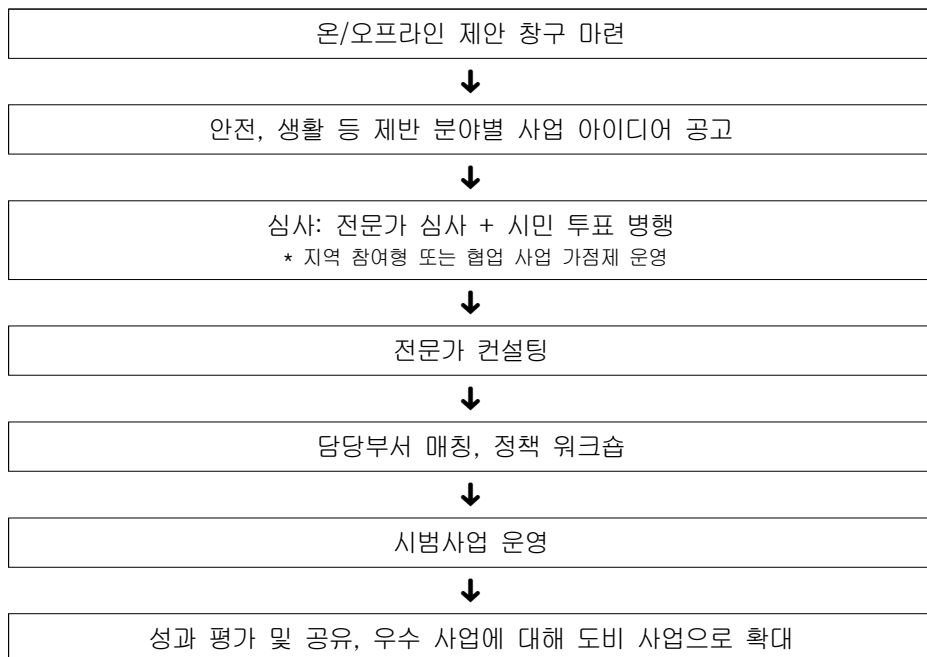
- 청년 첫독립 가사 코칭: 단순 청소 지원이 아니라 청소 방법 교육, 세탁 교육 등 멘토 형식으로 운영
- 위기 가구 대상 가사 지원 및 컨설팅: 청소와 세탁, 조리 등에 대한 교육 운영, 정리 수납 교육과 함께 상태 진단, 위험 상황일시 컨설팅과 함께 정리 수납 지원 등 단계별 대응

2-5. 시민 참여형 1인가구 정책 공모사업

○ 1인가구 실태 조사 결과 제도 인식 정책에서 전연령대에서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 시민공모’에 대한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남. 이는 1인가구 사업이 필요하며,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를 드러냄. 시민 제안 공모사업의 운영은 1인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내 1인가구의 실질적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수 있음. 이에 1인가구 시민제안 공모 사업의 시범 운영을 제안함

■ 주민 제안 기반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1인가구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제안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가 가능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체감도를 반영한 현장감 있는 정책 개발의 기반이 됨



목표 3. 1인가구 정책 추진 기반 고도화

- 본 연구의 결과 1인가구 사업은 가족센터 내 온가족 보듬 사업에서 운영 할 수 있으나 필수 사업은 아님. 이에 기존 인력이 사례 관리부터 모집, 운영,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며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며, 현장에서는 직장인 1인가구를 위한 청장년 및 중장년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획부터 운영까지 업무 부담이 큼. 특히, 1인가구 사업은 모집의 어려움과 함께 사업 운영상에서도 사례 공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 어려움이 큼. 또한, 애로점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소도시나 농촌 지역, 특히 도서인 울릉군 등지에서는 청년층과 장년층 선호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강사 섭외가 어렵고, 이동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보상과 체류비 등의 부담이 커서 운영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는 지역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광역 단위의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뚜렷함

3-1. 전문 인력 및 사업 운영 기반 확충

- 1인가구 사업은 심리·정서, 건강, 주거, 경제, 안전, 관계망 형성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야 하므로, 전담 인력 중심의 기획·발굴·연계·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함. 특히 가족센터 기반 사업은 상담, 교육, 모임, 안전지원, 외부기관 연계까지 수행하므로 기존 사업에 담당자가 더해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1인가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전문 인력 배치

- 광역 단위에서는 1인가구 정책 기획 및 교육, 포털 운영 등 1인가구 전담 인력 지정
- 가족센터 사업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 또는 1인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사례 발굴·상담·프로그램 담당 1인가구 전담 코디네이터제 운영

■ 안정적 사업 예산 지원체계 구축

- 1인가구 사업 운영 및 확대를 위한 경북도 예산 확보(기존사업의 확대 지원 포함)

3-2.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1인가구 사업은 대상자의 연령과 거주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요구도의 차이가 크며, 고립·우울·주거불안·경제취약 등 취약성을 지닌 그룹도 있어, 일반 프로그램 운영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1인가구에 대한 이해, 상담 및 위기 대응, 자원연계, 사업기획·평가를 통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역량이 요구됨. 이에 현장에서도 1인가구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또한 2026년 현재 성평등 가족부도 가족센터 현장에 적용할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현장 인력 교육은 필수적임

- 실무 교육 및 정책 전문 교육 과정 운영: 1인가구 정책 이해, 생애주기별 특성,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이해, 사회 관계망의 이해 등
- 반기별 사례 회의 및 경제 및 부동산, 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 전문화된 교육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한 역량 강화
- 현장 실무자 대상 우수 사례 공유회 및 학습 모임 지원

3-3.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지역에서 가족 사업으로 1인가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가족센터이지만, 노년층이나 취약 계층 대상 1인가구 사업은 복지관 및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음. 또한 각 시군 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센터에서 교육 사업 및 복지적 지원 사업,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장에서는 1인가구 사업 운영시 청년층의 청년센터 사업과 노년층은 노인복지관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와 3대 가족 사업의 경우도 사업 대상 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현실의 문제를 언급함. 또한, 1인가구의 문제는 연령별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영역별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즉, 건강은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는 주거복지센터, 안전은 경찰·소방, 경제는 고용기관·금융교육기관, 사회적 관계망은 복지관·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 해소와 사후 관리가 요구됨. 이에 지역내 자원을 보

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가족 센터 중심의 지역 사회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가족센터 역할 재정립: 「가족지원기관」에서 「관계회복 플랫폼」으로



연구 결과와 자문 의견 기반으로 챗gpt 활용 제작

[그림 IV-4]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가족센터 역할

- 경상북도 가족센터는 기존의 가족관계 증진, 부모교육, 상담 중심 기능을 확대 하여 중장년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와 사회적 고립, 특히 중장년 위험군을 위한 관계회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1인가구 사업 거점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및 사업 대상 데이터 기반 통합적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가족센터 및 연계 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연계 체계 구축: 가족센터는 관계 형성과 생활 역량 강화,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위기상황시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원의 창구 역할, 수행

기관	주요 역할	1인가구 지원
가족센터 (거점)	관계망 형성·심리 정서·생활 역량·사 례 연계 조정	자조모임·소셜다이닝·심리 프로그램·생활 역량 교육·대상자 발굴 및 기관 연계
종합사회 복지관	취약계층 복지·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결	위기·고독사 위험 고령 1인가구 집중 사 례관리, 긴급 복지 연계, 돌봄 서비스 제 공
행정복지 센터	주민 최접점 행정, 전수 데이터 보 유, 긴급복지 신청	1인가구 전수 파악·초기 접촉, 정보 공유
보건소	건강 모니터링·정신건강·방문보건	고령 1인가구 건강 모니터링, 정신건강 위기 개입, 자살예방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건강 위기 개입·상담·사례관리	고립·우울 위험 1인가구 심층 상담, 자살 예방 위기 개입, 사회복귀 지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여가·급식·일상 돌봄	군 지역 노년 1인가구 일상 지원, 안부 확인, 급식 서비스

■ 1인가구 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 가족센터 및 유관 기관, 행정, 사회보장
협의체 등

예시) 서울시의 병원동행, 주거상담, 멘토링, 경제교육, 관계망 프로그램 등과 같
은 다기관 협업 구조 구축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운영

- 1인가구 대상 또는 포함 사업 운영 기관 간의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공동 프
로그램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1인가구 수행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한 1인가구 발굴 사업 운영

3-4. 광역단위 지원 체계 확대

○ 경북의 1인가구 사업은 시군별 여건 차이로 인해 서비스 편차가 큼. 특히, 격리성
이 큰 산간과 도서 지역은 1인가구의 정보와 인프라 접근성의 한계가 큼. 이에 1
인가구 사업 운영에서도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선호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풀 부족으
로 기획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체류비 및 이동비 등의 부담이 큼. 또한, 소도
시와 농촌 지역의 1인가구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참가자들의 1인가구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이 사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촌 지역에서도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할수 있는 광역 단위의 보다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 광역 강사풀 공유 및 도서·산간지역 강사료 지원

- 군 지역 강사 부족 문제를 도 광역 단위 강사풀(경북도 광역 강사 인력풀 플랫폼)
- 인접 시군 센터 공동 프로그램 기획으로 강사 출장비 분담
- 지역 내 은퇴 전문직(의료·영양·법률)을 재능 기부 강사로 발굴 양성
- 1인가구 대상 준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한 지역 강사 양성: 경북도 단위 운영 (온라인 강의 중심+ 현장 집합 강의), 실습 과정 후 강사로 활용

▣ 경북 1인가구 포털과 같은 광역 통합 플랫폼을 통한 1인가구 사업 홍보: 사업 정보, 신청, 교육 안내 등



▣ 1인가구 사업공유회를 통한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1인가구 사업 인식 개선

▣ 1인가구 정책 및 제도, 사업 운영 기관 등에 대한 리플렛 제작 배포

- 가족센터에 1인가구 대상 사업 및 제도를 대상과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포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상북도(2024),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
- 경상북도(2024), 「2025년 경상북도 1인가구 시행계획」
- 경상북도 (2026), 시·군 1인 가구 지원사업 우수사례
- 서울특별시(2025), 2025년 서울시 1인가구 시행계획
- 경기도(2026), 2026년 경기도 1인가구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2026) 서울마음편의점 조성·운영계획
- 동북지방통계청(2023),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및 이동 분석」
- 동북지방통계청(2023). 「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 국가데이터처(2024),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행정안전부(2025),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국가데이터처(2020, 2024), 「인구총조사」
- 권태연(2024), 1인가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생애주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6(1), 395~413
- 김보람·이경수·정미영(2021),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거주 청년·중년 여성 1인가구의 건강수준 특성 비교」, *한국도서연구* 33권 3호, pp 139~155, 한국도서학회
- 김정은, 박정윤, 서지원, 송혜림(2023).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생활 만족도: 김포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3), 21~37
- 김태환·이주미·최준영(2023), 「도농 1인가구 빈곤 특성 비교」, *보건복지포럼* 제323호 (9월호), pp.71-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16), 「1인 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나성은(2024), 서울시 1인가구 유형별 정책수요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노경혜(202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노경혜·노혜진·정혜원(2022),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박상미·배은석·김민수(2023), 울산광역시 고립위험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배옥현(2022), 경북지역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배옥현·김명화(2024), 「경상북도 1인 가구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서지원, 송혜림, 김정은, 박정윤(2024). 1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성 결정요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8(1), 13~25
- 성민정·최진화·김진욱(2023), 「1인 위기가구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정선(2025), 「저출생 시대의 1인가구 정책방향 및 지원정책 연구」, 강원도가족여성연구원
- 양정선(2025), 저출생 시대의 1인가구 정책방향 및 지원정책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오난숙·김성애·신창환(2022), 「경북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사회서비스 제안: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집단면접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1권 3호 pp 51~73, 경북연구원
- 오정아(2024),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실태 및 지원방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장정문·정민자(2024),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42(1), 69~80
- 최정은·전용호·김성우(2023), 「중장년 1인 위기가구의 특성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혜림(2024),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예측요인 탐색: 부산지역 1인가구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33(5), 643~654
- 한혜림(2025), 제2차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 허목하·유지영·조아라(2023),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강원 여성가족연구원

성평등 가족부 정책 뉴스(성평등 가족부, 전국 가족센터 통해 1인가구 지원 강화, 2026.03.03.)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welfareInfoId=WLF00001098>)

서울복지포털(<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9422>)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서울마음편의점' 운영 확대! 19개 지점별 .. : 네이버블로그)

경기도 1인가구 포털(<https://www.gg.go.kr/1ingg/main.do>)

싱글빙글서울(서울 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인천미추홀구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main/main.do>)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

부록

A thick, light gray horizontal bar with rounded ends, spanning across the page below the title.

○ 경북은 2023년 동북지방 통계청을 통해 「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⁶⁾을 실시하고 경북 1인가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이를 발체 정리함

<표 1> 경북 혼인상태별 중장년층 및 1인가구 현황(2020)

(단위: 천명, %)

구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원		
	계	남	여	계	남	여
중장년층	145 (100.0)	83 (100)	61 (100)	886 (100)	444 (100)	442 (100)
미혼	43 (29.8)	31 (37.3)	12 (19.6)	57 (6.4)	42 (9.5)	15 (3.4)
배우자 있음	44 (30.3)	28 (33.9)	16 (25.4)	759 (85.7)	373 (84.0)	386 (87.3)
사별	18 (12.8)	4 (4.2)	15 (24.3)	22 (2.5)	4 (0.9)	18 (4.1)
이혼	39 (27.2)	21 (24.6)	19 (30.7)	48 (5.4)	22 (5.0)	25 (5.7)

자료: 동북지방 통계청(2023), 「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표 2> 경북 중장년층의 거주종류 및 점유형태별 구성비(2020)

(단위: %)

구분	계	거처종류			점유형태				
		단독	아파트	기타	월세	자가	전세	기타	
2인이상 가구원	100.0	34.4	56.4	9.2	9.7	81.1	5.5	3.6	
1인가구	100.0	50.0	35.1	15.0	32.9	48.6	7.2	11.3	
혼 인	미혼	100.0	52.9	33.1	14.0	41.0	39.1	8.1	11.6
	남	100.0	56.8	29.1	14.0	40.7	39.5	7.5	12.4
	여	100.0	42.8	43.2	14.0	42.0	38.0	9.8	10.3
상 태	배우자 있음	100.0	50.2	33.5	16.3	24.2	54.7	7.1	13.9
사별	100.0	47.4	39.4	13.1	19.5	69.7	4.9	5.9	
이혼	100.0	47.7	37.1	15.3	39.8	42.4	7.5	10.3	

자료: 동북지방 통계청(2023), 「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6) 활용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전수)(기준시점 20.11.1) 와 「인구주택총조사(표본)」(기준시점 20.11.1) , 「가구통계등록부」(기준시점 20.11.1)임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및 향후 과제

<표 3> 경북 중장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2020)

(단위: 천명, %)

구분	경제활동 함		사회활동 함	
	2인 이상 가구원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원	1인 가구
중장년층	72.7	71.8	37.5	30.5
미혼	63.4	72.2	22.7	25.7
	남	65.7	73.3	22.2
여	57.1	69.1	24.1	23.7
배우자 있음	73.8	80.1	39.5	40.1
사별	60.9	59.5	27.7	27.5
이혼	71.5	68.0	27.1	26.7

자료: 동북지방 통계청(2023), 「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표 4> 경북 중장년층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20)

(단위: %)

구분	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타
2인이상 가구원	100.0	12.2	14.2	13.6	13.3	17.8	8.8	20.0
1인가구	100.0	12.1	12.8	16.2	10.3	17.1	11.7	19.8
미혼	100.0	14.1	14.1	11.0	6.7	20.4	11.7	21.9
	남	100.0	10.7	12.7	6.1	8.4	24.6	13.3
여	100.0	23.6	18.0	24.6	2.1	9.0	7.2	15.4
배우자 있음	100.0	16.3	16.1	13.6	13.2	14.8	7.0	19.1
사별	100.0	4.3	5.8	28.3	17.0	10.1	19.1	15.5
이혼	100.0	7.5	9.6	20.6	8.0	19.3	15.0	20.1

자료: 동북지방 통계청(2023), 「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표 5> 경북 중장년층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20)

(단위: %)

구분	계	농업·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2인이상 가구원	100.0	13.4	20.5	7.0	10.3	7.8	8.0	33.1
1인가구	100.0	10.6	20.1	8.5	9.0	10.3	6.9	34.6
미혼	100.0	6.9	25.0	9.6	9.6	7.3	4.0	37.7
	남	100.0	8.5	28.5	12.3	8.9	4.1	2.0
여	100.0	2.3	15.2	2.0	11.5	16.0	9.6	43.4
배우자 있음	100.0	13.4	18.9	8.6	8.4	8.1	6.3	36.3
사별	100.0	17.7	12.4	3.2	7.9	15.8	14.5	28.4
이혼	100.0	8.2	19.2	9.4	9.8	14.4	8.0	31.1

자료: 동북지방 통계청(2023), 「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특성 분석」

□ 기관 우수 프로그램 소개

○ 구미 사례

-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느슨한네트워크’ 강화
- 요즘 청년 세대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깊은 관계는 기피하지만, 사회적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은 해소하고 싶어 하는 ‘느슨한 연결’을 지향함. 본 기관의 성공 사례인 ‘4회기 분절형 운영’처럼, 참여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본인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커뮤니티 모델을 제안함.
- 강제성 없는 자발적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청년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 지역 내 1인가구들이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매개로 부담 없이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울릉군 사례

- 2025년 청년 1인가구지원사업 청년 1인 ‘문화생활의 정석’ 프로그램을 제안
 - 2023년: 전입 청년의 초기 적응을 돕기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행정안내등 ‘단순 정보제공과 기본 인프라 지원’에 집중
 - 2024년: 다도, 예술, MBTI등의 ‘문화-치유융합형프로그램’ 등으로 정서적 고립감 해소
 - 2025: 형성된 관계망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상생네트워크 구축’
-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와의 밀착 연계를 강화함. 이를 통해 1인 가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자로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의 능동적인 일원으로 변화 시킴

○ 울진군 사례

- 20~59세 1인 가구 남성대상으로 밀키트사업 추진(실태조사, 사례관리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예방효과)
- 영유아, 청소년,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장년 층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 울진군 면단위 지역은 차량이 없고 인근에 마트나 슈퍼가 없는 경우, 생필품 및 식재료 구매 자체가 어렵고, 배달 시스템도 미비하여 불규칙한 식사, 영양 불균형,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반복됨.
- 기초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중장년 1인 독거남성들의 생활 여건이 매우 취약해 기본적인 식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밀키트 지원사업을 시행함.
- 각 면마다, 1~2명씩 선정해 매주(25회, 6개월정도) 직접 반찬을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진행함(배달에 직원이 하루 8시간을 투입함).
- 어려움은 있지만, 중·장년 1인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별도 사업비 편성을 통해 밀키트 지원, 생활밀착형 물품 지원, 사례관리,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순 생계지원 차원을 넘어 복지위기 조기 발견,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예방적 복지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중·장년 1인 가구 남성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필요함